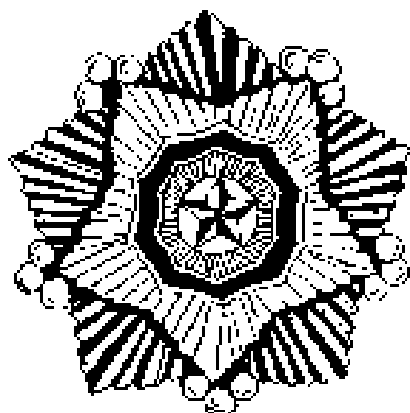




9

주체 100 (201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0(2011)년 제9호

(루계 제 767 호)

◇◇◇◇◇◇◇◇◇◇

차 례

◇◇◇◇◇◇◇◇◇◇

영원토록 따르리	3
그리움의 노래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파탄된 《토벌》작전	4
봄날도 이른아침에	5
령군봉을 노래하네	5
주체문학의 대강	6
휘날리는 붉은기	6
절세의 위인의 인간적풍모에 대한 철학적형상	7
고결한 생애앞에	9
타향의 봄	9
안녕하시라 조국이여	10
경구, 격언	10
먼 북변도시에서	11
잊지 못할 돈 2 원	23
새 조선의 농민된 본분을 새겨주시며	24
첫봄날에	25
약속하자요	33
참된 명사수의 비결에 대한 다채로운 형상	34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며	38
꽃에 대한 단상	39
비날론	40
신사란 무엇인가	54
은하수 흐르는 땅	55
해저무는 논머리에서	55
너보다 좋은 곳 몰라라	56
가사 《곧바로》에 구현된 표현수법과 그의 형상적효과	57
고도기술의 일반적특징	58
조국과 너인	59
조선속담	61
자기 위치 앞으로	62
영웅의 모습	70
생각깊은 순간	70
생활적이며 친근감있는 가사적형상	71
처녀는 그날의 모습으로 산다	73
나는 이런 저녁이 좋다	73
웃자 꽃이여 거리여!	74
고마운 처녀	75
아들에게 하는 말	75
다시 찾은 광명	76
독특한 형상속에 반침략애국주의사상을 보여준 고전소설 《몽유달천록》	76
민족시가유산 《표해가》	78
짜리귀족관료제도의 부패성을 폭로한 희곡 《검찰관》	79

영원토록 따르리

오 동 규

우리 당중앙청사우에
송엄히 휘날리는 당기발을 우러러
내 감격의 환호를 터친다
아버이장군님을 변함없이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이 영광과 행복에 겨워

우리 장군님
풍파사나운 수십여성상
조선로동당을 백승으로 향도하신
불멸의 그 업적이
저 붉은 당기발에 뜨겁게 어려와
이 가슴벅찬 격정을 금할길 없구나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성스러운 당기발을 높이 날리시며
선군장정 천만리에 한평생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백승의 선군위업을 만대에 떨치시며
이 나라 방선천리 고지와 고지들
수많은 공장과 농촌에 남기신
그 자욱자욱을 더듬는 마음 뜨거움에 젖어오누나

아, 필승불패의 조선로동당을 이끄시고
장군님 헤쳐오신 그 한평생의 길우에
내 조국은 그 얼마나 높이 솟아오른것이나
대고조로 비약하는 이 조선
세계를 굽어보며 존엄높은 위용을 떨쳐가는것이나

일찌기 젊었던 그 시절
준엄한 결전의 포화속을 뚫고

가 사

축포 오르는 전승의 언덕을 넘어온 이 로당원
장군님 모시고 환희의 세월에 살며
변함없이 그이를 천세만세 높이 받든
영광의 오늘을 맞이했나니

선군의 총대로
내 나라 사회주의를 지켜주시고
인민의 천만복을 꽃피워주시는
정의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
아버이장군님 우러르면
눈굽이 절로 후더움에 젖어오나니

장군님을 길이 받들고
혁명하는 이 전사의 끝없는 영광이며
내 언제나 오늘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따르리라 이 세상 끝까지
그이 가시는 선군장정 천만리
그 걸음걸음에 내 충정을 다하리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여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의 날은 오리니
오직 한마음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한생을 바쳐가는 이 전쟁로병
가슴에 차넘치는 불같은 심장의 말
세상을 향해 환호높이 목청껏 터치노라

아, 천세만세
인민이 길이 따르고
력사가 길이 받들어모셔갈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를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선군조선은 무궁번영하리라!

그리움의 노래

김 응 조

꿈결에도 그리워 내가 안긴 품은
날 낳아 키워준 어머니런가
그리워 달려가 안긴 그 품은
아 내 희망 꽃피준 장군님의 품

그 언제나 그리워 내가 걷는 길은
장군님 가시는 천리전선길

부디 안녕하시라 간절한 이 마음
아 내 마음 그 자욱만 따르네

장군님모습만 눈에 삼삼 어려와
낮이나 밤이나 그 품만 찾네
내 삶의 영원한 품 **김정일**장군님
아 이 세상 끝까지 따르리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국심이란 참으로 강렬한 감정입니다.》

《나는 그때 삼지연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산천을 강탈당했는가를 다시한번 뼈에 사무치게 느끼였습니다.》

나는 삼지연의 절경에 너무도 심취되어 일제를 내쫓고 조국을 해방하면 온 세상이 보란듯이 경치좋은 이 고장을 인민의 휴양지로 꾸려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리상이 이제는 훌륭하게 실현되었습니다.》

혁명전설

파란 된 《토벌》작전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탁월한 지략과 독창적인 전법으로 샤오왕칭(소왕칭)유격근거지방위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주체22(1933)년 11월에 들어서면서 마촌작전으로 불리운 샤오왕칭유격근거지방위전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전민항전의 장벽에 부딪쳐 거둬되는 참패를 당하게 되자 적들은 보병, 포병, 항공대의 협동작전으로 3개 방향에서 악랄하게 포위공격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면적인 방어전을 펴시고 천변만화의 전법으로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시였다. 적들은 거듭 참패를 당하면서도 수적, 기술적우세를 믿고 계속 병력을 증강하면서 악착스럽게 달려들었다. 이런 정황에서 유격근거지를 끝까지 지켜내고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결정적으로 새로운 전술적대책이 필요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극적인 유격근거지방위전과 함께 적들의 중심에 들어가 적의 배후를 타격하여 봉쇄와 장기전으로 유격근거지를 《완전소멸》하려는 적들의 기도를 짓부실 데 대한 새로운 전술적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적들이 대병력으로 달려드는 조건에서 얼마 안되는 유격대가 근거지밖으로 나가 적구교란작전을 벌린다는것은 보통상식으로써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는 방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들의 뒤통수도 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적의 거점들과 지령점들을 련이어 들부시면 소문이 난다고, 소문을 내면서 여기에서도 치고 저기에서도 치면 후방이 녹아날가봐 산골안에 들어왔던

《토벌》대들이 다 달아난다고 확신성있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샤오왕칭유격근거지를 방어하던 유격대를 두개의 편대로 나누어 한 편대는 유격근거지에 남아서 적극적인 방어전을 계속하도록 하시고 다른 한 편대를 몸소 이끄시고 적의 포위망을 뚫고 적구로 진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예견하신대로 적후방은 텅 비어있었다.

유격대가 맨처음으로 들이친것은 량수이취엔 쓰(량수천자)의 일제경찰 및 위만군과 자위단이였다. 이어 항일유격대는 신난거우(신남구)에서 이동하는 적자동차수송대를 습격하고 많은 밀가루와 군수물자를 로획하였다. 그리고 베이평우동(북봉오동)에서 승리의 개가를 울리고 스둥(사둥)방향으로 진출하여 적들을 련이어 들이쳤으며 100여리의 험산준령을 강행군으로 돌파한 다음 3개 조로 나누어 다두천(대두천)의 경찰서와 자위단실을 습격하고 군수창고에 불을 달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항일유격대의 련속적인 불의타격으로 후방이 녹아나자 적들은 유격근거지를 조이고있던 포위환을 풀고 퇴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장기적인 포위전으로 유격근거지를 《소멸》하려던 적들의 동기《토벌》작전은 완전히 파란되였다.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맛받아나가는 공격정신과 변화무쌍한 유격전술로 샤오왕칭유격근거지방위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신 이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 길이 전해지고있다.

봄 날 도 이 른 아 침 에

리 정 녀

공장에 들어온 날 나는 부러웠지
천을 짜는 직포공들
우리 공장 영예게시판엔
직포공영웅이 제일 많았지

내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우리가 뽑은 천만갈래 실들로
요술을 부리듯 꽃문양천을 짜는
혁신자직포공들

그날은 봄날 봄날도 이른아침
아버지장군님 공장에 오셨네
우리들이 새로 건설한
데트론인견천직장에 천짜는 모습 보시려

직포공들 기뻐서 어쩔줄 몰랐네
장군님을 자기들의 직기앞에 모시고
천짜는 모습 보여드릴
기쁨의 순간을 눈앞에 그려보며

일군들의 안내를 받아 걸으시던 장군님
순간 걸음을 멈추시더니
연사공 우리들이 일하는 일터로
발걸음 먼저 옮기셨네

뛰니뛰니해도 이 동무들이 수고한다고
실이 많아야 천도 많이 짤수 있고

가 사

실날이 고와야 천발도 곱다시며
우리들을 찾아주신 장군님

우리 너무 기뻐 인사도 미처 못드렸는데
첫공정을 맡은 동무들이 수고한다고
연사기사이를 걸으시며
우리들 실잇는 모습 오래도록 보아주셨지

천오리 만오리 실을 물고 도는
연사기사이를 오고가는 우리의 모습
연사기에 묻혀 보이지 않아
하루일종화때나 동무들 다 만나보던 일터

그 일터에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들의 모습 보아주시려
그처럼 바쁘신 귀한 걸음
우리의 순회길따라 걸으셨나니

직포공들도 부러워하는 연사공
장군님 제일먼저 만나주신 연사공
장군님 높이 치하해주신 연사공
순회길도 함께 걸어주신 연사공

아, 장군님 걸어주신 연사공의 순회길은
우리 한생 걸고걸을 사랑의 천만리
우리 한생 짜고짤 비단필 천만리
우리는 행복한 방직공장 연사공이여라

령 군 봉 을 노 래 하 네

김 중 삼

령군봉기슭에 설레이는 밤나무
장군님 모셨던 그 영광 노래하네
빨찌산청년장군 수령님모습으로
령군봉에 남기신 불멸의 그 맹세
아 우리 장군님 백두의 행군길을
선군으로 이어갈 맹세다진 령군봉이여

령군봉마루에 울려 퍼진 총소리
영원한 메아리로 오늘도 울려오네
백두산총대로 내 조국 떨쳐갈

령군봉에 남기신 신념의 그 맹세
아 우리 장군님 백두의 행군길을
선군으로 이어갈 맹세다진 령군봉이여

령군봉하늘가의 찬란한 해돋이
삼천리 조국강산 붉게붉게 물들이네
주체의 내 조국을 온 세상에 떨치리라
령군봉에 남기신 조선의 그 맹세
아 우리 장군님 백두의 행군길을
선군으로 이어갈 맹세다진 령군봉이여

주체문학의 대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는 끊임없이 전진하고있으며 문학예술에 대한 인민의 요구도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문학예술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시대 인간과 생활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그려내야 한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문예관은 주체의 문예관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있다.》

혁명일화

휘날리는 붉은기

올해 9월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있는지 1년이 되는 뜻깊은 달이다.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뜻깊은 9월을 맞으며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 길에서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크나큰 격정속에 돌이켜 보고있다.

주체53(1964)년 6월 20일은 류달리 청명하고 상쾌한 날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날 밤을 사무실에서 밝히시고 이른 새벽에 일군들과 함께 청사의 정원을 거니시였다.

그러시다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당중앙위원회 청사우에서 새벽바람을 타고 기세높이 펄럭이는 붉은 당기를 바라보며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청사 창공높이 휘날리는 당기발은 불바다를 헤치며 간고한 시련의 언덕을 넘어 온 승리와 영광의 기발이며 혁명의 기발입니다. 우리 당기발의 력사는 수령님께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혁명의 붉은 기발을 드신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령님께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붉은 기발을 드신 때로부터 우리 당의 뿌리도 튼튼히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일군들의 마음을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로 이끌어주며 깊은 생각을 자아내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ㄷ. ㄷ》를 무으시고 높이 추켜드신 붉은 기발, 그 기발아래서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우리 당의 뿌리가 내리였으며 인류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가 열린것이다. 항일혁명 20년, 창조와 건설의 근 20년이 그 기발에 어리어있었다.

그 어떤 퇴색도 변색도 모르고 영원히 붉은색으

로 휘날리는 우리의 당기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래도록 붉은 당기를 바라보시였다. 당기발은 더 세차게 펄럭이였다.

그이께서는 이윽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제는 우리가 저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어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보니 감개무량하기도 하지만 당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끼게 되였다고, 자신께서는 수령님을 잘 받들어모시며 수령님의 뜻대로 우리 당을 떠메고나갈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고 심장의 뜻을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완성을 필생의 사명으로 안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다지시는 엄숙한 계승의 맹세였다.

일군들은 세찬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그이를 우러렀다. 그 어떤 심원하고 장엄한 력사적사변의 시작을 느낀것이였다.

그렇다, 그것은 우리 당건설과 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시대, 위대한 계승의 시대가 열리는 력사의 시각이였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심장의 맹세를 안으시고 우리 당건설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하여 바치신 헌신은 그 얼마이며 그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그 얼마이던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령도따라 붉은 당기를 높이 휘날리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의 한길로 더욱 억세게 걸어나갈 것이다.

절세의 위인의 인간적품모에 대한 철학적형상

—단편소설 《흰눈세계》와 《집》을 두고—

오 춘 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은 수령형상창조에서 나서는 본질적요구의 하나이다.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수령형상작품의 품격을 높일수 있다.

단편소설 《흰눈세계》 [김혜영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100(2011)년 2호]는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수령형상작품의 품격을 높이고 독자들의 커다란 매혹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소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광산지배인 리남천, 당비서 김용석과의 인간적관계속에서 가장 가까운 혈육들사이에서만 나눌수 있는 뜨거운 정,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주고받는 아버지와의 자식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로 형상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에 매혹을 느끼게 하고있다.

고난의 행군의 후파로 광산의 기본갱인 승리광구가 침수되어 생산이 소극적으로 진행되고있는 광산을 되살릴 방도를 찾기 위해 광산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쇠돌빛얼굴에 고수머리가 인상적인 지배인, 무용수같은 체격에 녀성적인 이목구비가 특징적인 당비서를 만나시여 쇠돌생산정형을 료해하신다.

그러던중 지배인의 배짱이 마음에 드신 우리 장군님께서 이런 일은 딱소리가 나게 약속을 해두어야 한다고 하실 때 지배인은 시원스럽게 약속한다고 대답올린다. 장군님께서서는 지배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 치시며 배짱이 맞는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광구에 잠긴 물을 한달동안에 다 푸라는것은 자신께서 광산에 주는 전투명령이라고 선언조로 말씀하시는데것이다.

이처럼 소설은 수령과 전사사이의 관계를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사이에서만 나눌수 있

는 뜨거운 정, 믿음과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주체의 인간학의 본도에 맞게 형상하고있으며 수령의 위인적품모를 격식화하지 않고 생활그대로의 진실성을 가지고 형상함으로써 절세의 위인의 인간적품모에 매혹되게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광부들이 자신과 한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 침수된 물을 한달동안에 다 퍼내고 쇠돌생산을 전해에 비하여 2배로 끌어올린 광산에 또다시 오시여 《장군님의 믿음이 기적을 낳았다》는 록화물을 보시며 광산로동계급의 정신력의 높이를 헤아려보신다.

소설에서 보는것처럼 지배인이 바깥씨를 들고 감탕속에 뛰어들자 광부들은 물론 로병들, 가두녀 맹원들까지 떨쳐나 온몸이 감탕투성이가 되어 물을 퍼낸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사람들의 정신력의 핵인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높이 발휘되는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약속을 어김없이 지킨 광부들을 평양에 부르시여 5.1절경축연회도 마련해주시고 공훈국가합창단공연도 함께 보아주시며 가족들에게 줄 선물도 듬뿍 안겨주신다. 또 광산에 현대적인 채굴설비들도 보내주시는 무한대한 사랑을 베풀어주신다.

그리고 그후 다시 오시여 광부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또다시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께서 광산을 떠나시면서 새겨보시는 속보판제목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광산의 명줄》, 《광산의 대답〈무조건 한다!〉》 여기에 이 소설이 말하자는 기본사상이 담겨져있는것이다.

작품은 지배인, 당비서의 성격적특징을 비교적 선명하게, 원만히 개성화함으로써 수령형상작품의 품위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지배인에게 있다는 3대자랑에 대한 생활세부, 자기 고향이 우리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과 가까운 곳이라는것, 소년시절을 김형권군에서 보냈다는것, 백두산녀장군의 고향이 있는 함경북도에서 광산금속대학을 나왔다라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과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 인민의 마음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내릴 때 소리없이 평평 내리는 흰눈, 그렇듯 정 같하고 고요하다가도 일단 바람이 불면 사나운 갈

기를 일으키며 눈보라가 되기도 하는 흰눈, 그것은 그지없이 순박하다가도 일단 전투명령을 받으면 폭풍처럼이나 무섭게 내달릴줄 아는 순결하고 용맹한 우리 광부들을 상징하고있다.

이 소설이 수평형상작품으로서 이채롭고 매력을 안겨주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적품모와 광산일군들과 광부들의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순결한 충정의 세계를 생활적으로 잘 형상한데 있다.

단편소설 《집》 [리라순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100(2011)년 4호]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건축가 신정희, 최고사령부작전지휘성원 차석주,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직장 작업반장 김춘호가정파의 관계속에서 뚜렷이 부각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정희와 인연을 맺게 되신 것은 40여년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도의 길에서 만난 어린 신정희가 이다음 커서 좋은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겠다는것을 아버지와 약속하였다는것을 아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어 자신과도 약속하자고 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소녀와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가 다 자랐을 때에는 건설전재대학(당시)에서 공부하도록 하시고 대학을 졸업하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뜻대로 건축연구소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가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평가해주곤 하시였다.

그런데 그후 그가 만든 어느 거리 살림집건설형성안은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풍조가 나타나있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의 설계를 보시고 가슴아픔을 느끼며 기각시키신다.

하여 그는 평양시 10만세대살림집건설장에 달려나가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그이께서 의도하시는 인민의 집을 짓겠다는 편지를 우리 장군님께 삼가 올린다.

소설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김춘호가정파의 관계속에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김춘호 안해와의 인간적관계는 하나의 작은 세부를 통하여 친정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아무런 어려움도, 사소한 간격도 없는 혈연적관계로 형상함으로써 절세의 위인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매혹적으로 그리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의 남편이 교외에서 시내로 출근한다는것을 근심하시자 집은 받았지만 작업반장을 하는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또 시어머니도 고층살림집보다 지금 살고있는 단

층집이 더 좋다고 하기에 이사하지 않았다는것, 우리 아직 얼마든지 참을수 있다고 하는 그 녀인의 말에서 그이께서는 가슴이 저려나는것을 느끼시는것이다.

소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의 대화와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생동한 생활적세부를 통해 감동깊이 펼쳐보임으로써 인민들에게 더 좋은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는 우리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 또한 차석주는 이미 군인들의 창조력을 발동하여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살림집건설에서 본보기를 창조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린다.

그리고 소설에서 보는것처럼 새로 일떠선 만수대거리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건설예술의 본질적특성과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구미에 맞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살림집들을 보시며 《훌륭합니다. 아주 멋쟁이입니다. ... 만점짜리입니다.》라고 하시며 평양시의 10만세대살림집들을 이 수준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소설은 이처럼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우리 장군님의 비범한 철학적예지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감정과 정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특색있는 건축물들을 일떠세워주시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차석주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참으로 감동깊게, 섬세하게 형상하고있다.

단편소설 《집》은 또한 인상깊은 생동한 생활세부들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여기서 《평양-10km》로상에서 아이를 안고있는 젊은 녀인과 담화하시는 생활세부, 길가의 둔덕에 있는 초가이영집에서 어린 소녀 신정희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생활세부, 우리 나라의 유명한 화가 안견이 그린 그림 《꿈에 본 동산》에 대한 세부, 선경을 펼친 중대병실에 대한 세부묘사를 중요계기들에서 반복하여 보여줌으로써 절세위인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단편소설 《흰눈세계》와 《집》은 작가들이 우리 장군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에 진실로 매혹되고 장군님의 강행군현지지도길을 자기의 뜨거운 심장과 열정으로 체험하고 감수하였기때문에 이처럼 비교적 우수한 소설들을 창작해낼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작가들은 절세위인들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형상한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고 결 한 생 어 알 어

박 기 석

9월 22일
어머님 우리결을 떠나신 이날
어머님 그리워 찾아뵙는 이 마음
왜 이리 뜨거이 뜨거이 젖는것입니까

바람찬 오동지달
한많은 이 나라 찬눈 찬바람속에 탄생하시여
피바다 불바다 헤쳐 찾은 조국
그 조국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위해
한생을 다 바쳐오신 어머님

어머님 들으십니까
조국진군의 봄날 이랑에 물을 씨앗이 없어
한숨과 눈물을 묻던 대흥단별
어머님 그날에 안겨주신 밀보리씨앗이
오늘은 백두삼천리별에 파도치는
밀바다 설레이는 소리

어머님 보십니까
별들도 잠든 밀립속 긴긴 밤
어머님 대원들의 군모에
한뜸두뜸 수놓으시던 붉은 오각별이 아십니까
맑고 푸르른 하늘가에
나뭇겨 빛나는 우리의 공화국기발의 오각별

들을 바라보아도 어머님숨결
하늘을 쳐다보아도 어머님모습
산골짜 한떨기 붉은 단풍잎
그 고운 나무잎조차
어쩔 어머님 남기신 훈훈한 미소런듯

기쁨이 무르익고 행복이 넘쳐나는
이 땅 이 좋은 세상을 펼쳐주시려
어머님어깨우엔
그리도 차디찬 흰눈 많이도 얹혀있었고
어머님웃자락엔
그리도 찬비 불비 마를새 없었나니

좋은 날 좋은 세상은
우리들 한생에 다 없어주시고
굿은 날 굿은 세월은
한생에 다 안고가신 어머님

아 가시였어도 가시였어도
주작봉 이 높은 마루에서
우리들의 좋은 날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좋은 앞날 축복하시는
아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시여!

타 향 의 봄

박 태 설

내앞에 한상의 사진이 있다
낫설은 이역의 봄날
우리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
타향에서 봄을 맞으며 찍으신
추억깊은 사진

사진속에 어머님은 웃고계시여도
우리 가슴 어이하여 이리도 젖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이나

보고 또 본다 눈물겹도록
군모아래 조용히 피어오르는 밝은 미소
그 미소 하늘가에 어리면
금시 봄노을이 피어날듯
그 미소 들에 비끼면
눈덮인 산야에도 진달래 피어웃을듯

봄은 왔어도 낫설은 타향의 봄날에
지으신 어머님의 미소
그 미소속엔 어려있어라
그리움에 젖어오는 조국의 봄
투쟁으로 안아올 해방의 봄

장군님 안겨주신 봄을 안고 수수천만리
풀뿌리 썩으며 연눈을 삼키며
장설을 헤쳐가는 행군의 낮과 밤에도
못 잊어 그려보신 조국의 봄

숙영의 깊은 밤에
우등불 타오르는 밀립의 밤에
《사향가》의 은은한 곡조에 안아보던
만경대의 봄

봄은 왔건만
안아보지 못하는 봄 조국의 봄
탄우속을 넘어 눈보라광야를 넘어
시련의 천만령 넘어
기어이 안아와야 할 조국의 봄
환희의 봄 기쁨의 봄 행복의 봄

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타향의 봄날에 그려보시었어라
장군님품속에서 아름답게 꽃피날
영원한 조선의 봄을

안녕하시라 조국이어

박 천 결

떠오르는 태양을
정깊은 그대 얼굴인양 바라보며
아들은 이 아침
새날의 첫인사를 드리노라

간밤도 그대 품에 안겨
아무 근심 모르고 단잠에 들었노라
불어오는 찬바람을 다 막아주고
이 아들의 앞날을 설계하며
또 한밤 지낸 그대앞에
삼가 머리숙여 인사드리는 이 마음

인사를 드리노라
이 아침도 책가방을 달랑거리며
학교로 가는 내 귀여운 아들의 행복한 마음으로
어서 일터로 가자고 손목을 이끄는
정찬 안해의 밝은 웃음으로

이런 순간이면
눈시울이 후터워지노라
가슴 뭉클 뜨거움이 또 솟구치노라
조국이어 그대의 품이 아니라면
저기 길가의 가로등도 한떨기 꽃송이도
피더운 가슴에 꼭 그러안고만 싶은
내 삶의 청신한 이 아침이 있을수 있으랴

우러르노라 가까이 더 가까이
나를 낳은 단 한분 어머니같이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 소중한 조국
행복해도 어려워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는 운명의 품을
이 세상 어디 가서 또 찾으랴

모진 광풍을 다 막아
더 따듯이 안아주는 품
천만자식을 한품에 안고
세계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참으로 위대하고 강대한 나의 조국

붉은기를 높이 들고나가는 선군의 나라
그 누가
그대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그 아성 송두리채 불태워버리며
강성국가의 령마루에로
질풍같이 달려가는 어머니조국

이 세상 가장 강대하고 인자한
그대의 품에서 울리노라
그 품을 잃으면 순간도 못살아
이 아침도 그대의 안녕을 위해
또다시 총진군길에 나서는 내 심장의 박동소리
안녕하시라 조국이어

아아 천만년 길이길이 번영하시라
사랑하는 내 조국 위대한 장군님의 품이여!

경구, 격언

- 력사는 전례가 보여준 학설이다
- 해빛은 따사롭고 어머니는 자애롭다
- 독서는 해박한 사람을 만들고 대화는 민첩한 사람을 만들며 필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 좋은 책은 인류의 불멸의 정신이다



변복변도시에서

한 철 순

일제의 라남제 19사단본부가 들어앉았던 곳에
틀고앉은 안길은 아까부터 책상위의 전화기를 초
조히 바라보고있었다.

바로 어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너
대원들과 함께 조국에 돌아오시였다.

안길은 그이를 뵈게 된것이 너무 기뻐 김통화에
게 김정숙동지의 일행을 빨리 잘 모셔오라는 지시
를 주었다. 그런데 그이께서 피로도 푸실 사이없
이 오늘 아침 김철호네를 데리고 읍거리로 나가셨
다고 하여 지금 전화기를 지키고앉아 그이의 소식
을 기다리고있는중이였다.

정말 한시라도 빨리 그이를 뵈고싶었다.

물론 첫째는 그리움이였고 다음은... 자기로서의
욕심도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지금 청진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실태가 말이 아니였다. 안길은 몇달전에 장군님을
모시고 개선한 후 인차 함경북도에 파견되어왔었
다. 청진에 자리잡은 안길은 그날부터 산더미같이
쌓인 일감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면서 밤잠도 잇고
뛰여다녔으나 아직은 힘에 부치는 문제가 너무도
많았다.

파괴된 제철소와 제강소, 공장과 항구, 황폐
화된 농촌, 죽물도 먹지 못해 굶어쓰러지는 사람
들... 혼란된 틈을 타서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나
타나 저마다 《혁명가》, 《애국가》라고 하면
서 인민들의 환심을 끌어보려고 목청을 돋우고있
었다.

해방된 조선에 당장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
를 건설해야 한다고 목이 쉬도록 웨쳐대는 《맑스
주의자》들, 리왕조의 뒤를 이어 정통적인 왕조국
가를 세워야 한다는 민족주의자들... 어느 누구의
목청도 약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길은 더더욱 군
중공작형편이 풍부하신 김정숙동지를 기다리고

있는것이다. 욕심같아서는 그이를 여기 청진에 계
속 모시고 그이의 조언을 받으며 일했으면 좋으련
만...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할수는 없었다. 그렇게
되여도 안된다.

지금 평양에서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서
김정숙동지를 기다리고계실것이다. 그곳에는
김정숙동지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중요한 일감들이
산처럼 쌓여있을것이다.

그래도... 여기에 계시는 하루이틀만이라도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을수 있을것이다. 아니, 그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여기에 오신 기회
에 꼭 그리운 고향집에 다녀오시게 해야 한다. ...
다섯살때 회령땅을 떠나셨다니 얼마나 고향이 그
리우시겠는가. 어쨌든 한시라도 빨리 그이를 뵈
고싶었다.

안길이 초조한 마음을 누르며 창문가로 다가가
는데 전화종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렸다. 그는 급히
돌아서서 송수화기를 들었다.

《안길동지! 김통화가 보고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 방금전에 떠나셨습니다.》

안길의 얼굴에 미소가 확 떠올랐다.

《그렇소? 그래 기차에 안전하게 모셨겠지?》

《아닙니다. 자동차로 떠나셨습니다, 화물자
동차로 말입니다.》

《뭐라구?》

안길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큰소리가 터져나
왔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혹시 잘못 듣지는 않았는지 해서 안길은 송수화기
를 쳐다보기까지 했다. ...

《룡화동무! 김정숙동지를 편히 모시라고 동
무를 우정 보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거요?》

안길의 엄한 물음에 김통화는 자책에 잠긴듯 아
무 대꾸도 없다가 이윽해서야 약간 갈린듯 한 목

소리로 대답하였다.

《안길동지! 용서하십시오.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동차를 타고 네댓시간이면 갈수 있는데 왜 기차를 타겠다고 하루종일 시간낭비를 하겠는가 하고 하시며 급히 떠나셨습니다. 장군님께 보고드려야 할 일이 있다면서…》

사실… 그이께서 읍거리로 나가신것은 소풍을 위한것이 아니었습니다. …》

김룡화는 김철호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면서 자초지종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

…김정숙동지께서 김옥순과 김철호를 데리고 읍거리로 나가시려 하자 김룡화가 막아섰다.

《김정숙동지! 왜놈들에게서 빼앗은 승용차가 있는데 타고 나가십시오. 길은 좀 낯았어도 내장은 든든합니다. 백두산의 녀장군행차인데 위엄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김룡화를 보시며 방그레 웃으시었다.

《수준이 있군요, 승용차까지 가지고있고… 성의는 고마운데 우린 걸어가겠어요. 승용차를 타고 다녀서야 어떻게 인민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어요?》

읍거리는 그리 크지 않았다. 넓지 않은 자동차도로가 직선으로 나있었고 양옆으로는 함석지붕과 기와를 인 주택들이 크고작은 공공건물들을 끼고 울창종말 늘어섰다. 그리고 그앞에는 크고작은 각종 구멍가게들이 웅기종기 들어앉아 싸구려를 맥 빠진 소리로 부르고있었다.

장거리는 국경을 가까이 끼고있어서인지 꽤 번창해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광목과 신발, 잡화, 어물전들을 유심히 보시며 지나가시다가 싸전으로 향하시었다.

《쌀 사시랴요. 흰쌀이요. 한술 뜨면 밥사발이 통채로 따라올라오는 연백별의 흰쌀이요. 삼천리에 소문이 자자한 이 쌀로 밥을 지어 한그릇씩 나눠먹고 해방노래를 부르면 건국의 새힘이 불끈 불끈 솟아올라오. 자!— 흰쌀, 찹쌀 다 있으니 없어진 다음 후회말고 어서빨리 사가시랴요…》

쌀장사녀인은 빨래줄같이 긴 사설을 달변으로 늘어놓고있었다. 귀맛이 구수한 싸구려소리에 끌려 다가갔던 사람들은 웬일인지 인차 돌아서곤 하였다. 그때 웬 청년이 녀인에게 다가가 몇마디 주고받더니 갑자기 어성을 높였다.

《아주마이! 쌀가격을 그렇게 높이면 우리 노동자들은 입에 거미줄을 치고있으라는거요?》

헐어빠진 꼴덴작업복자락이 너풀거리고 목에 두른 때묻은 광목수건이 미끄러져내렸다. 감때사납게 생긴 두눈이 번뜩거렸다.

《아니, 세상에— 어째 댜데 와서 이 야단이요? 그래 내사 제일 문문해보이오? 비싸문 사지 말거지 어째 이리 귀찮게 구오?》

쌀장사녀인의 반격이다.

《장사를 해도 좀 봐가면서 하오. 해방이 됐는데 인심을 써서 값을 좀 낮추면 안되오? 이제 나라에서 배급을 줄 때까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주란 말이요.》

《뭘, 나라에서? 도공산당에서? 흥! 누가 나한테 쌀을 그저 주는데가 있소? 시제는 쌀이 금보다 더 비싸다는걸 통 모르는구마. 서울에서 뺨맞고 어디에 가서 눈을 흘긴다더니, 내 원…》

쌀장사녀인의 드센 입심에 못 견디겠는지 청년이 《에익!》하며 돌아섰다. 그러자 녀인이 청년을 불러세웠다.

《내 나그네 불쌍해서 눅게 준다. 해방인심 풀라는 말에 꼼짝 못하겠구마.》

그리고는 자루에서 쌀 한되박을 푹 퍼들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입가에 따뜻한 미소를 피여올리시었다. 신경이 곤두서는 말싸움을 하고서도 시원스레 쌀되박을 드는 녀인을 보니 북판녀인들의 드세차면서도 뜨거운 인정이 후덥게 안겨왔다.

《수고하십니다. 우린 혁명군대원들이예요.》

김정숙동지께서 다가가시며 스스로없이 인사를 건네시자 녀인의 길둥그런 얼굴에 반가와하면서 어색해하는 빛이 어렸다.

《어이구, 수고는 무슨… 군대아재들이 왜놈치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겠소.》

군복입은 김정숙동지의 일행을 바라보는 녀인의 얼굴에는 존경이 가득 어렸다.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눈치를 살피며 행동을 저어하는것을 보니 어려워하는것 같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린시절에 들던 귀에 익은 북판사투리를 조국땅에서 들으니 포근한 친근감이 뿜어올라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친척이나 고향사람들을 만난것 같아 반가운 생각이 드시었다.

《쌀 한되에 얼마입니까?》

그이의 물으심에 녀인은 쌀되박부터 찾아들었다.

《요새 시가로 보면 좀 비싸지비. 그렇지만 산에서 고생하다 온 군대아재들한테야 그저 드려야지비.》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인이 부르는 쌀값에 놀라시며 김철호를 돌아보시었다. 해방전보다 두배나 더 비쌌던것이다.

《너무 비싸군요.》

김철호의 놀란 말에 녀인은 눈길을 아래로 떨구

었다.

《시제는 이런 쌀도 없어 굶어죽는 사람까지 있
다오.》

김정숙동지께서는 변명비슷한 녀인의 말에 너그
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무릎을 꿇고 마주앉으
시었다.

《쌀이 참 좋군요.》

그이께서는 쌀 한줌을 집어드시었다. 흰눈갈
이 하얀 쌀알에 기름기가 자르르 도는것이 보기에
도 찰기가 느껴졌다.

《쌀이야 좋지비, 저 앞지대 쌀인데 이젠 이런
쌀도 구경하기 힘들다오. 해방전에는 배나 기차로
실어오곤 했는데 왜놈들이 철길을 마사놔서 길이
막혔다오. 배도 다 마사놓고 달아났지비. 죽일놈
의 왜놈들… 철길이 빨리 열려야겠는데…》

김정숙동지께서는 줌안의 쌀을 꼭 쥐시었다. 쌀!
생명파도 같은 쌀이다. 불쑥 푸연동(부암동)시절에
수수 몇이삭 잘라온것때문에 지주집에 끌려가 머슴
살이 하면서 연자방아를 돌리시던 생각이 떠오르시
었다. 그다음에는 처창쯔(처창즈)유격구의 기아
와 고난의 행군시기의 풀뿌리, 나무뿌리… 잊을
수 없는 화폭들이 언뜻언뜻 눈앞을 지나간다. 쌀과
관련되어서는 너무도 피눈물나는 사연을 안고계
시는 김정숙동지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손바닥에 마
쳐오는 부드러운 쌀촉감을 느끼시며 물으시었다.

《그런데 이 쌀은 어디서 났는가요?》

《저… 이젠…》

녀인은 무엇때문인지 여기저기 힐끗힐끗 결눈질
하며 떠듬거렸다. 말은 하고싶은데 누구의 눈치를
살피는것이 분명하였다.

《왜 그러세요? 왜놈들이 쫓겨가고 해방이 됐는
데 누구 눈치를 볼게 있어요? 일없어요, 어서 말
해보세요.》

김정숙동지의 사려깊은 말씀에 힘을 얻은듯 녀
인이 입을 열었다.

《사실… 이젠 왜놈들이 공출로 모아놓은 쌀이
라오. 항에 큰 쌀창고가 있는데 왜놈들이 달아나
면서 못 가져간 쌀이지비. 혁명군이 막 쳐들어오
자 왜놈들은 혼비백산해서 그냥 달아났지비.》

그런데… 자위대가 지금 쌀창고를 지키는데 도
의 어른들이 쥐 소금녹이듯 술금술금 해치운다오.
그걸 쌀거간꾼들이 넘겨주는데 넘기는 값이 비싸
니 파는 가격도 이렇게 비쌀수밖에… 어데 가서
절대 말하지 마오.》

김정숙동지의 줌안에서 쌀이 주르르 쏟아져내렸
다. 적산쌀이라면 분명히 해방된 나라의 재산, 인
민의 재산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인민의 재산에
손을 대는가! 인민의 재산을 도적질해다가 인민들

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보다니? 더우기
그 일에 도의 일꾼들이 관여하고있다는것은 심각
한 문제였다.

예로부터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라고 하였다.
먹는 문제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사활적인 문
제이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켰다고 말할수 없으며 장군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관철할수 없다. …

그래서 조국으로 오시자마자 장마당에부터 나와
보신것이다. 지금은 장마당이 사람들의 경제생
활의 축소판이기도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장마
당을 쪽 둘러보시었다. 때자국이 흐르는 얼굴로
눈빛만 반짝반짝해가지고 얻어먹을것이 있을가 해
서 쏘다니는 소년들, 먹지 못해 얼굴에 노란꽃이
핀 녀인들, 뼈만 남은 앙상한 늙은이들… 눈물겨
운 정상에 가슴이 아프시었다.

조국의 한끝인 여기 북판은 땅이 척박해서 농
사가 잘되지 않는다. 식량의 대부분을 남쪽지
대에서 기차나 배로 실어다 먹는데 길이 막혔
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는가! 그런데 도내
인민들의 생활을 돌봐야 할 일꾼들은 풀수한 적
산품을 횡령하고있다. 하루빨리 이 문제부터 바
로잡아야 한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장사를 해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금전에
로동자청년에게 쌀을 늑게 준 녀인을 칭찬해주시
었다. 그렇게 하는것이 바로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그이의 말씀에
녀인은 감심한 표정으로 그이를 우려했다.

녀인은 정어리공장 로동자로 일하던 남편이 왜
놈들에게 매맞아죽자 아이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이 길에 나섰는데 이제부터는 정어리공장에 나가
일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녀인의 이름을 박장금
이라고 하였다.

잠시후 김정숙동지께서는 쌀을 가져가라는 장금
의 말에 사의를 표하고나서 자리를 뜨시었다. …

…송수화기를 내려놓는 안길의 가슴은 후더워울
랐다.

안길은 청진에 온 후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료해
하고 긴급대책으로 곳곳에 널려있는 적산품에서
쌀을 얼마간 풀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는 하였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말그대로 긴급대책이었지 결
정적인 대책으로는 될수 없었다.

그래서 속을 태우고있었는데 김정숙동지께서는
벌써 그 모든걸 파악하신것 같았다. 안길은 어떤
지 무겁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데 한감이 들

었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날 새벽에야 자동차로 청진 시내에 들어서시었다. 날이 푸름푸름 밝아오고 있었다. 시교외에 나가 기다리던 안길은 그이와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나서 해방동의 2층 건물에 모시었다. 아래층이 온돌방이었고 2층은 사무실로 리용하게 된 건물이었다.

밤새 자동차를 타고 먼길을 오시어서인지 혼련기지에서 헤어질 때보다 별로 더 축가신것 같은 그이의 모습에 안길은 자꾸만 마음이 씩여졌다.

짐을 숙소에 풀어놓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월사이도 없이 2층의 사무실에 올라가 장군님과의 전화통화가 이어지기를 기다리시었다. 장군님께서 지금 평양철도기관구에 나가계시니 조금 기다리라는 연락이 왔던것이다. 창문쪽의자에 앉은 안길의 얼굴에는 약간 긴장된 흥분이 떠올랐다.

책상우에 놓여있는 까만 전화기를 바라보시는 김정숙동지의 심정은 무거우시었다. 선봉(당시 웅기)에서 느낀바이지만 여기 청진실태도 말이 아니었다.

해방이 된지 석달이 지났는데도 공장들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있었고 인민들은 먹을것이 없어 굶주리고있었다.

무엇보다 급한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식량문제해결이다. 안길의 말에 의하면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려는 노동자들의 열의는 높은데 먹지 못해 일하다 쓰러지는 현상이 많다고 한다.

같이 파견되어온 동지들이 주변농촌에 나가 예비량곡을 얻어오기도 하면서 뛰고있는데 도당에 틀고앉은 간부들은 음풍영월을 하는가 하면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서울공산당을 찬양하는 연설까지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몇번 만나 충고를 주었지만 앞에서는 심중히 듣는척 하고 돌아앉아서서만 딴 꿈꾸이를 한다면서 안길은 주먹을 떨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안길의 심정이 이해되시었다.

왜놈들의 포위속에서도 바위처럼 끄떡없던 안길이다. 해방이 갓 되어 일제의 패잔병들이 산속에 들어박혀 발악하고있을 때 악명높은 라남제 19사단본부자리에 빠졌이 타고앉은 담이 큰 그였다.

하지만 적아가 분명치 않은 오늘엔 소위 혁명가라고 자처하는 《위인》들을 상대하여 꼴을 앓으며 목이 다 쉬었다.

왜놈들이 마사놓고 달아난 제철소와 제강소, 항구와 공장들에는 파철과 먼지만 남았다.

그래서 안길은 오늘 새벽에 김정숙동지를 만나 자마자 건국사업이 이렇게 힘들줄 상상도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했던것이다. 정말 장군님곁에서 가

르치심을 받던 때가 그립다고...

《장군님께서 이 청진땅에 오실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것인데...》

안길이 안타까이 한 말이다. 그렇다! 장군님께서 오시면 문제는 다 풀릴것이다.

하지만... 지금 장군님께서 얼마나 분망하시겠는가. 아마도 당분간은 평양과 멀리 떨어진 이 북변땅에까지 오시지 못할것이다. ...

불시에 장군님의 해빛같은 미소가 떠오르고 우렁우렁하신 목소리가 귀전에 들리는듯싶으시었다. 장군님께서 주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느라 뒤늦게 조국으로 나오신 김정숙동지께서 일일천추로 기다려오신 오늘이다. 장군님께선 건강하십니까. 매일 밤을 패면서 일을 하시겠는데 입맛을 잃지 않으셨는지... 피곤이 너무 겹쌓이면 목이 갈리군 하셨는데... 그리고 신변호위는 어떻게 하는지...

김정숙동지께서는 걱정되는것이 너무 많아 마음을 진정하기 어려우시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갑자기 책상우의 전화기가 울면서 방안의 고요를 깨뜨렸다. 안길이 열른 송수화기를 들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예! 장군님! 안길이 전화받습니다. 예, 한시간가량 되었습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안길은 김정숙동지에게 송수화기를 내드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몸가짐을 정중히 하고나서 울렁이는 심정을 누르며 송수화기를 넘겨받으시었다.

《장군님! 김정숙이 전화받습니다. 그동안 옥체 건강하셨습니까?》

《아! 정숙동무요? 배길에 고생 많았겠소. 앓는 동무들은 없소?》

장군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순간 김정숙동지의 눈가에 맑은것이 핑 어리고 걱정예 목이 메여올랐다.

얼마나 듣고싶었던 장군님의 음성인가! 얼마나 뵈고싶은 장군님의 모습인가!...

김정숙동지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구슬처럼 흘러내렸다. 대원들과 헤어지면 그 순간부터 마음을 못 놓으시는 장군님이시었다. 조국으로 돌아오던 과정이며 로약자들의 상태에 대해 일일이 알아보신 장군님께서서는 화제를 돌리시었다.

《안길동무에게서 들으니 조국에 도착하자마자 장마당형편부터 알아보았다는데 잘했소.

안길동무를 통해 그곳 실태를 료해는 하고있지만... 인민들의 생활이 몹시 어려울게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이곳 가게방들에서의 쌀값 문제와 어려운 인민생활, 파괴된 제철소와 제강소, 공장과 항구들의 실태와 복구형편에 대해 말씀드렸다.

《음… 할일이 참 많소. … 함북도는 중요한 공업지대인데… 청진제철소와 성진제강소도 왜놈들이 다 마사놓고 달아났으니… 안길동무랑 몹시 아릅차할거요. …》

장군님의 무거운 음성을 들으시는 김정숙동지의 가슴은 조여드는것만 같으시었다. 장군님께 상서롭지 못한 정황을 보고드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듯 한 아픔을 느끼곤 하시는 그이이시었다.

한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여기 남아 당분간 안길의 사업을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시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이내 도리머리를 하시었다. 얼마나 뵈고싶은 장군님이신가! 꿈결에도 그리며 장군님결으로 마음달리곤 하시던 김정숙동지이시었다.

하지만… 장군님의 걱정실린 말씀을 다시금 새겨보느라니 생각이 깊어지시었다.

장군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였으면…

끝내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음을 다잡으시었다. 장군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들을 두고 그냥 여기를 떠나갈수 없다고 생각하시었다.

《장군님! 너무 마음쓰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한달만이라도 여기 남아 안길동지의 사업을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정숙동무가?》

장군님의 뜻밖이신듯 한 물음이 울려왔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수화기에서 장군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고맙소! 정숙동무가 그래준다면 내 한시름 놓겠소. 나는 여기 일이 바빠 당분간은 그곳에 가볼것 같지 못하오. 정숙동무가 수고해주어야겠소.》

《장군님, 제 힘껏 안길동지를 도와 일하겠습니다.》

《음, 조국땅에 들어서자마자 어려운 일감을 맡겨 미안하오. 김책동무랑 안길동무랑 먼저 온 동무들도 추석날 쉬지도 못하고 파견지로 떠나갔지. 우리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것을 잊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김정숙동지의 생각은 깊어지시었다. 그렇다! 조선혁명은 완성되지 못했다. 더우기 조국의 절반땅에는 미제가 들어와있지 않는가!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해방이 되었다고 조선혁명이 끝난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의 탕개를 풀어놓는 현상도 나타나고있다. 해야 할 일이 일

마나 많은가!…

김일성장군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정숙동무! 건강도 좋지 못한데 몸을 돌보면서 일해야겠소.》

김정숙동지께서는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울리고 목이 메여올라 무엇이랴 말씀드리기 어려우시었다. 어렵고 위험한 일을 맡기실 때마다 말씀보다 사려깊은 눈빛으로 김정숙동지의 건강을 걱정 해주시던 장군님이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을 곁에서 보좌해드리지 못하는것이 못내 죄스러우시었다. 안길의 말을 들으니 장군님께서 합숙도 변변한것이 없어 대원들과 함께 공동합숙에서 따바리잠을 주무시면서 생활하셨다고 한다.

장군님의 건강을 보강해드려야 할 자신의 책임감을 다시금 무겁게 느끼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간절히 말씀드리시었다.

《장군님, 저의 걱정은 말아주십시오. 장군님의 음성이 갈리신걸 보니 또 밤을 새우신것 같은데… 부디 식사를 제때에 하시고 너무 밤늦게까지 일하지 말아주십시오.》

《알겠소, 다른 동무들에게도 나의 인사를 전해 주시오.》

전화는 끝났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직도 장군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아 송수화기를 꼭 부여잡고 그대로 서계시었다. 장군님의 안색이 몹시 축가신것만 같아 마음이 피로우시었다.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신 장군님이시었다! 해방된 오늘 곁에서 따끈한 진지를 지어올리고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드리는데가 자신의 의무인줄 알면서도 전사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것이 가슴을 알싸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수록 전국초행길의 앞장에 서서 만남을 헤쳐가시는 장군님의 헌신에 눈시울이 자꾸만 젖어드시었다.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긴장해서 지켜보던 안길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헛기침을 낚았다. 자기가 제구실을 못하여 장군님결으로 가셔야 할 김정숙동지께서 여기 남게 되신것이 기가 막혔다.

《정숙동무! 여기 일은 걱정말고 어서 떠나도록 하오. 장군님결에는 다른 누구보다도 정숙동무가 있어야 한단 말이요.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한 일에서는 그 누구도 정숙동무를 대신할수 없지 않소?》

김정숙동지께서는 안길의 진정에 가슴이 뜨거워

지시였다.

《그 문제는 장군님께서 이미 결론하신 문제이니 그만하고 사업토의를 합시다.》

김정숙동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시자 안길은 끼치게 한숨을 내쉬더니 어쩔수 없다는듯 군모를 눌러썼다.

《정말 장군님앞에 죄스럽습니다. 정숙동무한테 두 면목이 없구…》

《그런 말씀은 마세요. 우리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이겨내자요.》

《알겠습니다. 사실 정숙동무만 옆에 있으면야…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허허허.》

안길은 힘이 생기는듯 주먹을 들어 흔들어보이며 소리내어 웃었다.

《자, 그럼… 전화하실 곳이 더 없으면 이제 아래층으로 좀 내려갑시다. 지금 저아래엔 〈새길〉신문사 기자들이 와서 기다리고있을겁니다.》

《예?》

김정숙동지께서는 갑자기 기자들소리가 나오자 의아해서 안길을 쳐다보시었다.

《아니? 기자들은 왜 데려왔습니까?》

안길은 김정숙동지의 그 눈길과 마주칠가 저어하며 변명하듯 성급히 말씀드렸다. 자신을 내세우는것을 제일 질색하시는 김정숙동지이심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안길이었다.

《허, 어찌겠습니까. 내 명색이 〈새길〉신문사 책임주필인데 기자들의 청을 거절할수가 있습니까. 이 책임주필의 체면도 봐줘야지요, 허허허.》

그때 마침 문을 열고 들어서던 김철호와 김옥순이도 소리내어 따라웃었다. 김옥순이 안길의 곁에 다가오며 말하였다.

《신문사 책임주필이라… 참 멋있어요. 빨찌산용장이 해방덕에 인테리가 되었구만요.》

김철호가 제격 말을 받았다.

《책임주필선생! 우리 빨찌산녀대원들의 사진도 신문에 내주겠어요?》

《아, 그거야 힘들것 없지. 내 그러지 않아도 철호동무의 사진을 신문에 내주고 최현동무에게서 값을 톡톡히 받아내자고 그러합니다. 며칠전에 그범같은 친구가 강계에서 전화를 걸어왔는데 제 색시가 무사히 돌아왔는가 묻습데. 도착하면 특별히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니까.》

안길의 농청에 모두가 허리를 불안고 웃었다.

유격대시절의 안길은 최현과 남달리 가까운 사이였다. 결보기에는 두사람 다 무뚝뚝해보여도 능청스러운 룡담과 기지있는 해학 그리고 왜놈들이 벌벌 떠는 감때사나운 배짱의 공통성때문이었어서인지 무척 가까웠다.

《흥, 거짓말! 바위돌같은 그 령감이 정말 그랬다면 업구다니겠어요.》

또다시 즐거운 웃음이 터져올랐다. 김철호의 지청구에 남편에 대한 류다른 애정이 살뜰히 스며배어있음을 잘 알고있는 투사들이었다. 최현은 왜놈들이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어놓고 무서워 벌벌 떠는 항일의 맹장이였지만 안해에게는 퍼그나 곰살궂은 남편이라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계시는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철호의 상기된 얼굴을 정찬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자, 어서 내려갑시다, 어서… 그들이 녀장군을 그렇게도 뵈고싶어하는데…》

안길은 두손을 내흔들며 설레발을 쳤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이가 없어 다시 안길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었다. 자꾸 재촉하는 그를 보니 이제 당장 내려가 난생처음 기자들앞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한순간 당황해지는데를 어찌할수 없으시었다.

어떻게 할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난처하시어 자기가 다 조직사업을 해놓고도 의뭉스럽게 아닌보살을 하는 안길을 민망스럽게 쳐다보시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가.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심호흡을 한번 하시었다.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시었다. 기자들에게 우리 장군님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사를 이야기해주고 해방된 조국땅에 돌아오지 못한 동지들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신 것이었다.

아래층에 내려와 기자들과 만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었다. 기자들은 자리에 앉으며 그이의 모습을 흘린듯이 바라보았다. 상냥하신 말씀과 매혹적인 부드러운 미소, 귀밀으로 단정히 쓸어넘긴 중발머리와 가쁜하게 입으신 군복, 사려깊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엄해보이는 눈매…

김정숙동지의 레절바른 언행과 따뜻한 미소는 기자들의 마음을 대번에 틀어잡았다.

《김녀사의 항일무장투쟁사를 온 나라에 알리려고 찾아왔습니다. 10여년간 산에서 풍찬로숙하시며 왜놈들과 싸우셨다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나이들어 보이는 안경을 낀 기자의 말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고개를 약간 숙여보이며 겸허하게 말씀하시었다.

《고맙습니다. 사실 고생으로 말하면… 일제놈들의 발굽밑에서 온 나라 인민들이 다 피눈물을 흘리며 죽지 못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일제놈들의 가혹한 탄압과 민족적멸시속

에 별의별 고생을 다 해왔을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는 나라가 해방되어 그 모든것이 옛말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 쓰겠다고 하시는데 전 그 보다는 바로 이렇게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주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하여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 장백산의 줄기줄기마다에 압록강 굽이굽이마다에 피어린 자욱을 남기신 우리 장군님의 항일혁명 투쟁사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방안에는 순간에 정숙이 깃들었다.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항일의 피어린 격전장들을 회억하시는 김정숙동지의 눈가에 숨엄한 감정이 어렸다.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처절한 슬픔이, 때로는 신념과 랑만이 엮바뀌는 그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자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모두가 손수건을 꺼내어 눈굽을 닦았다.

《정말이지 우리 장군님의 투쟁사는 백날천날을 두고두고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할거예요. 우리 장군님에 대해 써주세요. 그리고 장군님을 받들어 싸우다가 저 백두광야에 쓰러진 우리 동지들에 대해 써주세요. 난 지금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갑자기 목이 메여와 잠시 말씀을 끊고 창밖을 내다보시였다. 창가에 우렷이 어려오는 잊지 못할 전우들, 오중흡, 최희숙, 안순화, 리계순...

동지들, 우리는 지금 해방된 조국땅에 와있어요.

동지들의 뒤편까지 합쳐 우리가 백두산에서 그려보던 그런 민주주의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힘껏 일하겠어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옆에서 누구인가 조심히 일어섰다.
《저... 이번엔 김녀사의 투쟁담을 좀 들려주시시오.》

김정숙동지께서는 고개를 돌리시였다. 얼굴이 약간 기름하고 눈이 어글어글한 젊은 기자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겸양의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저에게는 무슨 투쟁담이라고 할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사령부 작식대원으로 일한것밖에는...

제가 작식을 해보니 사람에게 있어서 식생활문제 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추석명절이나 설명절 같은 날은 어떻게 해서나 즐겁게 쇠도록 애쓰시였고 대원들의 식생활문제에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곤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몹시 어렵습니다.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받들어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자면 하루빨리 식량문제를 풀어 령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올려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민들이 새 조국건설에 더 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장군님과 동지들에 대하여 그리고 장군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인품에 감동되어 기자들은 모두가 눈들을 습벅거렸다. 그때 젊은 기자가 다시 물었다.

《김녀사의 고향이 여기 함북이라고 하던데요?》

《예, 여기서 얼마 멀지 않는 회령입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고향에는 누가 계십니까?》

《부모님들은 무고하신지요?》

《몇살에 고향을 떠나셨습니까?》

한꺼번에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이께서는 잠시 말쑤미 없이 창밖을 내다보시였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찌르르해오시였다.

고향을 떠난지 퍼그나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 는 어릴 때의 추억만 토막토막 생각나시였다. 해마다 봄이면 온 마을에 진동하는 백살구꽃향기, 벼짚이 영을 인 초가집...

어느해인가 열에 들떠 앓을 때 어머니가 짜리풀로 달여준 물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생각이 나셨다. 이역땅에 묻힌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형님과 동생, 헤어져 소식 한장 모르는 조카에는?...

안길은 김정숙동지를 바라보았다. 누구보다도 그이의 심정을 잘 알고있는 그였다. 청진에 도착하자마자 회령에 사람들을 파견하여 친척들을 찾기 위한 수소문도 해보았으나 아직은 이렇다할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김정숙동지께서 청진에 오신 기회에 회령을 꼭 찾아보실것을 바라고있었다.

그이께서 직접 고향에 가시면 혈육이나 친척을 찾을수도 있기때문이었다.

안길은 기자들에게 김정숙동지의 아픈 심정을 대신하여 대답하였다.

《김정숙동지는 이국땅에서 부모님들과 형제들을 다 잃고 혼자 돌아오셨습니다.》

《에-에?》

기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삼천리에 백두의 녀장군으로 소문이 자자한 녀사께서 그리도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계실줄은 생각도 못했던것이다.

《녀사께서는 언제쯤 평양으로 가시렵니까?》

자기들의 질문이 녀사의 아픈 마음속 상처를 다 쳤다는것을 느꼈는지 누구인가 조심스레 물었다.

《평양에서 기다리는분들이 많겠는데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또다시 가슴이 찢릿하게 젖어 드시었다. 방금전에도 장군님의 음성을 전화로 들으셨지만 꿈결에도 달려가고싶으신 평양이였다.

《사향가》를 배우시던 잊지 못할 만강의 그 봄날부터 어느 한순간도 잊으신적 없는 만경대였다.

아직 한번도 뵈운적 없는 시조부모님들이 못내 그리우시었다. 왜놈들때문에 아드님들과 며느리, 둘째손자분까지 잃고 가슴속에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계시는분들인가! 그 마음속 상처를 자신의 효도로 가서드리고싶으시었다. 한시바삐 달려가 나 이 많으신 조부모님들에게 큰절을 드리고 손자며느리의 정성을 다해 따끈한 진지를 지어올리고싶으시었다.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평양에서는 장군님께서 기다리고계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고싶은 마음은 불같지만 당분간은 가지 못할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장군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 싸운것은 조국의 절반땅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에는 미체가 들어와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파괴된 공장과 농촌, 탄광과 광산, 철도를 빨리 복구하며 인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혁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

난 여러분들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을 새 민주조선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 좋은 글들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은 그이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농칠세라 부지런히 펜을 놀리었다.

기자회견이 끝나 기자들을 배래우고 돌아온 안길이가 김정숙동지에게 말씀드렸다.

《기자들이 좀 서운해하는것 같군요. ... 아, 정숙동무! 이런 기회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면 안되니까? 기준오빠와 기송동생의 최후에 대해서 그리고 왜놈들에게 희생된 부모님들에 대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더 말씀을 못하시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시었다.

어떻게 잊을수 있겠는가! 걸음걸음 피가 고이고 슬픔이 넘쳐나던 그 나날들을... 그러나... 그것은 나 개인에 속한 문제이다. 조선사람치고 그런 불행을 가지고있지 않는 사람이 어데 있겠는가!... 더우기 우리 장군님께서 이역땅에서 부모님과 삼촌, 동생을 잃고 홀로 돌아오시었다. 안길이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나셨다. 20년만에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셨을 때 리보익할머님이 맨발로 달려나

와 와락 안기며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 두고 혼자 왔느냐?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고 울음터프리시었다고 한다. 그때 장군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셨으랴!...

김정숙동지께서는 안길의 성난듯 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다정히, 그러나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안길동지의 심정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신문에는 마땅히 위대한 장군님의 이야기를 실어야 합니다. 민족사에 쌓으신 장군님의 하늘같은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인민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 우리 장군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분이예요. 난 그저 어제 오 오늘도 장군님의 전사일뿐이예요.》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담담히 울렸으나 투사들은 큰 충격에 잠겨 말없이 그이를 우러렸다. ...

며칠후 함경북도 《새길》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려로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기로 왕방한 기자에게 김정숙녀사께서는 여러 동무들을 대표하여 손을 잡으며 아래와 같이 말씀하시었다. ...》

비록 김정숙동지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였지만 그이의 과거사가 해방된 인민들에게 처음으로 단편적으로나마 소개되게 된것은 안길의 노력이였다. ...

다음날부터 김정숙동지께서는 몹시 바쁜 나날을 보내시었다. 안길과 최춘국을 비롯한 투사들이 회령고향집소식을 탐문하면서 한번 다녀오셨으면 하는 의향을 내비쳤으나 번마다 사양하시고 매일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었다.

어제는 《조선회관》에서 《해방망향악극단》의 공연을 보시고 혁명가요를 힘차게 불러 사람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었다. 며칠전에는 청진제철소와 철도복구건설장에 나가 로동자들을 고무해주시었고 주변농촌에 나가 도리깨를 드시고 농민들의 콩마당질도 도와주시었다.

어느날 아침 김정숙동지께서 김철호와 김옥순을 데리고 청진시녀맹으로 가시는데 네거리의 한곳에서 웬 녀인의 거센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구, 기차라. 이복세, 값이 어제보다 또 비싸문 난 어떻게 하라는기요? 아무리 쌀이 귀한 때라 해도 이건 너무하지비.》

바라보니 화물자동차 한대가 서있는데 그 아래에 흰 머리수건을 쓴 녀인과 남자들 서넛이 서있었다.

《아주마이, 싫으면 그만두란 말이요. 이 쌀도 이제 마지막이요.

제철소와 철도로동자들에게 다 풀어줬단 말이요.》

캡을 눌러쓴 사나이가 녀인에게 으르는 소리였다.

그옆에는 젊은 녀석 두명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김옥순이 김정숙동지를 돌아보았다.

《저 녀인이 우리가 선봉에서 만났던 쌀장사녀 인이군요.》

《맞아요. 이름을 박장금이라고 했던지...정어리 공장 노동자로 일하셨다더니...》

김철호가 대답했다. 그러는 동안 흥정이 이루어졌는지 녀인이 세여 넘겨주는 돈을 받은 사나이가 자동차에서 쌀 대어섯마대를 부려던지고 사라져버렸다.

깡깡거리며 쌀마대를 한곳에 모아놓고 허리를 펴던 박장금은 김정숙동지의 일행을 보고 놀랐다.

그의 등실한 얼굴로 비지땀이 흘러내리고있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죄스러워하기도 하고 당황해하기도 하면서 허둥거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녀인에게 다가가시여 마대를 맞드시였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청진에 올라왔습니까? 아침식사는 했어요?》

밤새 오느라 아침마저 건넌 녀인은 그이의 살뜰한 물음에 몹시 감동되어 머리수건을 벗어 땀을 씻으며 말씀드렸다.

《속담에 <대장쟁이네 집에 식칼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쌀장사군이 끼니를 번지는 경우도 있습내.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은 쌀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계속 뛰어오르는거라우. 실은 내 군대아재들과 헤어진 다음날로 정어리공장에 들어갔지비.

그런데 노동자들이 먹지 못해 일을 못 나오지 않소? 그래 장만해두었던 돈을 다 털어가지고 좁죽게 살가 해서 도회지에 올라오니 값이 또 올랐구마. 일 못 나오는 노동자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재도 삼백키로는 돼야겠는데 겨우 이백키로만 샀구마. 도적놈들 같으니라구...》

김정숙동지께서는 박장금의 두손을 꼭 잡으시였다. 그의 손은 험한 일에 부대껴서 트고 험했다.

온갖 고생을 다 퍼낸 크고 거칠어진 장금의 손을 어루만지시는 김정숙동지의 가슴속에서는 크나큰 애정이 북받쳐오르시였다.

《아주머니! 정말 장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믿고 도와주는것이 바로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관철하는것이예요.》

그러시면서 공장에 녀맹을 내오는 사업에 적극 나서고 조직의 힘을 발동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풀

어나가야 한다고 따듯이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자 녀인의 얼굴에 희색이 어렸다.

《그것 참 명안이구만. 내 자기 낫을 내는것 같아 말을 안했지비. 이제부턴 마음맞는 내인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일하겠다이.》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옥순에게 장금을 속소에 데리고가 식사를 시키라고 이르시고 헤어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박장금을 보고 우리 인민들이 지닌 깨끗한 의리와 애국심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느끼시였다. 지금 시내에서는 별의별 소문이다 나돌고있었다. 《쌀 안 주는 공산당의 정치는 필요없다》느니, 《서울공산당에서 청진시민들에게 쌀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느니 하는 류언비어들이 떠도는가 하면 대낮에 《조선회관》에서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여 서울공산당이 당중앙이라는 강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으며 여전히 굶으면서도 공장복구에 떨쳐나서고있었다. 어제 청진시에서 《거지골》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가보셨던 기막힌 참상이 불현듯 떠올라 가슴이 아프시였다.

자그마한 동네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게딱지같은 판자집들... 사람이 사니 집이라 하지 원시인들의 풀막같은 집 아닌 집이였다. 집안에는 서발막대 휘둘러도 거칠것 없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술에는 거미줄이 쓸 지경이였다. 먹지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늙은이들, 뼈만 아롱아롱해보이는 아이들...

김정숙동지께서는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그길로 돌아서서 안길과 토론하여 거지골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마음놓이지 않으시였다. 무슨 방도가 없을까. ...

그때 시교외로 나갔던 안길이 다가왔다.

《어제 밤에도 쌀실은 달구지가 빠져나가는걸 단속했습니다. 범벅에 쉬파리 달라붙듯 거간군들이 적산쌀에 눈독을 들이고있습니다. 그래 경비를 강화하라고 한참 신척하고 오는 길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생강깊은 눈길로 안길을 바라보시였다.

《그런데 쌀을 한그람도 못 빠지게 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시민들의 식량을 다 해결할것 같지 못합니다. 무슨 결정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 다른건 몰라도 쌀만은 방도가 없군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동의를 구하시려는데 안길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아무래도 장군님께 보고드리고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예? 장군님께요?》

안길은 놀란 눈길로 그이를 우려했다.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 해도 장군님께 걱정을 드릴 일이면 될수록 피하고 자신께서 말아 해결하신 다음 보고드리시던 그이이시라는것을 잘 알고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미 결심하신듯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쌀문제는 그야말로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인민생활을 돌보는것은 단순히 가난구제가 아니라 새 민주조선건설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장군님이신데 인민생활문제를 이대로 수수방관할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장군님께서만이 푸실수 있기때문에 보고드리고 대책을 세웁시다.》

안길은 그이의 용단에 아무말없이 서있기만 하였다. 그이께서는 시너땀으로 가시던 걸음을 되돌려 숙소로 오시여 장군님께 전화로 말씀드리였다. 김정숙동지의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다가 말씀하시였다.

《정숙동무가 가장 중요한걸 제기했소. 대책을 세웁시다. 식량사정은 지금 아무곳이나 갈소. 황해제철소와 강선제강소에도 나가보았는데 식량이 없어 로동자들이 굶으면서 복구건설을 하고 있소. … 정숙동무! 지금상태에서는 적산물자통제를 잘하는것이 중요하오. 적산품을 빼내고있다는 보고가 여러곳에서 제기되었는데 다른데로 빠지지 못하게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오.

내 그러지 않아도 청진시민들에게 풀어줄 식량문제때문에 과업을 주었는데 아마 시일이 좀 걸려야 할거요.》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후터워오르는것을 느끼시였다. 갓 해방된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시느라 장군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들의 식량문제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대책을 세우고계신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여기 일을 빨리 마무리짓고 평양에 돌아가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려야겠다고 다시금 마음을 다지시였다.

다음날 김정숙동지께서 안길이와 함께 시인민위원회에 나가 적산쌀을 인민들에게 나누어준 정형에 대해 알아보시는데 시 남쪽초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안길동지! 남으로 나가는 식량 실은 차를 단속하였습니다. 적산처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았

는데 어쩐지 수상합니다. 제편에서 오히려 떡떡 으릅니다.》

《알겠소! 내 곧 가겠소.》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안길은 곧 말을 타고 시 남쪽교외초소로 달려갔다. 안길이 나타나자 자동차에 앉아있던 호송원이 차에서 내렸다. 전날 장금이에게 쌀을 팔아먹던 캡을 쓴 사나이였다.

《이 쌀을 어디로 가져가는가?》

안길의 무게있는 음성이 차디찬 공기를 쩍 하고 울렸다.

《저… 서울로…》

《뭐?!》

안길의 술진 검은 눈썹이 곤두섰다.

《적산처리위원회의 지시로…》

《안돼! 그 누구도 적산품은 못 다쳐. 이건 나라의 재산이야!》

안길은 격분을 참느라 주먹을 으드드 떨었다.

목갑총에 얹은 오른손이 경련을 일으켰다. 족제비상같은 호송원은 안길의 권총집을 흘끔흘끔 결눈질하며 사색이 되어버렸다.

안길은 당장 쌀을 제철소에 실어가라고 이르고는 그길로 돌아와 김정숙동지에게 사연을 말씀드렸다.

《적산처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았다는데 어디 가서 팔아먹자는거겠지요. 이건 더러운 장사군들의 사기행위라고만 볼수 없는것 같습니다.》

안길의 격분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렇다. 틀리지 않는 말이다. 곡창지대인 남쪽에 쌀이 없어 북쪽끝에서 실어가겠는가! 반동놈들이 쌀 안 주는 공산당의 정치는 필요없다고 요언을 퍼뜨리는것이 과연 우연한것이겠는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안길이쪽으로 힘있게 돌아서시였다.

《웁아요. 인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쌀을 빼돌려 민심을 소란케 하고 공산당의 위신을 떨어려는 불순한 기도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김정숙동지의 눈매가 서늘해지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안길이기도 큰숨을 몰아쉬였다. 그렇다! 이건 분명히 어려운 난관을 중첩시켜 민심을 어지럽히려는 정치적목적이다!…

《안길동지! 제 생각에는 적산처리위원회의 뒤에서 쫓라닥질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공산당의 정치를 달가와하지 않는 불순분자들이 말입니다. 시내에 나도는 요언들과 식량을 남으로 빼내가려는 기도!… 그저 스쳐보낼 문제가 아니라 고 봅니다.》

안길은 자기가 당장 가서 알아보겠다고 하자 김정숙동지께서도 함께 가자고 나서시었다. 안길은 그에게 그런 곳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며 자기가 가서 혼쌀내겠다고 말씀드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군모를 바로 쓰시며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 하루빨리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그들이 새 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에 어긋나는 현상을 두고 제가 어떻게 가만 앉아있겠습니까? 함께 갑시다.》

어떤 경우에도 장군님의 로선을 흥정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를 모르시는 김정숙동지이심을 잘 알고있는 안길은 군말없이 그이를 모시고 나섰다.

왜놈들이 쓰던 《도청》에 위풍있게 틀고앉은 도공산당청사는 주변의 게딱지같은 살림집들을 누르며 으시대듯 당당하게 솟아있었다. 청사 1층에 자리잡은 적산처리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책임자에게 직관 물으시었다.

《인민들은 쌀이 없어 공장복구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쌀을 팔아먹고 쌀차를 남으로 내보내는가요?》

《예?...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

책임자라는자는 모르쇠를 한다.

《당신이 수표한 호송증이 있는데두?》

안길은 따지듯 물었다. 그자는 당황해하더니 인차 자세를 수습하고 뻗뻗하게 나왔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요. 간부들의 지시가 있는건데...》

《간부? 간부란 누구예요?》

김정숙동지의 엄한 물음에 그자는 눈길을 떨구며 얼버무렸다.

《저... 도당에서...》

순간 김정숙동지의 두눈에서 평곳 하고 시퍼런 불길이 뿜어져나왔다. 그 서늘한 눈빛은 다사하(대사하)치기와 흥기하(흥기하)에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왜놈들에게 내뿜던 서리찬 증오와 격멸의 눈빛과 같은것이였다. ...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창문가로 다가가시었다. 저 멀리 제철소쪽에서 검붉은 화광이 톡 트립하듯 치솟아오르고 역쪽에서는 기관차의 거센 기적소리가 들려온다. 어디서나 새 조국을 하루빨리 건설하려는 인민들의 의지가 력력히 풍겨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힘있게 돌아서시었다.

《동상이몽! 이것이 얼마나 너절하고 추악한 배

신행위인줄 알아요? 명심하세요. 인민의 리익을 등진자들은 반드시 인민의 심판을 받는 법이예요.

위대한신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모신 북조선공산당은 인민의 지지속에 이 땅에 반드시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울거예요.》

준절하고도 추상같은 그이의 말씀에 책임자라는 자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있었다. ...

숙소로 돌아오시는 길에서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계시었다. 안길은 그이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애썼다.

《정숙동무! 너무 마음쓰지 마오. 그러다 병나겠소.》

김정숙동지께서는 안길을 바라보시며 심중히 말씀하시었다.

《적산창고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천, 신발, 비누와 의약품 같은것들을 인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길은 앉으나서나 장군님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해 고심하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가슴이 후터워올라 말씀드리었다.

《예, 지시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식량문제만은 해결대책이 없군요. 지금 사람들속에서는 예로부터 가난구제는 그 누구도 할수 없었다는 말까지 돌고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었다. 얼핏 안길을 돌아보시고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시었다. 주먹을 꼭 움켜쥐시었다. 예로부터 그런 말이 전해져내려오는것은 사실이다. 오랜 세월 가난과 빈궁속에 시달려온 인민이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숨막히는 력사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가난과 불행을 영원히 없애 버려야 한다. ...

《안길동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낡은 사회에서는 그런 말이 통해도 새 민주조선에서는 통할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새 민주조선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나라이기때문이지요.

우리는 장군님을 받들어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야 해요. 앞으로 우리 인민은 영원히 가난을 모르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거예요.》

안길은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끓어올라 그저 고개만 끄덕이였다. 그래, 김정숙동지의 말씀이 옳다!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나라에서 사는 인민은 영원히 가난을 몰라야 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있는가.

안길은 존경의 눈길로 그이를 우러렸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필요한 대책을 다 세우시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후 며칠 안되어 김정숙동지께서는

평양을 향해 청진을 떠나시었다.

×

길주역을 떠난지가 몇시간 되지 않았는데 기차는 또다시 멈춰섰다. 철길로반과 급수조건들이 불비해 때없이 멎어서군 하는 증기기관차였다.

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 잠자리에서 일어난 안길은 문을 열어제끼고 밖으로 나섰다. 간밤에 내린 눈이 발목을 덮는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식당칸으로 되어있는 다음차칸으로 다가갔다.

식당방변인 김철호가 보이지 않았다. 물길러 간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역앞에 있는 우물가로 걸음을 옮기는데 김정숙동지께서 김철호와 함께 우물가의 눈을 쓸고계시는것이 보이였다. 눈을 쓸기 시작한지 퍼그나 오래된듯 우물주변은 물론 집집으로 향한 마을길들도 깨끗해졌다.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눈을 쓰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안길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샘솟듯 하였다. 오늘은 김정숙동지의 탄생일인 12월 24일이다. 조국에 돌아오시여 고향에도 못 가보신 그이께서 열차칸에서 탄생일을 맞게 하였으니 미안하고도 죄스러운 마음을 눅갯힐수 없었다. 부령야금공장으로 가시던 길에서도 고향집에 들려보자는 투사들의 청을 마다하신 그이이시였다.

사흘전 안길은 역에서 돌아와 김정숙동지에게 말씀드렸다.

《정숙동지! 아무래도 떠나는 날자를 며칠 미루어야 하겠습니까. 유개화차밖에 없는데 그거야 어떻게... 며칠만 있으면 려객열차를 멋있게 꾸려놓겠습니다.》

안길은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실은 며칠 있으면 맞게 되는 김정숙동지의 탄생일을 로상에서 쇠게 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짐을 꾸리는 녀대원들의 일손을 거들어주시다 말고 안길을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안길동지! 절 생각해주는 그 마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순간이라도 지체하면 되겠습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 인차 떠납시다.》

안길은 그이의 말씀에 두손을 들고말았다.

그렇게 떠난것이 이틀전인데 오늘은 기차칸에서 생일을 맞게 되신것이다. 이윽고 날이 활짝 밝았다.

식사시간이 되자 대원들은 긴상을 마주하고앉았다. 김철호가 김정숙동지앞에 따로 차린 상을 들

여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놀란 눈길로 김철호를 쳐다보시였다.

《철호동무! 이건 뭐예요?》

판가마를 사용하는것은 빨찌산에서 추호의 용서가 없는 규률이고 룰리였다. 안길은 밥그릇을 그이앞에 밀어놓으며 말씀드렸다.

《정숙동무! 오늘이 바로 정숙동무의 생일입니다. 해방된 오늘에 기차칸에서 생일을 맞게 한 우리들이 면목이 없습니다.》

대원들모두가 김정숙동지를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러보았다. 언제한번 생일이라고 따끈한 밥 한그릇 잡수어보지 못한 그이이시였다. 그이의 손으로 대원들에게 해먹인 밥을 모아놓으면 큰산을 이루련단 자신을 위해서는 송기떡 한개도 마다하시던 그이이시였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찢르르해올라 묵묵히 다반을 내려다보시였다. 생일상이라야 흰쌀밥 한그릇과 찬 몇가지 그리고 폭 끓인 무우시래 기국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전우들의 진정에 목이 메여 오르시였다.

《고마워요, 동무들! 성의를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직은 인민들의 생활이 어려운데 우리도 그들과 고탁을 함께 하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식찬그릇들을 대원들에게로 밀어놓으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동무들은 해방된 오늘 기차칸에서 생일을 맞게 했다고 미안해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장군님 계시는 평양으로 가는 열차안에서 맞는 생일이 얼마나 뜻이 깊습니까? 타향에서가 아니라 제땅에서 맞는 생일이 아니예요? 자, 동무들! 우리 노래를 부르자요.》

김정숙동지의 선창에 모두가 따라불렀다.

권리를 박탈한 자본사회에
청춘의 붉은 꽃 못 피운 원한
아느냐 그대여 녀성동무들

노래가 끝나자 안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 동무들! 빨찌산식으로 축배를 듭시다!》

《우리의 백두산녀장군을 위하여!》

《백두광명성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대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윽고 열차가 움찔하더니 덜커덕 — 덜커덕 하면서 달리기 시작했다. 고르롭게 울리는 바퀴소리와 더불어 탁탁 튀는 참나무장작에 난로가 새빨강게 달아올랐다. 12월의 사나운 추

잊지 못할 돈 2원

김 춘 호

많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에 무거운 돈이 있어라
세월은 가도 잊지 못할 돈 2원
지하공작의 날 철창가에서
김정숙어머님 조직에 바치신 돈 2원

그 돈 2원에 실려 안겨오누나
나는 죽을것이라고
그러나 조직은 살것이라고
나의 재산의 전부인 돈 2원을
조직의 자금으로 써달라는
편지의 그 글발이

얼마나 그 얼마나
조직이 귀중하고 그리우셨으면
생의 마지막유언파도 같은
자신의 심장의 말을
돈 2원에 담아 보내셨으랴

심장을 바치듯
한생을 바치듯

삼가 조직에 보내신 돈 2원
어머님재산의 전부여
뜨거운 심장속에
우리 안고사는 그날의 돈 2원

어머님 바치신
그 돈 2원이 오늘도
이 심장에 자리잡고
이 가슴 두드리며 말하누나

자신의 모든것
삶도 희망도 재산도 명예도
혁명을 위해 조국을 위해
어머님처럼 바칠줄 알라고

아, 돈 2원
많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에 무거운 돈
담겨져있는 그 뜻이 정녕 높아
만대를 물려줄
어머님의 고결한 정신의 재부여!

~~~~~  
위가 차창밖에서 울부짖어도 화차안은 후끈 후끈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드님을 꼭 껴안으시고 흘러가는 조국의 산야를 내다보고계시였다.

할일이 참으로 많다.

장군님을 받들어 우리 나라를 빨리 남부럽지 않는 부강조국으로 일떠세워야 한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이 엄청난 파제를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부터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드려야 한다. ...

아까부터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우리르는 안길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부드러움과 엄함이 잘 조화된 눈매, 따뜻한 미소, 사려깊고 인자한 표정...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일제와 맞서싸우며 혁명의 사령부를 한몸바쳐 보위하시고 조선의 미래를 안아키우신 김정숙동지! 그 공적만 해도 하늘끝에 닿았는데 오늘은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건국로선관철을 위해 생일날도 기차칸에서 맞으시며 떠나신다.

평양에서 먼 북변도시!... 꿈결에도 그리던 고향

가까운 도시였건만 고향집을 찾는것도 뒤로 미루시고 오직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받들어 모든 정력을 다 바쳐오신 김정숙동지.

안길은 갑자기 눈곱이 찢해왔다. 그이를 모시고 그이의 조언을 받으며 일해온 한달가까운 나날의 일들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던것이다. 그 나날들은 그이로부터 군중과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운 뜻깊은 나날들이기도 했다.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공장으로, 농촌으로, 때로는 노동자들속에서, 때로는 녀맹원들속에서... 제일 못사는 인곡동 어리골의 가난한 녀성의 가정까지 찾으시여 해방의 봄빛을 가득 안겨주신 김정숙동지.

...정녕 그이께서는 이 북변도시에 얼마나 큰 자욱을 남겨놓고 평양으로 가시는것인가.

기적소리가 울린다. 하늘땅을 뒤흔든다.

김정숙동지의 그 높이신 업적을 온 세상에 전하고싶은듯...

그러나 이 아침 그이께서 평범한 유개화차를 타시고 평양으로 가시는줄은 불과 몇사람밖에 모르고있었다.

## 새 조선의 농민된 본분을 새겨주시며

비상한 혁명적열정으로 올해농사를 해가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는 해방후 우리 농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고마운 은덕을 깊이 새기고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모습이 뜨겁게 간직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혁명의 길에 나선 모든 사람이 따라배워야 할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녀성혁명가였습니다.**》

주체36(1947)년 2월 어느날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 농촌에서 어떻게 벌어지고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화군으로 나가시였다.

2월이라 하지만 들에서는 벌써 싱그러운 흙냄새가 풍기였고 새싹을 움틔우려는듯 양지쪽언덕에는 아지랑이가 가물거리였다.

바야흐로 농사철이 다가오고있었다. 그런데 드넓은 논밭에는 거름을 나르는 농민들이 보이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 한 농촌마을에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 들리신 마을의 어느 한 집에서는 마을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판을 펼치고있었다.

로인들결에 앉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 고장의 농사형편이며 농민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지난날 대대로 지주놈의 머슴살이, 소작살이를 하다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수천평의 땅을 분여받았으며 해방후 첫해농사를 잘 지어 집집마다 고간에 벼가마니를 그득그득 쌓아놓고 살아가고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함께 기뻐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이렇게 모여앉았는가고 친근히 물으시였다.

좌상인듯 한 로인이 날이야 무슨 날이겠는가고, 한해농사를 짓고 이렇게 겨울한철 노는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지난날같으면 타작마당에 빈 키만 들고 나앉아온 겨울 추위에 떨며 낱품을 팔거나 벌써부터 산에 올라 송기를 벗길 농민들이 이렇게 한해농사에 벌써 잘살게 되어 매일같이 경사를 맞이하고 즐겁게 놀 속구구들을 하고있다고 생각하시니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음이 더없이 흐뭇해지시였다.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낡은 생활풍습의 전모도 느끼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마을사람들에게 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을 나누어주시여 지난날 머슴살이, 소작살이를 하며 눈물겹게만 살던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옛날 부자 못지 않게 잘살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은 분여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 고간에 쌀가마니를 높이 쌓았다고, 하지만 지금 나라의 식량사정은 매우 어렵다고, 장군님께서 나라의 어려운 식량사정때문에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계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은 깊어지는 생각으로 그이를 우려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계속하시여 그들에게 땅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수 십가마니의 난알을 애국미로 바친 김제원농민의 애국적소행도 이야기해주시고 그 모범을 따라 전국의 농민들이 애국미 헌납운동을 벌리고있는데 대해서도 감명깊이 들려주시였다.

그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농민들은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일을 잘해나가겠다고 저저마다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새로운 결의에 넘쳐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애국미헌납운동에도 적극 참가하고 새해농사차비를 부쩍 다그쳐 올해에도 풍작을 가져오자고 고무해주시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장군님께서 호소하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에 적극 참가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때까지 마을사람들은 자기들이 땅의 주인, 농사의 주인된 본분을 자각하고 살며 일하도록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시는분이 누구이신지 모르고있었다.

그이께서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곳을 떠나신 후에야 그분이 바로 백두의 전설적녀장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이심을 알게 된 마을사람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 첫봄날에



조 인 선

△때 : 주체35(1946)년 봄

△곳 : 양덕군

△나오는 사람들

국철 : 기관사

학명 : 철도병원 원장 (연희의 남편)

연희 : 의사 (국철의 누이)

해순 : 려관 봉사원 (국철의 약혼녀)

창길 : 기관조사

윤실 : 동일려관주인 (해순의 어머니)

녀투사, 면인민위원장

△무대 오른쪽에서 외지팽이를 짚은 국철이 국부조명속에 나온다. 울려오는 기적소리.

국철 : 야! 《중기-355》호이구나. 기다리라, 내 다리를 고치고 나가면 너를 몰고 평양으로 썩 썩 달리겠다. 평양으로 썩썩! 하하.

△국부조명속에 학명과 연희가 왼쪽에서 나온다.

연희 : (놀라며) 뭐라고요? 절단수술을요?!

학명 : 더 시간을 끌다가는...

연희 : (억이 막혀) 아니, 아니예요, 안돼요!

학명 : 여보, 지금형편에서 항생제가 생기기를 기다리다간 생명이...

연희 : 그만해요! 그만... 흐흑!

△음악과 함께 울리는 설화.

이것은 해방된 이듬해 첫봄날에 양덕철도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무대막이 열리면 《양덕철도병원》간판이 보이는 아담한 병동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있고 그 앞의 버드나무아래에 의자가 놓여있다.

무대뒤 배경으로 철도역이 보이는데 《산업건국의 노래》소리와 간간이 울리는 기적소리가 새들의 지저귐소리와 어울려 들려온다.

외지팽이를 짚은 국철이 움트며 약동하는 봄의 훈향과 건국으로 들끓는 열의를 느끼며 버들개지를 쥐어본다.

국철 : 봄이로구나...

연희 : (병동쪽에서 나오며) 아니, 여기 나와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하니? 주사시간인데...

국철 : (제 기분에 들떠) 야, 요것들 좀 보라요. 누이, 보르르한 버들강아지들을... 하하.

연희 : 애두 참, 난 의사구 넌 환자야. 팔 걷어...

국철 : 차 이런... 방금 간호원이 놔주고 왔는데... 참, 수술을 언제 하겠대요?

연희 : 항생제를 구하러 간 매부가 오시면 인차 결심하실거야.

국철 : 이거 속이 뚫어번져서 어디... 모두 건국으로 들끓고있는데...

연희 : 참, 너 못 들었겠구나. 백두산녀장군님께서 우리 양덕땅을 찾아주신 소식을...

국철 : 예?... 아니, 그럼 총 한방으로도 왜놈들을 꺾미로 싸눕히신다는 소문이 온 삼천리에 짜— 하시던 그분께서... (성급히) 그게 정말이예요? 난 왜 몰랐을까?

연희 : 글썽 너무도 조용히 소문없이 오시여 허물없이 대해주시니 처음엔 누구도 백두산녀장군님이신줄 몰랐다는거야.

국철 : 그래요, 야!

연희 : 김일성장군님의 건국의 뜻을 꽃피우시기 위해 공장과 농촌들을 찾으시며 분망한 날을 보내시는 백두산녀장군님께서 숙소도 해순이네 수수한 동일려관에 정하셨다는게 아니겠니.

국철 : 그러니 해순인... 야, 정말 좋겠구나.

연희 : 어제두 먼 산골농촌을 찾으시여 농민들의 생활을 높일 방도까지 의논해주시고 밤늦어서야



돌아오셨다는구나.

**국철** : 야, 우리 양덕땅에 경사가 났군요. 경사가!

**연희** : 글썄 이런 영광이 또 어디 있겠니.

△이때 왼쪽으로 창길, 해순, 윤실이 들어선다.

**창길** : 국철형!

**국철** : 아니, 창길이가... 기다리던중인데 마침 잘 왔다. 하하.

**창길** : (능청스레) 헤헤... 속으론 러판집 춘향이를 더 기다리면서두...

**해순** : 어마나, 이 동문...

**연희** : 호호, 어머니, 또 오셨군요. 바쁘실텐데...

**윤실** : 바쁘긴요. 요즘은 성수가 나는데. (국철에게) 그대 상처는 더 쏘지는 않나?

**국철** : 괜찮습니다. 그런데... 백두산녀장군님의 숙식을 보장해드리는 중임을 안고있는데 이렇게 오시면...

**윤실** : 허허, 그럼 도루 가라나?

**국철** : 가시긴요, 하하.

**연희** : 호호, 백두산녀장군님의 소식을 듣고싶어 막 성급해서 죽어가는데요 뭐.

**윤실** : 그럴테지... 해순아, 그 보자기를...

**해순** : (보자기를 풀고) 저, 받으세요.

**국철** : 아니, 무슨 옷을?

**윤실** : 자네 기관사복이네.

**창길** : 야, 멋있구나!

**국철** : (몽클해서) 어머니, 이걸 뭘 다...

**해순** : 이 기관사복은 백두산녀장군님께서 지으신거예요.

**국철, 창길, 연희** : 아니, 백두산녀장군님께서요?!

**윤실** : 그렇다네. 어제 또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늦어서야 러판으로 돌아오신 백두산녀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마름질하는 천을 보시고 무슨 옷을 짓는가고 따듯이 물으시는게 아니겠나. 그래서 자네에 대해서 허물없이 말씀드렸더니 기관차를 지켜 반동놈들과 싸우다가 그렇게 된 동무인데 기관사복을 잘 지어주자고 하시며 글썄 손수...

**국철** : 그러니 백두산녀장군님께서 손수...

**해순** : 어머니와 제가 너무 황송해서 피로하시겠는데 어서 쉬시라고 거듭 말씀드리자 백두산에서 싸울 때 **김일성**장군님의 명령을 받들고 수백벌의 군복을 밤을 새워가며 지었다고 하시며 한뼘한뼘 정성들여 재봉기를 돌리시였어요!

**국철** : 저같은게 뭐라고...

**윤실** : 정말 인정이 얼마나 깊으신지... 다리를 고치고 잔치를 하면 평양으로 꼭 오라고 하시었다네.

**국철** : (뜨거움을 삼키며) 제... 꼭 찾아뵙구 감사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절을!

**윤실** : 그러자구, 그래!

**창길** : 야, 기관차수리도 거의 끝나가는데 이젠 국철형이 다리만 고치면...

**국철** : 창길이, 병원에서 나가면 백두산녀장군님을 우리 기관차에 모시고 평양으로 달려갈 우리들의 소원을 아뢰이자구.

**창길** : 꼭 그러자요, 꼭! 야...

**해순** : 그럼 전 기관차에 꽃테를 두르고 꽃비단 방석을 놓아드리겠어요.

**창길** : 난 기관차를 더 번쩍거리게 정비하구...

**윤실** : 그럼 난 뭘한다?

**창길** : 뭘 하시다니요? 어머니에게 기관사완장을 만들 과업을 주려고 하는데...

**윤실** : 허허, 벌써 해순이가 수를 놓구있다네.

**창길** : 그래요? 사기나는데... 가만, 이 기관조사완장은 잊어먹지 않았어요?

**윤실** : 원, 백두산녀장군님을 모시고 달릴 우리 기관조사를 잊다니...

**창길** : (경례 불이며) 차렷! 나의 기관사의 장모 되실 어머니에게 기관조사의 감사를 줍니다. 《증기-355》호 기관조사 박창길!

**윤실** : 고맙습니다! 허허.

**모두** : 하하, 호호.

**윤실** : 그럼 우린 가겠네. 치료를 잘 받게나.

**국철** : 예...

**창길** : 참, 이진 역장아바이가 구해온 언 둘배인데 시원하게 들라구 보냈어요.

**국철** : 아바이두 참, 이 국철인 기관차수리소식을 더 기다린다구 전하라고.

**창길** : 글썄 기관차걱정은 말구 치료를 잘 받으랴요.

**윤실** : 그럼 선생님, 수고 많겠어요.

**연희** : 안녕히 가세요.

**해순** : 아이, 나오지 마세요.

**국철** : 정문까지만...

△그들을 바래우며 나가는 국철과 연희. 이어 학명이 들어서는데 연희가 나타난다.

**연희** : 아니, 지금 오세요? 먼길에 수고 많으셨어요. (가방을 받아든다.)

**학명** : (중절모를 벗어 부채질하며) 수고하면 뭘 하오, 빈 가방인데...

**연희** : 아니, 그럼?...

**학명** : (의자에 앉으며) 왜놈들이 쫓겨가면서 보잘것 없던 제약공장을 얼마나 악착스레 파괴해놓았는지 항생제가 나오자면 반년은 실히 걸릴거라고 하니... 참.

**연희** :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양덕에서는 폐니실린 한대 구하기 어려운데. 다리수술에 필요한 그 많은 항생제를 어디서?...

**학명** : (심각한 얼굴로 일어서며) 할수 없소. 전번 수술협의회에서 논의한대로...

**연희** : (놀라서) 예? 그러니...

**학명** : (결연히) 이제 더이상 인정에 쫓기울 형편이 안되오.

**연희** : 그럼 생때같은 내 동생의 다리를 끝내... 안돼요, 안돼요!

**학명** : (피롭게) 여보, 괴저증상이 오고있는 상처를 그냥두면 골수염으로 화농되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걸 당신이 몰라서 이러는거요? 참.

**연희** : (억이 막혀) 흐흑... 해방된 이 땅에서 다리를 잃게 되다니...

**학명** : 그만하오! 난 처남을 우리 별이처럼 되게 할수 없단 말이요, 별이처럼! 가만, 저기 처남이... 음, 가슴이 아프지만... 잘 이해시키오, 잘. (무겁게 나간다.)

**국철** : (흥이 나서) 아, 이 감격을 생산돌격 산업부흥에, 모든 힘을 한데 뭉쳐 산업부흥에... 아니 누이, 울지 않았어요?

**연희** : (얼른 수습하며) 울긴... 눈에 티가...

**국철** : 티요? 어디 보자요, 고놈의 티...

**연희** : 됐다, 됐어. ...

**국철** : (유난스레 울려오는 기적소리에) 아니? 야, 이젠 기관조사가 날 들으라고 울리는게 분명해요. 수리가 끝나간다는 신호!

**연희** : 뭐, 신호?

**국철** : 그래요. 알았다, 알았어! 나의 친구 《증기-355》호야, 내 이제 다리만 고치면 한달음에 너한테로... 하하.

**연희** : 흑- (울음 삼킨다.)

**국철** : (제 기분에 들떠) 야, 이거야 불이 일어서 어디... 빨리 수술을 받던가 해야지.

**연희** : (다리를 만지며) 아프지?

**국철** : 아픈거야 뭐. 그저 짜든 찌르든 빨리 걸을수 있게만 해달라요. 그러면 누이랑 매부랑 태우고 **김일성**장군님 계시는 평양으로 칙칙폭폭, 칙칙폭폭 뺑- 하하.

**연희** : (피로움을 숨기고) 꼭 철부지장난꾸러기 같다니까...

**국철** : 철부지장난꾸러기? 하하, 하긴 걱정할게 없지. 누이, 매부를 한다하는 의사로 두었는데... (휘파람 분다.) 휘휘호호...

**연희** : 인차... 수술을 받자면... 안정을 하구 마음을 든든히...

**국철** : 아니, 왜 그래요? 오, 수술에 못 견딜가 봐요? 하하, 내가 무쇠철마를 다루는 기관사라는걸 몰라요? 걱정말고 웃으라요, 웃어요. 호호호...

**연희** : 애두 참...(입술 깨문다.)

**국철** : 자, 안정호흡 시작합니다. 후후-

**연희** : 흑- (몰래 눈물 흘린다.)

△여기로 녀투사와 면인민위원장이 들어선다.

**면인민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연희선생!

**연희** : 아니... 면인민위원장동지가... 안녕하십니까?

**녀투사** : 의사선생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연희** : 안녕하십니까? 저... 부인님은 누구신지?

**면인민위원장** : 이분은 백두산녀장군님과 동행하시는 녀투사이십니다.

**연희** : 아니, 그럼 백두산녀장군님을 모시고...

**녀투사** : 우린 입원중에 있는 기관사청년을 만나자구 들렸어요.

**국철** : (몹시 놀라며) 저를... 말입니까?

**녀투사** : 그러니 동무가...

**국철** : 안녕하십니까? 투사동지...

**녀투사** : 인차 수술을 받게 된다고요? 자, 이젠 찰떡과 꿀이에요.

**국철, 연희** : 예?!

**녀투사** : 이 찰떡과 꿀은 끼식도 번지시며 양덕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푸시려고 쉬임없이 걸으시는 백두산녀장군님께 대접해드리라고 농민들이 정성껏 마련해서 올린것인데 글썽 나라의 동맥을 지켜가는 한 청년기관사가 인차 수술을 받게 된다고, 수술자리가 빨리 아물고 새살이 나오는데는 찰떡이 좋다고 하시며 한점도 들지 않고 고스란히 보내주시는거예요.

**국철** : 아니, 저같은 철도로동자가 뭐라고... 안됩니다. 이젠... 안됩니다.

**면인민위원장** : 제가 면회를 가겠다고, 그러니 어서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끝내 사양하시며 굳어지기 전에 어서 가져다주라고, 앞으로 꼭 시간을 내서 병원에 오시겠다고 하시었소.

**연희** : 흐흑-

**국철** : 흑- 다리를 고치고 나가면 백두산녀장군님의 이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한몸 다 바쳐... 흑.

**녀투사** : 알겠어요. 그럼 꼭 그러기를 바래요. 치료를 잘 받으세요. (나간다.)

**국철, 연희** : 안녕히 가십시오.

**연희** : 국철아, 우리가 이런 은정을 받아안게 되다니...

**국철** : 백두산녀장군님!

**연희** : (독백) 아, 절단수술을 받게 된다는걸 아신다면... 아니, 아니야! 뛰여보자. 항생제를 구해보자! 항생제를!

△전환음악. 무대 어두워졌다 다시 밝아지면 학명이 초조히 오가고있다.

**학명** : 이 사람이 더 지체되지 말아야 하겠는데...

**연희** : (나오며) 여보...

**학명** : 아, 그래 어떻게 됐소?

연희 : (땀을 흘리며) 페니실린 몇대를 겨우… 그것두 사용기한이 지난거예요.

학명 : 내가 정신을 못 차렸지. 우리 별이를 잃은 뼈아픈 교훈을 잊구 인정에 쫓기는 당신에게 양보를 했으니…

△이때 국철이 들어선다.

연희 : (울먹이며) 해방된지 한해도 못되는 형편에서 구하기 어려울것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동생의 앞날이 너무 기가 막혀서… 흑!

국철 : (흠칫하며) 뭐, 내 앞날이?…

학명 : (결연히) 그러니 이제 용단을 내립시다.

연희 : (기가 막혀) 그러니… 내 동생이… 끝내 다리를 잃게 된단 말이에요?

국철 : 뭐, 다리를?

학명 : 절단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처남을 잘 설복시킵시다. …

연희 : 생때같은 다리를 잃는 동생을 무슨 말로 설복시킨단 말이에요? 무슨 말로…

국철 : 그러니 절단수술을?…

학명 : 진정하오. 그렇다고 생명을, 생명을 잃을 수야 없지 않소?

국철 : (달려드는듯 나서며) 다시, 다시 말해보라요. 다시!

학명 : (놀라며) 처남!…

국철 : 내 다리를 자르겠대구요?

연희 : 국철아…

학명 : 진정하라구, 진정!

국철 : 진정하라구요? 왜놈의 징병을 피해서 사지판을 넘나들면서도 성성해서 돌아온 이 다리를 자르겠다는데 진정하라구요? 매부도 의사요? 사람의 심장을 가진 의사인가 말이에요?

연희 : 국철아!

학명 : 날 원망하라구. 매정한 수술칼밖에 들지 못하는 이 무뎡한 매부들!

국철 : 그만하라고요. 차라리 그 수술칼로 이 심장을 찌르라고요, 심장을!

학명 : 처남!…

국철 : 난 건국의 기관차를 몰아야 할 새 조선의 청년이란 말이에요, 청년!

학명 : 그러기에 생명이야 건져야 하지 않는가!

국철 : 한생 남의 집이나 될 그런 생명은 바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연희 : 이렇지 말아, 국철아!

국철 : 다… 다 보기 싫어요, 다!

학명 : 아, 왜놈의 세상에서 피를 말리우며 겨우 터득해온 내 의술로 해방된 이 첫봄날에 창창한 젊음이의 앞길에 칼질을 하게 되다니…(나간다.)

연희 : (자신을 다잡고) 국철아, 이렇지 말아. 지금 매부가 어떤 고통의 칼질을 당하고있는지를

알아야 해!

국철 : (분별을 잃고) 에이… 기관차를 몰지 못 할바엔 차라리 죽어버리고말테예요, 죽어버리고!

연희 : 뭐라구? 너 가슴찡기는 이 누이앞에서 어찌면 그런 말을 탕탕…

국철 : 비키라고. 이거야… 기관차를 들이받던가 해야지… 에이!

연희 : 너 내 심장이 터지는걸 보고싶어 이러는 거냐? 응?…

국철 : 비키라고, 비켜요!

연희 : 너 말을 안 듣겠니? 안 들을테야?

국철 : (몸부림치며) 놔요, 놓으란 말이에요!

연희 : 좋다. 정 그렇다면 갈테면 가자! 나두 같이 기관차를 들이받잔 말이야!

국철 : 이렇지 말아요, 누이!

연희 : 놔라, 놔!

국철 : 누이까지 이러면 난, 난 어떻게 하는가 말이에요. 누이!

연희 : (아속히 쳐다보다가) 그렇다면… 저기 앉자.

국철 : 흑—

연희 : (눈물을 닦아주며) 용서해라. 네 가슴을 더 아프게 한 이 누이를!

국철 : …

연희 : 너도 알지. 네가 그렇게 귀여워하던 별이가 왜 잘못되었는지…

국철 : (목이 갈리며) 그 소린 왜 꺼내면서…

연희 : 왜놈이 미친듯이 모는 오토바이에 다리를 치인 그 애의 치료비를 미처 물지 못한다고 왜놈 병원 원장놈이 약물공급을 끊는 바람에 상처가 썩어들고 팔수염이 오기 시작했지!

국철 : 에이, 치가 떨려서…

연희 : 그때 절단수술을 했으면 살수도 있었을텐데… 다리가 없는 그 애 앞날을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혀서 인정에 몰려 약값을 마련하느라고 뛰어다니다가 그만 때를 놓치게 되어 끝내… 흑—

국철 : 그만해요. 그때에야 왜놈의 세상이었으니 할수 없었지만 지금이야… 난 건국의 기관차를 짱짱 몰고싶어요. 백두산녀장군님의 은정에 보답해야 할게 아니예요, 누이!

연희 : 그 생각을 하면 의사가 된게 막 고통스럽구나. 하지만 락심말아. 이 누이가 네 한생의 다리가 되어주겠으니… 응?

국철 : 누이가 말이에요?

연희 : 언제인가 외국소설을 보았는데 다리를 부상당한 주인공이 절단수술을 받고 의족을 하고도 다시 비행기를 몰며 파쑈놈들을 족쳤더구나.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거라.

국철 : 하지만… 제 다리만 하겠어요?

연희 : 후— 어찌겠니… 아니, 저기 해순이가…

국철 : 예?... 이럴 때 나타날진 뭐야. 없다구 하  
라요.

연희 : 그런다구 숨기진 못해!

해순 : (들어서며) 아이, 선생님...

연희 : 어떻게 또?...

해순 : (부끄러이) 저... 기관사완장이 다 되었  
기에 잠깐... 마음에 들겠는지...

연희 : (착잡한 마음으로) 수를... 곱게 놓았  
군요. (국철에게) 어서 끼여보렴.

국철 : 에이, 그걸 끼여봐선 뭘해요!

해순 : 아니... 뭘하다니요?!

연희 : ...이 일을 어떻게 해? 해순이!

해순 :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연희 : 뭘 숨기겠어. 누이, 매부가 의사로 있  
으면서도... 너희들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게 했  
으니...

국철 : 그만하라고요, 누이...

해순 :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다니, 그건 무슨 말  
이에요? 예?

연희 : 동생이... 내 동생이 절단수술을 받게 했  
으니...

해순 : (아연해서) 절단수술을 받다니요? 그럼  
다리를?

연희 : 그러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니...

해순 : 그... 그게 정말인가요? 예?

연희 : 더는 피해갈 길이 없게 됐구나.

해순 : (억이 막혀) 아니, 아니예요! 그래선 안  
돼요, 안돼요!

연희 : 안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해순 : 뭐가 필요한가요? 피라면 피, 뼈라도 다  
바치겠으니 절단수술만은... 선생님!

연희 : 항생제랑 구해보려고 애썼지만 끝내...

해순 : 제가 뛰여보겠어요, 천리면 천리...

연희 : 아니, 이젠 늦었어. 더 시간을 끌다간...

해순 : (안타까이) 아니예요. 백두산녀장군님께서  
다리를 고치고나와 건국의 기관차를 몰라고 하셨  
는데... 안돼요!

연희 : 그 은정을 생각하면 심장이 터지는것만  
같아, 심장이!

해순 : 백두산녀장군님께서 이 일을 아시면 어떻  
게 해요, 어떻게?

국철 : (격해서) 백두산녀장군님께서? 그건 안되  
오! 건국사업으로 바쁘신 백두산녀장군님께 이런  
사사일로 걱정을 끼쳐선 절대로 안된단 말이요,  
절대로!

해순 : 그걸 왜 모르겠어요. 마음이, 마음이 자  
꾸만 달려가니... 흑!

연희 : 아, 한 청년기관사의 앞날을 축복해주  
신 백두산녀장군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이 죄스러움을 어떻게 하면 종단 말입니까?  
백두산녀장군님!... (괴롭게 나간다.)

해순 : 선생님... (따라나간다.)

△피로운 심정이 비긴 음악. 국철이 기관사완장  
을 움켜쥐고 의자에 앉는데 창길이 나타난다.

창길 : 국철형!

국철 : 엉?...

창길 : 이거 기관사완장이 아니예요? 해순동무가  
벌써... 야, 좀 끼여보지요.

국철 : !...

창길 : (완장을 끼고) 멋진데... (거수경례) 차  
렷! 기관사동지! 《증기-355》호의 수리를 완전  
히 끝내고 증기를 올렸음을 보고합니다. 기관조사  
박창길!

국철 : 뭐, 증기까지?

창길 : 쉬! 이제 보라고요. (기적소리 울려온다.)  
이건 《증기-355》호의 보고란 말이에요. 한번,  
두번, 세번...

국철 : (환성올리듯) 맞는구나. 맞아! 나의 친구  
무쇠철마의 기세찬 목소리가! 하하.

창길 : 해해... 이젠 다리를 고치구 척척 나가서  
잔치두 하구 평양에두 썩썩 달리자요, 하하.

국철 : 뭐, 다리를 고치구 잔치?... (기적소리  
가 몇자) 아니, 왜 몇었어, 왜?

창길 : 열번 울리기로 했으니까요.

국철 : 열번? 아니, 아니... 백번, 천번이라도 울  
리라, 울려!

창길 : 백번, 천번이요? 하하, 그럼 온종일 기적  
소리만 울리게요?

국철 : (갈린 목소리로) 울려라, 울려! 천만번이  
라두... 마지막기적소리인데...

창길 : 마지막기적소리? 그건 무슨 소리야요?

국철 : (분통이 터져) 에이, 모르겠다, 모르겠어!

창길 : 아니, 왜 갑자기 불맞은 호랑이처럼 그  
래요?

국철 : 절단수술을 받구 다리를 잃게 되었는데  
안 그러게 됐는가 말이야.

창길 : 절단수술을요? 아니, 그건 왜요? 도대  
체 누가, 누가 그따위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국철 : 누군 누구겠어? 의술이 유명짜하다는 그  
매부 원장선생이지.

창길 : 원장선생이? 아니, 이거야 기관차대가  
리들이 마주 뽕 한다는 소리이지. 에이, 당장 들  
이대겠어요. 당장! (달려나간다.)

국철 : 그래야 이젠 끝장이다, 끝장!

△안타까운 마음이 어린 음악. 이윽고 시무룩해  
진 창길이 들어선다.

창길 : 일두 참... (한숨 내쉬며) 하지만 생명  
을 잃을순 없으니... 할수 없군요.

국철 : (벌척해서) 건국에도 소용없는 그때위 생명?

창길 : 맘 녹았히랴요. 저... 러판집에서 알고 있어요?

국철 : 아직... 해순이밖에...

창길 : (심중해있다가) 너무 상심해 말라요. 절 단수술을 받아두 건국을 위한 일감은 있으니...

국철 : (격해서) 그러니 시계방이나 구두방에 들어앉으란 말이지? 그게 기가 막혀서 정말로 기관차를 들이받구싶었다. 하지만 난 백두산녀장군님의 축복을 받은 새 조선의 청년기관사란 말이야! 설사 팔다리가 다 없어진대두 난 기어이 기관차를 몰겠단 말이야, 건국의 기관차를!

창길 : (놀랍게) 국철형, 날 욕하랴요. 레루장같은 그런 속대를 세운줄은 모르고... 웃자요, 웃어. 까짓거 퇴원하면 기관차두 몰구 잔치두 하구...

국철 : 잔치!... 그게 딱 맺히는구나. ...

창길 : 아니예요. 인정깊구 마음이 고운 해순 동문 나리꽃같지만 마음속엔 휘지 않는 사랑의 궤도를 변심없이 놓고있을테니 너무 마음쓰지 말라요.

국철 : 그 마음이야... 내가 더 잘 알지. ...

창길 : 그럼... 수술받는 날 오겠어요.

국철 : 무슨 좋은 날이라구... 기관차정비나 잘해. 그리구... 퇴근길에 들렀다 가, 해순동무에게 전할 편지가 있어서...

창길 : 편지요? 하긴 자기도 아픈 마음을 이겨내느라고 생각이 많을텐데 잘 리해시키랴요.

다리는 잃게 되지만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갈 마음의 대들보는 억척같이 세우고있다고요!

국철 : (목이 메어) 자식... 안다, 알어! (창길을 굳게 포옹한다.)

창길 : 국철형!

△그들의 뜨거운 마음 안고 울리는 방창

건국의 노래소리 강산에 넘치고  
불타는 열망으로 심장은 뛰는데  
청춘의 억센 날개 꺾여야 하는가  
구만리 앞길도 잃어야 하는가  
아 그리워 소생의 봄빛 그리워

△무대 어두워졌다 다시 밝아지면 다음날. 새들의 지저귐소리, 건국의 들끓는 노래소리, 기적소리 들으며 서있는 국철. 학명이 나오다가 괴롭게 지켜본다.

국철 : 모두가 저렇게 들끓고있는데 난 오늘 다리를 잃어야 하니...

학명 : (다가와서) 처남, 너무 락심말게...

국철 : 분해서 그래요, 분해서!

학명 : 음... 하지만 다리절단이라는 큰 수술을 받자면 격해선 안되네.

연희 : (나오며) 아니, 주사시간인데 넌 또...

국철 : (심드렁히) 이제 영영 지팡이신세를 지게 되겠는데 아까운 약을 축낼게 있어요.

연희 : 그런 소리말구 팔 걷어!

국철 : 에이, 빨리 자르든 부시든 수술이나 해달라요. 이젠 이 다리가 거치장스럽기만 해요.

연희 : 야참, 속에 재가 앓은 이 누이 생각은 앓구... 넌...

학명 : 여보...

국철 : 이 러 지 말 자 구 했 다 가 도 ... 백두산녀장군님의 은정에 보답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학명 : 후— 여보, 수술준비는 내가 다 해놓겠으니 처남을 진정시켜야지 안되겠소. 저런 흥분상태가 지속되다간 수술도중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른다 말ियो.

연희 : 알겠어요.

학명 : (국철에게) 알겠나? (나간다.)

국철 : ...

△이때 녀투사와 면인민위원장이 들어선다.

녀투사 : 마침 여기 있군요. 안녕들 했어요?

국철, 연희 : 아니, 투사동지가?... (고개숙여 인사한다.)

녀투사 : 예, 가만... 얼굴색들이 좋지 않군요?

연희 : 저... 후—

면인민위원장 : 무슨 일이요? 의사선생!

연희 : 저... (당황히) 아니, 아닙니다.

녀투사 : 무슨 일이 있는지 어서 다 말하세요.

연희 : 저... 사실은...

국철 : (얼른 나서며) 저... 저... 제가 수술을... 그렇습니다. 제가 수술을 건디여내지 못할가봐 걱정이 되어서...(안타깝게) 누이!

면인민위원장 : 수술을... 하하.

녀투사 : 호호, 무쇠철마를 다루는 사내대장부인데 아무렴... 걱정말아요. 항일전의 그 나날 한 투사동지는 부상당한 다리가 썩어들자 통줄임통으로 톱을 만들어 제 손으로 다리를 자르고 왜놈들과의 싸움에 나섰어요.

국철 : 제 손으로 말입니까?

녀투사 : 예, 혁명을 하겠다는 정신력만 강하면 설사 팔다리가 없어도 싸울수 있다고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시었다고 백두산녀장군님께서서는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시곤 한답니다.

국철, 연희 : 예!...

녀투사 : 이젠 백두산녀장군님께서 먼길을 다

녀오시던 휴식참에 산골개울에서 몸소 잡으신 산 천어를 말린거예요.

국철 : 산천어 말입니까?

녀투사 : 예, 자신께서는 바빠서 못 가니 대신 병원에 들러 환자에게 전해주고 해방이 된지 한해도 못되는 형편에서 수술을 하는것만큼 애로되는 게 있겠는데 알아보라고 당부하시었어요.

국철 : 예? 아니, 저같이 평범한 철도로동자가 뭐라고 또 이렇게 다심한 은정을 베풀어주신단 말입니까! 흑...

연희 : 백두산녀장군님!—

면인민위원장 : 선생, 우리가 도울게 뭘지 말하시오. 바쁜 시간을 낸 투사동지이시니...

연희 : 저...

녀투사 : 원장선생을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국철 : (당황히) 아, 아닙니다. 제 누인 부원장이나 같습니다. 그러니...

녀투사 : 그래요, 호호. 그럼 부원장선생, 어서...

연희 : 저... 여기 일은 넘려마시라고...

국철 : 그렇습니다. 투사동지, 수술을 이겨내고 백두산녀장군님의 뜻대로 건국의 기관차를 짙짙 몰 걸심입니다.

녀투사 : 백두산녀장군님께서 그 걸심을 들으시면 몹시 기뻐하실거예요. 그럼 수술의 성공을 바래요.

국철, 연희 : 안녕히 가십시오.

녀투사 : 다시 만나요. (나간다.)

연희 : 이 일을 어찌면 좋니, 어찌면...

국철 : 이러지 말라요. 누이, 제 손으로 다리를 잘랐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신심이 생겨요.

연희 : 네가 힘을 내니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여기로 창길이 들어선다.

창길 : 국철형...

국철 : 아니, 왜 또 왔어? 그만큼 말했는데...

창길 : 오늘 수술을 하지 않나요. 역장아바이랑 오겠다는걸 겨우 설복시키구 혼자 오는 길인데...

국철 : 창길이두 가서 기관차정비랑 하라구...

윤실 : (숨이 차서 달려들어오며) 마침 다 있구나...

국철 : (당황히) 아니, 어떻게 급하게 이렇게?

윤실 : (다짜고짜로) 청천벽력같은 편지를 받았는데 급하게 오지 않게 됐나 말이야!

국철 : 편...지요?

연희 : 무슨 편지이기에 이렇게?...

윤실 : (기가 차서) 의사선생, 글썽 해순이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길래 보니 베개맡에 이런 기막힌 편지가... 어이구, 참!

창길 : 아니, 그건... 내가 전한 편지같은데...

윤실 : 음, 그 잘난 통신원이 자네였군. 흥!

창길 : 아니, 나야 국철형이...

연희 : 저... 그 편지를 줌...

윤실 : 옛네. 가만, 내 읽을테니 어디... 《해순동무...》

해순 : (숨가빠 들어서며) 야참, 병원에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윤실 : 소동? 이것야, 그래 밀도끝도 없는 파혼장이 날아들었는데 병어리가 되겠느냐? 병어리가!

연희 : 아니, 파혼장이라니요?

윤실 : 글썽 이게 무슨 애들 신랑각시놀이라고 하루밤새 이런 맘을 찡찡 먹는가 말이야, 영?

연희 : 아니, 그럼...

창길 : 그러니... 에이, 그런 편지인줄은 모르구 난... 너무해요, 너무해요.

해순 : 편지를 주세요, 어머니!

윤실 : 그래, 어디 우리 모녀가 따져보자! 이 사람, 내 딸이 왜 갑자기 싫어졌는지 다 있는데서 말해보게나. 사실대로 말하란 말이야!

국철 : ...

윤실 : 이 봄날에 입이 얼어붙진 않겠는데 왜 말 못하나, 왜?

국철 : ...

윤실 : 내앞에서 입이 얼어붙었나? 좋네, 그럼 백두산녀장군님께 아뢰일테니 그리 알게나!

국철 : (흠칫 놀라며) 아니, 백두산녀장군님께요?

윤실 : 그렇네! 해순아, 가자!

해순 : 어머니, 이러면 안돼요. ...

국철 : (막아서며) 그렇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됩니다.

윤실 : 비키라구, 비켜!

국철 : 기관차로 나를 깔아뭉개고는 갈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안됩니다!

윤실 : 그럼 이 파혼장을 찢어버릴수 있나?

해순 : (편지를 내민다.) !...

국철 : (외면하며) 난 쉽게 찢어버릴 편지는 쓸 줄 모르오!

해순 : 좋아요. 그럼... (편지를 찢는다.)

국철 : 그게 조박이 난다구 내 걸심이 달라진다고 생각지 마오.

해순 : (오열을 누르며) 어쩔... 흑... 건국을 위해 함께 땀을 아끼지 말자고 한 그 약속은 다 잊고 다리를 잃게 된다고 그런 맘을 먹다니, 어쩔 이럴수 있어요. 어찌면...

윤실 : (아연해지며) 아니, 다리를 잃게 되다니? 그건 무슨 청천벽력이나?

해순 : 엄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국



철동문 나를... 나를 생각해서 그런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후후...

윤실: 이게, 이게 어찌된 일ियो, 의사선생!

연희: 그건... 그건...

윤실: 아니, 왜서 말 못하시오? 왜!

학명: (나오며) 러관집 어머니 오셨군요.

윤실: 아니 원장선생님, 저 사람이 다리를 잃는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예?

학명: 절단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협의끝에...

윤실: 그러니... 아이구! 이 무슨 날벼락같은 일이란 말입니까? 원장선생님!

학명: 차중하십시오. ... 여보, 수술준비가 다 되었으니 처남을 어서...

연희: 후!

학명: 이거 참... 처남, 어서 수술장으로...

국철: 해순동무... 내 결심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난 수술에 응하지 않겠소.

학명: 뭐라구? (성이 나서) 그건 무슨 소리인가?

연희: 그러면 안된다, 국철아...

국철: 대답을 하오! 해순동무!

해순: 몰라요. 전... 이미 동무의 편지를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국철: 좋소! 그럼 나도... (의자에 앉는다.)

학명: (엄하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무슨 버리기인가? 엉? 처남!

국철: 매부... 전 나 하나 당하면 될 불행을 나누고싶지 않단 말이에요. 나누고싶지 않아요!

윤실: (억이 막혀) 날... 날 욕하라구, 이 사람아. 그 비단결같은 속은 모르구... 어서 수술을 받게나, 어서!

창길: 국철형! 어서요...

국철: 내 결심은 이미 발차기적을 올렸으니 누구도 막지 못한단 말이야, 창길이!

해순: 아니예요, 아니! 백두산녀장군님의 축복을 받은 동무를... 후... 난, 난 절대로 물리설수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국철: 해순동무, 진정으로 권고하는데 내 대신 건국의 땀을 바쳐준다면 난 더 바랄것 없단 말ियो. 그러니 제발... 비오, 해순이!

해순: 아! 몰라요, 몰라!... 엄마!

연희: 국철아!

윤실: 아이구, 이 일을 어찌면 좋단 말인가? (사무치게) 저 젊은이의 앞길을 다시 이어줄 귀인은 없습니까? 없어요? 하늘에 대고 묻습니다, 하늘에 대고!

△가슴치는 음악. 승용차 달려와 멎는 소리. 녀투사와 면인민위원장이 급히 들어선다.

면인민위원장: 원장선생님...

학명: 아니, 면인민위원장동지가 아니십니까?

녀투사: 그러니 원장선생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몇번 왔다가 인사를 못하고 가서 정말 안되었습니다.

학명: 아니, 그럼... 두차례나 걸음하셨던 투사동지가... 찾아뵙고 인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녀투사: 그런 말씀마시고 어서 같이 가셔야 하겠습니까.

학명: 제가 말입니까?

녀투사: 예, 공장과 농촌을 끊임없이 다녀오신 그 피로도 푸실새없이 양덕철도역복구사업을 알아보시며 일군들에게 김일성장군님의 철도건설구상을 알려주시던 백두산녀장군님께서서는 역장에게서 철도병원에 입원하고있는 젊은 기관사가 항생제를 비롯한 약품이 떨어져서 절단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었답니다.

학명: 아니, 백두산녀장군님께서 말입니까?

녀투사: 예, 가슴이 아프시여 안색을 흐리시던 백두산녀장군님께서서는 일정이 아무리 바빠도 뒤로 미루고 빨리 원장선생을 만나야 하겠다고 하시며 품소 병원으로 찾아오고계십니다.

모두: 아니, 병원으로 말입니까?

녀투사: 어서 가십시오, 원장선생님!

학명: 예, 예! (급히 옷매무시를 잡으며 나간다.)

△감격에 찬 음악. 배경에 붉은 진달래떨기가 비껴진다. 경건히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짓는 사람들.

△이윽고 학명이 녀투사와 면인민위원장과 함께 나온다.

모두: 원장선생님!...

국철: 백두산녀장군님을 만나뵈웠어요? 매부!

학명: (목메여) 뵈웠네, 뵈웠어!

연희: 여보!...

학명: 백두산녀장군님께서서는 절단수술이 아니라 자신과 힘을 합쳐 다리를 고치는 수술을 하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었소.

모두: 다리를 고치는 수술을 말입니까?

학명: 그렇습니다. 백두산녀장군님께서서는 다리를 잃게 된 자기의 불행보다 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의 건국의 뜻을 받드는 길에 바치지 못하는 땀을 대신 바쳐줄것을 바라고 약혼녀와 본의아니게 갈라질 생각까지 한, 앞길이 구만리같은 청년이 절단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건국의 기관차를 썩썩 물수 있게 다리를 원상대로 고쳐주자고 뜨겁게,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해순: 원상대로 말입니까?

학명: 원상대로! 그러시면서 뜨거운 인간애와 지극한 정성이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백두

산에서 싸울 때 모든것이 부족하였지만 밀림속의 약초로 부상당한 동지들을 치료해서 조국해방전쟁에 다시 내세웠다고 하시며 주저하고있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습니다.

**국철** : 백두산녀장군님!— 흑흑.

**녀투사** : 그러시고는 원장선생이 직접 평양으로 가서 수술에 필요한 항생제와 혈장을 비롯한 약품을 가져오라고 일일이 가르쳐주시며 승용차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국철** : 승용차를 말입니까?

**면인민위원장** : 저희들이 승용차를 보내면 이제 떠나셔야 할 먼길을 어떻게 하시는가고, 다른 차를 구해보겠다고 말씀드리자 일없다고, 나라의 기둥인 청년의 구만리 앞길,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서라면 천만리 험산길을 걸어도 락으로 여기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윤실** : 그러니 하늘에 대고 바라던 귀인은 바로 백두산녀장군님이시였습니다. 백두산녀장군님!

**국철** : 저같은 철도로동자가 뭐라고 이렇게 하늘같은 은정을 베푸시여 재생의 언덕에 세워주시고 끊어질번 한 구만리 앞길을 펼쳐주시는것입니까, 백두산녀장군님!

**모두** : 백두산녀장군님!

**국철** : 정녕 백두산녀장군님은 해방의 첫봄날에 따사로이 비쳐내리는 소생의 봄빛, 사랑의 봄빛이십니까!

**모두** : 사랑의 봄빛이십니까!

△뜨겁게 울리는 음악.

**녀투사** : 여러분, 백두산녀장군님께서 여기로 나오게됩니다!

**모두** : (달려나가며) 백두산녀장군님!

△환희에 찬 음악. 무대배경에 군복을 입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밝은 모습이 정중히 모셔진다.

△걱정에 넘친 만세의 환호 오래오래 고조된다.

## 약 속 하 자 요

### 리 동 수

9월에도 초닷새에  
년간계획 넘쳐했다고  
가슴가득 꽃다발을 안겨주며  
직포공 내 모습 사진에 담아주어요

작업반에 또 한명  
년간계획완수자가 늘어났다면  
반장도 반원들도 기쁨에 겨워  
축하의 인사말도 살뜰한 이날

우리 약속하자요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에 세워주신  
아버이자장군님의 크나큰 믿음  
심장마다에 새겨안던  
그날처럼 살자고 약속하자요

아침에도 이른아침  
우리 공장에 찾아오신 장군님  
우리가 짠 천들을 만져보시며  
이 천으로 옷을 해입으면  
거리가 환할것이라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장군님 그러보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애써온  
그날을 생각하며 약속하자요

다시 한번 약속하며 그려보자요  
철따라 계절따라  
시부모들의 새 옷감을 고르며  
기쁨에 겨워할 마음씨도 살뜰한  
며느리들의 밝은 모습

내 사위 내 며느리  
잔치날 옷감을 고르며  
즐거움에 겨워 행복에 겨워  
웃음꽃 활짝 피울  
이 나라 어머니들의 그 모습

거리가 환하게 새옷을 펼쳐입고  
강성국가의 제일 큰 명절  
4월의 봄명절을 맞이할  
그 환희에 넘칠 그날을 그려보자요

우리 이날에 굳게굳게 약속하자요  
우리모두 년간계획 앞당겨끝내고  
장군님께 기쁨드릴 날들로  
내 나라의 날과 달을 맞이하자고  
인민들의 옷감을  
우리가 다 맡을것을 약속하자요

## 참된 명사수의 비결에 대한 다채로운 형상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3) 《명사수》에 대하여—

김 순 립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는 수령결사옹위의 귀감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매혹의 정이 뜨겁게 끓어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3) 《명사수》에는 백두산의 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명사수로서의 높은 권위와 또 경위대원모두를 수령결사옹위의 명사수로 키워가시는 어머님의 형상을 다양한 생활화폭으로 감동깊이 그리고있는 작품들이 실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생활속에서 체질화되고 공고화된다. 생활을 떠난 인간이란 없으며 생활속에서 인간의 아름답고 고상한 품모가 형성되며 습성화, 보편화된다.》

우리의 혁명투쟁과 생활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꽃피우는 화원이며 신념과 량심, 도덕적풍모를 튼튼히 키워주는 터전이다. 수령결사옹위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도 우리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속에서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공고하고 굳건한것으로 다져진다.

단편소설집 《명사수》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창조의 창작원리가 훌륭히 구현된 작품들로 묶여져있다.

단편소설집에 관통되어있는 총적인 주제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과 투철한 정신은 수령결사옹위의 명사수들을 키워내신 풍만한 자양분이며 마를줄 모르는 영원한 샘이라는것이다.

작품들에서 제기하고있는 이러한 사상주제적지향은 각이한 운명을 지닌 인간들의 생활과 그들에 대한 성격적해명을 통하여 박력있고 감동적으로 형상되고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나라가 갓 해방된 환경에서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호위를 직접 담당하고있는 경위대원들을 수령결사옹위의 명사수로 키워내시는 백두의 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에 대한 형상이다.

단편소설 《명사수》(김정길 작)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경위대사업을 보살펴주시는 생활을 취급하면서 명사수가 아닌 경

위대원은 수령을 무장으로 옹위할수 없다고 하시며 경위대원들을 명사수로 키워내시는 생활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경위대장 송대현의 시점을 통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우리 수령님의 신변을 보위하고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느라고 밤낮이 따로없이 일하시고도 경위대사업을 보살펴주시는 감명깊은 사실을 뜨거운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녀사께서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는 수령님을 배웅해드리시고 경위대에 가셨을 때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경위대원 유명보가 무산에서 온 약혼녀를 그길로 돌려보낸것이며 토요일마다 진행하게 되어있는 실탄사격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무기분해결합으로 대처하고만것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사실을 놓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을 모시는 경위대원은 누구보다도 인간성이 풍부하고 뜨거운 인간애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더우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위대원들의 사격술을 높여주시기 위하여 친히 정해주신 토요일실탄사격일과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어긴것은 아직도 이들의 사상정신속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똑바로 간직되어있지 못했기때문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였다.

이때 송대현의 가슴속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건당, 건국, 건군로선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에서 사업하시다가 평양에 올라온 다음날 아침에 경위대부터 찾으시여 하신 말씀이 뜨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저도 오늘부터는 동무들과 같이 장군님을 호위하는 경위대원이 되겠어요. 위대한 장군님을 목숨으로, 총대로 옹위하는 사업은 어제든 오늘도 래일도 그리고 먼 후날에도 변함없는 우리 경위대원들의 성스런 임무이니깐요.》

송대현은 경위대원의 본분을 잊고 실탄사격일과를 집행하지 못한 자신을 날카롭게 질책하며 혁명의 총대를 더 역세게 틀어쥐고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작품은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

가장 숭고한 본분앞에서는 단 한치의 드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강조하면서 토요일 실탄사격훈련장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이끌어간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몸소 사격훈련의 시범을 보여주시고 유명보를 비롯한 경위대원들에게 명사수의 비결을 가르쳐주신다.

경위대원들은 명사수가 꼭 되어 위대한 장군님의 참된 친위대원이 되고야말겠다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슴가슴에 새겨넣으며 훈련에 모든 정열을 다 바쳤다.

그후 두달이 지난 어느날 경위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모시고 사격을 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이날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산에 사는 유명보의 약혼녀 선희를 친히 부르시고 어버이수령님앞에 소개해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 알만 하오. 전에 무산 집소식도 전하고 명보동무가 사격하는것도 보고싶어 왔다가 한시간만에 내려간 처녀동무로구만. 잘 왔소.》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두분의 위대한 인간들의 사랑을 받으며 선희는 자기 약혼자인 유명보의 사격을 두근거리는 심장을 조이며 보고있었다. 목표를 다 맞히자 모두 기쁨에 겨워 어쩔줄을 모른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선희에게 명보동무는 장군님의 신변을 총대로 옹위하는 참다운 경위대원이 되자면 반드시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되어야 한다는 굳은 결심과 높은 자각을 가지고 훈련에 모든 정열을 깡그리 쏟아부었다고 말씀하신다. 이윽고 경위대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사격해주실것을 간절히 요청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모두가 바라는데 꼭보라고 하시며 목표는 저 하늘에 감도는 새매라고 지정해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사격좌지에 나가시여 목표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자 새매가 툭 떨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명사수가 다르긴 다릅니다. 정숙동무의 사격술은 백두산에서 싸울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 사격술은 아마 앞으로든 변함이 없을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작품의 절정을 이루는 이 대목에서 송대현은 자기의 가슴속 진정을 이렇게 터친다.

(아, 장군님께 무한히 충직한 김정숙동지, 조국해방의 성스런 뜻을 안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는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군님께 오직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시는 조선의 참된 혁명가!)라고.

이것은 단편소설의 총적인 사상미학적주장에 대한 예술적해명인것이다.

이렇듯 단편소설 《명사수》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경위대원들에게 수령결사옹위의 명사수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간직하고

온 정열을 쏟아부을 때 이루어질수 있다는 사상을 그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신 뜻깊은 형상을 감명깊게 창조하고있다.

단편소설 《봄언덕》(김길손 작)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항일투쟁의 나날 명사수였던 항일유격대원의 아들인 일혁이를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주시고 명사수로 키워주시는 숭고한 형상을 그리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옛 전우인 문경남의 아들인 문일혁은 위대한 어머님의 품에 안겨 학원에 오게 되였다. 학원에서는 다가오는 첫 실탄사격을 앞두고 조준련습을 맹렬히 진행하고있었다. 그런데 일혁이는 망탕 훈련하면서 자기 아버지도 명사수였는데 자기 눈도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진짜 총을 쏠 때에는 우를 맞을테니 걱정말라고 으시대기만 하였다. 그래서 비판모임이 날카롭게 진행되였다. 여기에 고향한 일혁이는 온다간다는 말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며 끝내 일혁이를 찾아내신다. 어머님께서 그가 부모를 잃고 방황하다가 쏘만국경 산간오지에 건설한 화학공장에서 왜놈들의 비인간적인 만행에 의하여 고육을 당하며 유해가스에 의해 눈이 상했다는것을 아시게 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친어머니가 되시여 이롭난 안과의사들을 다 찾으시여 일혁의 눈을 소생시켜주시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사격훈련에 모든것을 다 바쳤으며 총대로 어떻게 어버이수령님을 보위하였는가를 이야기해주시고 이지러진 그의 뒷에 백두산빨찌산의 총대를 물려받을 혁명의 계승자라는 자각과 신념을 심어주시고 키워주신다. 세파에 부대끼며 방황의 행로에서 성격이 거칠어지고 이지러져 학원동무들과의 관계에서도 엇드레질을 잘하던 일혁이는 위대한 어머님의 사랑과 교양, 믿음속에서 자신을 점차 뉘우치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명사수로 준비되게 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총 한자루한자루에는 백두밀림의 눈보라를 헤쳐오던 그 나날 조선혁명의 심장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목숨바쳐 지켜싸운 부모들의 뒷과 소중한 녀원이 담겨져있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 어모서갈 불타는 각오를 안고 혁명가유자녀들인 동무들이 이 총대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장군님의 안녕도, 내 조국의 앞날도 총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각할수 없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부모들이 넘겨준 이 총을 역세게 틀어잡고 총대의 주인들로 곳곳이 자라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

참으로 여기에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가장 높고 빛나는 새로운 사랑의 세계, 일척이를 비롯한 유자녀들을 총대의 주인으로 키워내는 가장 고결하고 위대하며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세 차게 맥박치는 것이다. 하여 독자들은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세계는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샘줄기처럼 우리 총대의 숲을 무성하게 가꾸어가리라는 신념을 간직하며 어머니의 그 숭고한 뜻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내 조국강산에 현실로 빛나게 실현되고있음을 긍지높이 사랑하게 된다.

단편소설 《래일》(조상호 작)은 갓 해방된 때 간리에 립시 자리잡고있는 혁명자유가족학원 원장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과장과의 관계를 통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옛 전우의 아들인 류상철원아가 백두산의 총대를 땀땀이 잡을수 있도록 준비되지 못하여 인민군대입대를 승낙하지 않은것 같다는 뜻밖의 계기를 조성하고 혁명가유자녀들을 아버지, 어머니들의 뒤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는 총을 잡겠다는 그 가룩한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고 꽃피워 주시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고있으며 단편소설 《총잡은 어머니》(송병준 작)는 남조선에서 온 녀류화가 변설화와 조각가 문석준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김정숙동지이시야말로 조선의 가장 훌륭한 어머니의 전형이시라는것을 통감하고 《총잡은 어머니》를 필생의 창작과제로 설정하는 특색있는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변설화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미 안면이 있는 문석준조각가의 도움을 받아 학원건설에 나가계시는 어머니를 만나뵈옵고 한없이 매혹된다. 더우기 항일의 명사수로 빛나시던 어머니를 사격장에서 만나뵈게 되고 원아들의 일치한 요청에 의하여 사격을 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그의 뇌리에는 섬광같은것이 번쩍이었다. ...총을 잡고 사격하시는 녀사님의 모습,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한 거대한 포용력으로 온 천하를 안고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녀성들을 위해 원썬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과 철추를 내리시는 백두산의 녀장군... 마침내 설화의 가슴속에서는 격랑이 일었으니 《총잡은 어머니》! 새로운 창작적경감을 발견한 설화는 행복의 무아경에 빠져 걱정애 넘쳐 어머니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고심하던 작품의 성공만이 아니라 새 조선의 화가로서 자신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 감동적인 화폭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뜨거운 어머니들의 모든 자애와 사랑과 미덕을 다 지니시였을뿐아니라 적들에게는 가장 무자비한 징벌과 철추를 내리시는 백두산의 녀장군이라는것을 감동적인 대조적형

상속에 뚜렷이 형상하고있다.

×

단편소설집 《명사수》는 또한 김정숙어머님은 압박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참된 삶을 마련해주시는 행복의 은인이시며 사랑의 생명수를 안겨주시는 영원한 우리 어머니이시라는것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집에 수록되어있는 단편소설들은 자기수령과 혁명, 자기 인민과 동지들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을 지닌 사람만이 혁명의 원썬들을 섬멸하는 명사수가 될수 있다는것을 다양한 생활적계기와 인간관계속에서 감동깊이 형상하고있다.

단편소설 《보석》(류정옥 작)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혁명동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진정 보석처럼 빛난다는 사상정서적주장을 형상적으로 해명하고있다.

참으로 김정숙동지께서 동지들과의 관계에서 지니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그것이 땅속이고 물속이고 불속이라 해도 보석과 같이 불변하는 마음이었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마음이었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어머니의 형상을 《민생단》 혐의자로 몰리어 억울한 죽음을 당할번 한 봉철이를 구원해주시는 생활을 통하여 뜨거운 걱정속에 창조하고있다.

일제놈들의 《토벌》대에 의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참혹하게 잃은 봉철이는 총을 잡고 원썬을 갚고싶은 생각이 날에 날마다 더욱 사무치게 솟구쳐올라 총을 구해가지고 유격대에 받아달라고 떼질을 쓸 심산이었다. 어느날 근거지에 《토벌》대가 달려들었을 때 대렬을 슬쩍 빠져나와 전장으로 달려가 총을 빼앗으려던 봉철은 총을 든 왜놈을 당해낼수 없어 필사적으로 피신하려는데 아동단체임자 김정숙동지에 의하여 구원된다. 이것이 바로 봉철이로 하여금 《민생단》 감투를 쓰게 된 결정적 《근거》였다. 종파사대주의자인 황치도놈은 봉철이를 《민생단》으로 락인하고 사형선고를 내리려고 그를 군중심판대우에 내세웠다. 군중들은 누구라없이 억울해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들쭉위질 혐의가 두려워 한결음도 나서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다.

이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나는 봉철동무를 나처럼 믿는다, 그가 《민생단》이라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나는 그가 일본놈의 총구앞에서 죽기내기로 쫓기는것을 직접 목격했고 그를 구원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증할 사람이 없다는 황치도놈에게 우린 누구의 보증을 받고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이 아니다, 왜놈들에게

사랑하는 조국과 부모형제들을 다 빼앗긴 원한이 뼈에 사무쳐 그대로는 살수 없기에 **김일성**장군님을 따라선 장봉철이고 김정숙이라고 하시면서 죽을지 언정 원쑤의 개가 될 너절한 바보들이 아니라고 추상같이 말씀하신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엄습하며 발악하는데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내 봉철을 구원하신다. 어머님께서 《우리 소년선봉대원들은 엄혹한 혁명의 길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혁명동지들이예요. 서로 위하고 아껴주며 혁명이 요구한다면 동지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라고 하시면서 동지호상간에 가장 중요한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돈이나 재물은 쓰면 없어지지만 마음은 쓰면 쓸수록 보석처럼 빛이 난다고 일깨워주시었다.

작품은 봉철의 체현세계에 대한 개방을 통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이러한 동지에 대한 참다운 사랑이야말로 간고했던 혁명의 길에서 없어서는 안될 무기였고 량식이었으며 피줄과도 같은 동지애의 결정체라는것을 격정적으로 주장하고있다.

이밖에도 단편소설 《품》(김금옥 작), 《봄의 서곡》(강복례 작), 《삶의 환희》(최양수 작) 등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탓에 인간의 참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수난당하던 사람들을 새로운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매한 품모를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품》은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저승에 가서라도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싶어하던 윤금선을 금강산휴양소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그의 애인까지 금강산에 오도록 하시어 사람값에 못 가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마련해주시는 이야기를 극적인 인간관계와 풍부한 생활적화폭의 창조로 예술적으로 힘있게 부각하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세우고계시기에 술집에서 천대받던 금선동무도 금강산의 주인이 될수 있었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 모두를 따뜻이 품어줄 사랑의 품은 다름아닌 **김일성**장군님의 품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휴양소를 떠나실 때에는 흰 저고리와 까만 치마 한벌을 주시며 친언니가 주는것으로 알고 받으라고 하신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양료리사로만 알고있던 금선은 그분이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녀사이시라는것을 알고 그리도 겸허하고 소박하신 어머니를 부르고 또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작품은 마감대목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안아주고 품어

주고 운명을 지켜줄 품, 이 나라 인민이 안긴 사랑의 품,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이 있다는 크나큰 행복의 눈물이었다.》

단편소설 《봄의 서곡》, 《삶의 환희》 등도 나라를 빼앗긴 탓에 각이한 운명의 곡절을 겪으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위대한 사랑의 한품에 안고 시고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인덕의 화신, 사랑과 믿음의 화신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격정적인 화폭에 아로새기고있다.

단편소설집 《명사수》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다양한 생활적계기와 각이한 정황에서 인간의 운명문제를 취급하고있지만 모두가 생활속에서 체험되고 발양되는 주체형의 인간의 최고귀감의 성격을 창조하고있기때문에 형상적감화력이 크다.

특히 모든 작품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함에 있어서 그이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리고있으며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혁명의 수령에 대한 열렬한 충정의 바탕에 깔려있는 강毅한 신념과 한없이 순결하고 고상한 인간사랑의 세계를 깊이있게 개방해줌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 《명사수》는 취급된 모든 생활과 작품의 사상정서적지향이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구현하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시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한평생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바치신 어머니의 한생을 생활적인 형상속에 감수할수 있게 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귀중한 정신적량식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작품집의 모든 형상적화폭을 통하여 혁명의 총대를 굳게 틀어쥔 전사는 어머님처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자기 조국, 자기 인민, 혁명동지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고결한 마음을 지녀야 하며 그렇게 될 때만이 명사수가 될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가슴에 새겨안게 된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녀원이 붉게 피어난 우리 나라는 오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펼치며 강성국가의 빛나는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선군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어머님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따라 수령결사옹위의 명사수의 대오로 굳건히 다져졌으며 강성국가의 새 언덕으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이 영광의 대오와 함께 어머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업적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것이며 **김일성**민족의 무궁번영과 함께 길이 영생할것이다.

##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며

배경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추억이 있으며 늙으면 추억속에 산다고 한다. 그 추억이 어떠한가에 따라,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할수 있다.

나는 얼마전 이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을 앞두고 거리의 곳곳에는 람홍색공화국기발들이 휘날리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대형 구호가 나붙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나는 그 구호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 한 어머니를 만났다. 그 어머니는 몇년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어머니의 오랜 전우였다. 이제는 90이 넘었으나 아직 기력이 정정한 그 어머니는 나를 보자 와락 부둥켜안고 볼을 비비며 친자식이라도 만난것처럼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어머니를 꼭 닮았구나.》

마치 우리 어머니를 만난것처럼 반가와하는 그 어머니를 보니 나도 눈곱이 뜨거워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온 가족을 원쑤들에게 잃고 혈혈단신으로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당을 믿고 한생을 변함없이 꿋꿋하게 걸어온 그의 생애에 대하여 어머니가 하던 이야기들이 새로이 되새겨지며 가슴을 쳤다. 남조선에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으며 싸워온 그에 대한 이야기는 진정 감동 없이는 들을수 없는것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었을 때 서울시인민들은 모두가 떨쳐나 거리와 골목마다에 바리케트를 쌓고 인민군대와 함께 적들을 막아내기 위한 결사전에 나섰다. 녀성들도 판가리싸움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시 녀맹일군으로 사업하던 그 어머니에게는 어린 두 자식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는 자기 사업을 제대로 할수 없었다. 그래서 남편과 토의하고 아이들을 친정집에 보내기로 하였다. 그래서 아이들을 역에서 가까운 만오빠의 집에 데려다주면서 친정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적들이 가까이 밀려들고 전선형편은 날이 갈수록 긴장해지던 어느날.

그 어머니는 어느 동에 선전사업을 하고 돌아오던 길에 만오빠의 집앞을 지나게 되었다.

이제는 아이들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하며 그 집 문고리를 잡는데 뜻밖에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방안에서 들려오는것이였다.

《어어엄마야— 어엄마아아—》

너무 울어서 목이 쉰 목소리였다.

순간 숨이 떡 막히는것 같았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다섯살난 아들이 두살난 녀동생을 부둥켜안고 울고있었다.

아, 그때 찢어지는듯 아픈 가슴!…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엄마가 여기 있다.》고, 애들을 부둥켜안고 뺨을 비비고 쓸어주고 안아주고 싶었다. 어느새 목이 메고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굳어져 움직일수가 없었다. 며칠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한 아이들이 자기를 보면 떨어지려 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때렸던것이다. 그렇다, 아이들은 떨어지지 않을것이고 그러면 자기의 마음에도 동요가 일어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직에서 준 파업, 군중을 묶어세워 원쑤와의 판가리결전으로 조직동원할데 대한 파업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아, 인민의 나라,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세우신 내조국을 지켜내기 위한 파업이였다.

오열이 터져나왔으나 이를 악물었다. 애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이제 후날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 공화국이 승리하는 그날 내 너희들을 실컷 안아주마!… 후에 안 일이지만 정세가 긴장해지면서 형님도 녀맹사업으로 바빠 애들을 보낼 틈을 내지 못하고 집을 거의나 비우다싶이 했던것이였다.

피눈물을 뿌리며 그 어머니는 끝내 발길을 돌리였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식들과의 영원한 리별이 될줄 그때는 알지 못하였다.

그후 후퇴의 길에 오른 그 어머니는 평양에서 뒤늦게 북으로 들어온 사람을 통하여 자식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어린것들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원쑤놈들에 의해 생매장당했다는 치떨리는 소식을…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으랴. 그러나 그 어떤 슬픔도 고통도 그 어머니를 쓰러뜨리지는 못하였다.

그 어머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꾹꾹이 일어섰으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변함없

이 혁명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오늘도 오로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우리 당, 우리 공화국만  
을 믿고 따르며 후대들을 변심을 모르는 충정의  
한길로 이끌고있다. ...

거리의 여기저기에서 람홍색 공화국기들이 휘  
날리고있다. 가없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기세차  
게 펄펄 휘날리는 우리의 기발. 소중한 저 기발을  
위해, 귀중한 우리 공화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흘  
뿔한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것을 주저없이, 아낌없  
이 바쳤던가!

우리는 알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사랑하는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을 상징하는 저 람홍색공화국기에 얼마나 많  
은 선렬들의 고귀한 녀과 붉은 피가 깃들어있는가  
를, 전체 조선민족의 아름다운 희망과 절절한 녀  
원이 깃들어있다는것을!

그 어머니는 말하였다. 1950년 6월 28일 인민  
군대에 의해 서울이 해방되었을 때 온 서울시민들  
이 떨쳐나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얼마나 목청껏 소리높이 웨  
쳤는가를.

불현듯 내 눈앞에는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서울  
시민들의 모습이 보여온다. 하늘땅을 진감하던 그  
날의 만세소리가 심장을 세차게 울려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이 웨침이 어찌 서울시민들의 심장속에서만 터  
쳐나온것이라.

이 웨침은 침략자 미제를 죽치는 싸움터마다들  
에서, 전선의 고지들과 후방의 곳곳에서 소리높이  
울려했거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원썬들에게 학살된 애국자들이 생의 마지막순간  
에 부른 웨침도 그 웨침이었다. 그들은 그 만세를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 우  
리 공화국은 영원토록 번영하리라라는것을 믿었고  
우리 공화국의 번영으로 자기들의 생은 이어져 영  
원하리라라는것을 확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온 세상을 감싸안을듯이 기세차게 펄럭이는 공  
화국기발.

결코 무심히는 바라볼수 없는 우리의 기발이다.  
그 기발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청년 선렬들이 이 기발을 가슴에 품고 이 구호  
를 부르며 심장을 불태우던 그 열정이 내 심장속  
에서도 끓어번지고있는가?...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고있다. 그러나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가 영원하듯이, 우  
리의 공화국기발이 영원하듯이 선렬들의 웨침에  
담겨져있던, 뜨거운 심장에 불타던 그 희망과 녀  
원, 그 신념과 의지, 결사의 각오는 영원해야 할  
것이다.

나는 돌이켜본다. 과연 내가 나의 부모들처럼,  
그 어머니처럼, 선렬들처럼 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그렇듯 뜨겁게 심장을 끓여왔는가고.

그리고 맹세다진다. 비록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  
하지만 이제라도 선렬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선렬들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들이 나를 보며 만  
족한 미소를 짓기를 바라며 인생의 길을 더 억세  
게 걸어나가려 한다. 하여 먼 후날 오늘을 돌이켜  
볼 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사회  
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에 자신을 바쳤다는 떳떳  
한 추억의 소유자가 되고싶다.

## 단 시

# 꽃 에 대 한 단 상

김 경 남

출근길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  
이 몸 감싸안아 가슴적서주누나  
내 사람들 마음속에 향기되었던가  
일군의 인정미는 향기라고 하신  
장군님말씀대로 내 한생 향기되리

×

한계절 한날한시 한뜨락에서도  
태양을 향한 아지에 꽃이 먼저 피더라  
태양이 빛나고 총대로 비바람 막아주는 내 조국

태어나는 인생들 태양만 따르는 삶이어서  
그 삶의 꽃 만첩으로 활짝 피여 향기질더라

×

이 세상 피는 꽃 천가지 만가지  
꽃을 보며 하는 생각 서로 다르련만  
평도자는 꽃을 보며 인민의 행복을 생각하고  
인민은 꽃을 보며 평도자의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랑과 충정의 꽃이 피는 나라는 내 나라뿐인줄  
아노라



# 비 날 론

주 명 옥

## 머 리 시

낮에도 밤에도  
꺼질줄 모르며 타오르는  
불노을 불노을  
비날론지구의 붉은 노을  
한쪽의 그림인양  
아름답게 비껴실고  
동해로 흘러흐르는  
성천강 성천강  
사랑하는 고향의 강아

아, 내 오늘  
너의 맑고도 유유한 흐름우에  
비날론의 새 력사 실으련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전설같은 그 이야기  
뜨거운 노래로 실어 길이 전하련다

## 1장. 비 날 론 이 돌아간다

—비날론이 돌아간다!  
—비날론이 돌아간다!  
아직은 조국이  
전파로 날리지 않은 그 보도

허나 현대화의 세찬 열기로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들끓던  
온 비날론지구  
삼시에 퍼져가던 그 소식

즐거움이였다  
통근생들로 늘 봄비는  
통근차칸에서도  
서로 인사말처럼 먼저 주고받던...

환희였다  
거리거리에서  
फलफल에서  
그리고 집집에서  
봄바람처럼 싱그러이 나돌던...

고난의 나날의 찬서리에  
숨죽있던 공장이 활기에 넘쳐  
환희의 열풍을 호흡하며  
바야흐로 고고성을 터칠 그 소리

겨울을 이겨내고  
맞이하는 새봄인양  
기어이 시련을 물리치고  
비날론을 안아오던 나날

불꺼진 카바이드로 굴뚝  
때없이 뼈아프게 바라보던  
어른들의 마음에도  
아이들의 가슴에도  
아, 그 소식 어찌  
삶의 기쁨으로 줄달음치지 않으랴

×

비날론을 뿔는다—  
비날론을 뿔는다—  
하냥 들뛰는 그 생각  
창공을 날르는 새의 나래인양  
가슴을 휘젓는 시운전의 아침

알른알른  
기대마다 알심을 들이며  
몇번이나 닦고 또 닦는거냐  
얼굴엔 땀방울 송골송골 내뿜혔어도  
눈가엔 기쁨이 찰랑이는 봄애

크지 않은 키에  
몸집도 체소한축  
그리고 드물게  
빙그레 웃음을 짓곤 하는  
동글나부죽한 얼굴

생김새처럼 차분한 성미였어도  
옳다고 생각한 일에서는  
호락호락 굵어들지 않는

강인한 녀인  
30여년을 하루같이  
방사공으로 일해온 그

세월의 속일수 없는 흔적이나  
흰빛이 엿보이는 귀밑머리  
어느덧 50대에 들어선 그  
하지만 오늘은 처녀시절 되찾은듯  
일손도 날렵하구나

—은희!  
스위치!  
마침내 울리는  
직장장의 걸걸한 목소리  
지휘관의 구령처럼 짧았다

은희 그는 지난해 가을  
병사배낭을 메고  
공장으로 온 제대군인  
담차기로 소문났던 교사총중대 사관장  
오늘은 스스로 방사공이 된 처녀

그러나 지금  
그는 굳어진듯 서고만 있다  
스위치단추우에  
조용히 손을 가져다댄채...

웬일이냐 그러도 당돌하고  
그러도 씩씩한 처녀라고  
온 직장이 칭찬하는 그가  
그만 자기를 잊은듯 서고만 있으니

그러나 그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는 성봉이  
그는 방사직장의 수리공  
은희와 남다른 사이  
이제는 온 직장이 다 아는 사실

버릇처럼 깜빡이는 눈  
그는 마음 조급해서인지  
더 자주 깜빡거리누나  
그러나 자그마한 입모습으로  
더 귀염성스러워보이누나

안타까움에 불붙는  
그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젠장 땀방울이같은거

차돌처럼 단단한 젊음이  
욱하여 한발 내짚는데

재차 현장을 울리는 직장장의 큰소리  
—은희! 뭘해!  
빨리 스위치를 넣어야지  
그 순간 은희의 긴장한 눈길  
봉애의 눈길과 마주친다  
번쩍—

그제야 은희  
자기를 깨달았는가  
천천히 몸을 수그린다  
높뛰는 방사공들의 심장의 박동을  
스위치에 이어놓듯  
힘껏 단추를 누른다

웅... 사르릉  
흐르는 전류에  
기쁘게 화답하는 소리  
방사기 돌아간다!  
방사기 돌아간다!  
그리도 야속하게  
방사공들의 속을 태우던...

약속이나 한듯 방사기들 일시에  
싱싱한 활력을 내뿜으며  
기운차게 돌아가는데  
후두둑 들뛰는 가슴  
몸부림으로 녹잡히려느냐

기대를 그러안고  
어린애마냥 호느끼는 채금이  
그는 오랜 기능공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선  
지금 남다른 자책의  
큰 회오리가 일거니

한달도 아니고... 한해도 아니고...  
몇천날로 이어지던 고난의 세월  
누구나 다 그러했지만  
우리 녀인들 더 견디기 힘든 그때

하루밤에도 그 몇번씩이나  
고പ്പെ치는 고민과 동요  
끝내 눈물을 머금으며  
스스로 일터를 떠났던

씻을수 없는 그 아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서는 봉애  
들먹이는 그의 어깨  
다정히 어루쓸더니  
채금의 두손 잡아 일으킨다

맑은 거울속을 들여다보듯  
젖은 눈길로  
오래도록 서로 마주보는 그들  
살뜰히도 달래는가  
고르로이 울리는 방사기의 동음

—이 기쁜 날  
눈물은 왜  
이리도 헤쳐진담...  
하면서도 또 눈굽을 훔치는 봉애  
그리고는 다시 채금을 꼭 부둥킨다

몇해만에 들어보느냐  
잠결에도 못 잊어  
꿈속에서도 쟁쟁히 울려오던 방사기소리  
떠나 못살 일터의 그 숨결소리

정녕 그것은 방사공의 웃음이였고  
방사공의 노래!  
그리고 그것은  
로동의 기쁨이였고 창조의 환희

아, 진정 그래서 아니더냐  
모진 시련속에서도  
버틸수없이 더 소중해지고  
빼앗길수없이 더 귀중해진  
삶의 전부로  
그리도 가슴깊이 간직된것은...

이 기쁜 날  
부디 말리지 말자  
마음껏 눈물을 쏟게  
모진 아픔이 서리였던  
방사공들의 가슴가슴  
하냥 맑게도 씻기게!

## 2장. 고난의 전리

식량난  
연료난...

고난의 추억은  
이 기쁜 날에도  
눈굽이 저리게 비껴들었다

원썩들의 끈질긴  
봉쇄의 포위환속에서  
불꺼진 보이라들이며  
얼어든 배관들  
그리고 벗어선 방사기들...

그때부터  
노래처럼 울리던 방사기동음  
들려오지 않았고  
웃음처럼 쏟아져내리던 비날론  
안아볼수 없었다

그 나날속에  
또 삼년이 흘러간 어느날  
우수수 비바람에  
구내의 버들잎이 훑날리던 그날  
채금이 공장을 떠났다

말리고 붙잡고  
그리고 설복도 하며  
정문밖까지 따라서더니  
그만에야 지친듯  
한자리에 못박히는 봉애

눈굽이 아리도록  
차랑차랑 차오르는 눈물  
앞을 가리워서인가  
점점 작아지며 사라지는  
채금이!

뇌리를 치던 그의 마지막말  
—봉애 나도  
방사기를 떠나고싶지 않아  
그리고 너와도...  
하지만 공장이 벗어있으니... 날 용서해

허둥지둥  
도망치듯 달려가는 그 뒤모습에  
이윽히 눈뿌리 박고 서있는  
봉애의 쓰린 가슴  
아, 이렇게 떠나야 하는가

전후에 지은 첫 림시살림집

한동 여덟세대 낮은 처마밑에서  
그들은 쌍둥이처럼 태어났다  
구내탁아소시절도  
그리고 학교시절도  
그들은 늘 함께 자랐다

어찌 그뿐이라  
아버지들도 룡홍벌에  
한날한시 제대배낭을 푼 사이  
수령님 잡아주신 비날론공장터전에  
건설의 첫삽을 박은 개척자들

그래서인가 한줄에 켜듯  
늘 동동 물어다니던 그들  
희망도 달리 되지 않은것은...  
아버지들 소원대로  
꼭같이 방사공이 된것은...

카바이드전로공인 봉애의 아버지  
증기보이라열관리공인 채금의 아버지  
그날부터 얼마나 극성이었더냐  
잘 익은 합격짜리 카바이드를  
만압인 질 좋은 증기를  
딸들에게 승벽내기로 보내며...

수령님 오셨던 못 잇을 그날  
방사직장을 찾으신  
아버이수령님앞에  
꽃다발을 들고 나섰던 딸들  
그들로 하여 하늘끝에 닿았던  
아버지들의 자랑!

딸들이 뽑아내는  
따스한 비날론의 은빛 흐름  
제일 큰 기쁨이고  
더없는 보람이라던  
그 아버지세대가  
물려준 아, 이 일터

채금이가 떠나다니?  
어쩌면... 어쩌면...  
아니 그럴수 없어!  
아니야 그럴수 없어!

봉애 장군님이 그리웠다  
정말 뵈고싶었다  
어서 그이께 안타까운 심정 다 아뢰이고

엉엉 소리내어 울고도 싶었다

그리움이 북받쳐올라  
뜨거운것이 두볼을 타고 흐르는데  
그의 가슴속에선 저절로  
조용히 노래가 울린다  
...

새들은 저 산넘어 어디로 가나  
보금자리 정다운 품으로 가네  
내 마음 훨훨 어디로 가나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우리들이 없는 일터에  
장군님 오시면 얼마나 섭섭해하실까  
내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마음 더욱 굳히는 봉애

×

그날도  
숨죽은 기대결에서 속만 태우다  
맥빠진 걸음으로  
집에 들어서는 봉애

며느리의 축 처진 어깨 바라보던 시어머니  
한창 뚫고있는 죽가마  
다시 휘저으며  
답답한듯 힐책한다

—아에민  
아예 집안살림을 그만둘셈이냐?  
그리고는 발앞에 밀어놓는  
낮익은 보자기

봉애 어찌 모르랴  
며칠전 퇴근길에 만난 채금이  
그가 안겨주던것임을...  
배반당한 쓰림으로  
얼결에 거절한것임을...

몇발자국 지나쳐서야  
가슴속에 자리잡던 후회  
—아니야 채금인  
지금 얼마나 힘들다구  
사내애들 넷씩이나 달렸으니

그러나 다시 돌아설 용기  
그에게는 생기지 않았다  
구름장름으로 비졌던 해살 다시 숨어버리듯  
노여움의 파도에 리해의 빛줄기는 사라졌다

—어떻게 공장을 뜯수가 있어?  
그날 홀로 걸으며  
몇십번이나 곱씹어본  
봉애의 그 울분  
낮익은 그 쌀보자기 용서를 빌듯  
지금 발앞에 놓여있는데...

다친 허리로 오래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남편  
항시 말없던 그도 한마디  
—공장이 가망이 있을것 같지 않다고 하지만  
신심을 가지고 일하지요  
요즘 당신의 얼굴이 말이 아니요

하지만 봉애 남편의 말이 고맙지만  
한마디 말도 없구나  
천만근 무게가  
너인의 입을 눌러버렸더냐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는 밤

등잔불아래서  
숙제를 하던 아들에  
엄마의 킁킁한 낮빛  
울먹울먹해 쳐다보더니

품에 와락 안기며  
살을 저미듯 묻는다  
—엄마 아이들이 그러는데  
이젠 공장을 아예 못 돌린대요  
아니지요? 예?...

그밤 눈물만이  
아픈 가슴 달랠수 있었느냐  
피로운 마음 씻을수 있었느냐  
창문이 흰하도록  
이불깃만 적시고적시는 봉애

다음날 아침  
일하러 나가는 안해에게  
온밤 함께 잠 못들던 남편 살뜰히 하는 말  
—여보 집일은 너무 걱정마오  
우린 비날론공장의 당원이 아니요

아, 어찌 봉애만이라  
어찌 방사공들뿐이라  
비날론공장사람들 모두  
얼마나 많은 번민의 밤들을 지나왔더냐

하지만 사람들이여  
동정의 눈길은 보내지 말자  
이런 밤들을 이겨내며  
비날론을 태우려는 시련의 찬바람 맞받아  
강철같이, 금강석같이  
굳세진 그들에게!

×

그해도  
다 저물어가는 12월  
창밖에선 함박눈이 펄펄 내리고  
하늘이 울려다보이는  
높다란 현장 천정에서도  
차갑게 눈이 떨어지는데

한해의 마지막날 그밤  
누구도 말한 사람 없었던만  
스스로 모여온 로동당원들  
오랜 기대수리공이며  
당세포비서인 우아바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선다  
당원들앞에 나선다

그리고는 한사람한사람  
마음속의 문 다 열어보는듯  
오래도록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였으나  
쫓아박듯 천천히 입을 연다

—당원동무들!  
우리가 살아숨쉬는 한  
이 기대를 꼭 살려내야 합니다  
아,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더냐  
죽어도 절대로 방사설비를 다칠수 없다는  
그 신념이 터친 우뢰...

당세포결정이라면  
어느때 어떤 일이든지  
무조건 지지해나서던  
그 심장들을 꺼내들듯

하나 둘 쳐드는 손들

평범한 날에

다 느낄수 없었던 그 엄숙함이  
떠실린 주먹들은  
결사관철의 굳은 맹세!

그날부터 기대는 벗어있어도  
기대를 돌리던 그때처럼  
어길수없이 맞물리는 3교대  
땀을 바치던 일터에  
생명도 바쳐야 하는 기대복구전!

×

불치의 병으로  
얇는 몸이었어도  
그 사연 깊이 묻어둔채  
두뿔 세뿔 묵묵히 말아나서던 우아바이

그날도 원통굴리개축이며  
고정나사못틈이며  
깐깐스레 기름을 주더니  
2층철계단 힘들게도 내리누나  
마지막 한계단 내짚지 못한채  
란간을 잡았던 손 스르르 풀린다

하루일 끝나치고  
팁팁스레 계단에 걸터앉으려는가  
그리고 땀젖은 얼굴  
목수건으로 뽁뽁 훑치고  
손때묻은 작업일지 펼치려는가

그러나 새 교대자  
성급히 다가왔어도  
아바이는 기척없었다  
그렇게 그렇게 깊이 잠든듯  
세포비서아바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집보다 더  
정을 준 일터여서  
그리도 마음 편했더냐  
얼굴에 떠도는 미소  
모여선 당원들가슴 불길처럼 태운다

오늘도 휴게실문을 열어보면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반원들앞에서 읽어주던  
그 석심한 목소리 울릴것만 같은데

한발 늦어진 출근을 두고  
전선길 헤치시는 장군님결에서  
또 10리씩이나 뒤떨어졌다고  
가슴 두드리며  
불쑥 일어설것만 같은데

그러나 지금  
너무도 조용히 누워있구나  
아, 하지만 그의 그 말은  
끊임없이 계속  
울리리라, 메아리치리라

슬픔보다  
뜨거움이 더 목메이는  
고귀함이 더 가슴치는  
그 모습앞에  
빙 둘러선 작업반원들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그래 무슨 말을 할수 있다더냐  
다만 서로 굳게 틀어쥐는  
손과 손들

그것은 것처럼  
일터를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것처럼  
로동계급의 향상  
호리우지 않으려는 각오!

—장군님만 믿고삼시다!  
늘 좌우명으로 외우던 기수  
그가 비운 앞자리에  
미덥게 억세게  
들어서리 들어서리

추위와 배고픔이 아무리 모질어도  
노즐 하나 나사못 하나  
그 누구도 빼여내지 않았노라

아, 슬픔이여  
못 잊을 고난이여  
너는 비날론사람들에게  
너무도 많은것을 가르쳤구나

참으로 소중한것을 새겨주었구나

비날론 그것은  
기어이 찾아야 할 우리 생활  
한운명처럼 모두와 이어진것임을  
집집의 아이들  
그 어린 마음에까지 새겨주었다  
비날론은 옷이며 쌀  
비날론은 집이며 학교라는것을...

그래서 사람마다  
굳혀진것 아니나  
창을 열면  
저 카바이드로쿨쪽부터 바라보는 버릇이  
자나깨나 비날론을 마음에 안고사는 습벽이...

아, 못 잊을 고난의 그 나날이여  
너는 또 가르쳐주었다!  
평범한 인간도 너를 이겨내면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는 인생의 참된 진리를

어렵고 힘겨울수록  
장군님의 그 품으로  
더욱 사무쳐 마음 달리는  
그리움의 순결한 세계를

사랑스러운 우리의 방사공들  
오늘은 기쁨에 울고웃으며  
방사기를 돌린다!  
비날론을 뽐는다!

### 3장. 비날론 마중

삶의 즙을  
깡그리도 말리우려  
찬바람 모질게 불어치던 이 땅에  
오늘은 기어이  
탄생의 환희를 터치는것이나

바라고 기다리던 마음들이  
훔-훔-  
기대마다 먼저 감기고  
떠흐름으로 먼저 흐르는 수직방사

고사포신마냥 추켜들고  
그쫘히 렬을 선 방사통들  
그안에서 수천오리의 비날론실발

분수마냥 뽐어올릴 방사노즐들

무심히 볼수 없구나  
은빛노즐들이여  
쉬이 눈에 띄우지 않아도  
너는 비날론  
그 신비세계의 열쇠!  
귀중한 너의 그 존재  
너의 운명 누가 어떻게 지켰느냐

-이렇게 덩지큰 화학공장  
오래동안 멈춰섰으니  
과연 살릴수 있겠는가?  
사람이 살고서야  
설비도 노즐도 필요한것이 아닌가?  
이것은 신념이 약한 사람들의 은근한 속심

그들의 속심대로  
비날론사람들  
그 길을 택했다라면  
배고픔을 덜수도 있었으리  
추위를 막을수도 있었으리

그러나 우리 수령님  
한평생 헌신으로 마련해주신  
나라의 재부를 어찌  
식량과 바꿀수 있단 말이나

군데군데 물웅덩이... 무성한 잡초...  
비날론공장터전을 룡홍벌에 잡아주시려  
험한 길 헤치시던 수령님모습  
지금도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는 생각이여  
옷자락에 붙은 풀씨를  
그때 털어드리지 못한 죄스러움  
진탕이 묻은 구두를  
그때 닦아드리지 못한 자책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수령님의 그 유산을 저버린단 말이나  
그처럼 비날론의 운명이  
가장 엄혹했던 그때  
로동계급의 마음을 지켜본  
아, 너 노즐이여  
아, 량심의 시금석이여  
누가 생각이나 했으랴

공장에 찾아오신 장군님  
노즐의 그 사연  
귀중히 들어주실줄  
그리고 가슴뜨거워하시줄

오래동안 보관했던 그 노즐을 두고  
거듭 나직이 외우시던 그이  
이겨낸 그 세월 다 헤아려주시는가  
—지금까지 백금으로 만든  
비날론방사노즐을 보관하고있었던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의 발현입니다  
아, 가슴치는 그날의 말씀이어

…서서히 굶니는 반응액  
그 안개발을 헤치고  
가늘디가는 수천오리의 실발  
숨었다 나타났다 하더니  
그제야 점차 또렷해지는데

길길이 솟구치기도 하고  
솟구쳤다가는 섯돌며  
그리고는 다시 실버들마냥 하느적이는데  
꿈에도 안아보던 비날론의 그 첫모습  
방사공 누가 애무하지 않으랴  
비날론사람 누가 정을 주지 않으랴

돌물이 익어 은실로 되는 모양  
신비로이 지켜보는 신입방사공  
덕화, 춘애, 옥실…  
비날론을 처음 보게 되는 흥분  
저저마다 감추지 못한다

—비날론이 저렇게 되나요?  
—우리가 정말  
비날론을 뿔을수 있을까요?  
환희와 의문이  
뒤섞이는 처녀들

—응!  
아마 꼭 될거야  
하면서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가늘어지는 봉애의 말꼬리

비날론 된다고  
어찌 쉽게 말할수 있더냐

오직 꼭 되여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만  
가슴속에선 불붙고있을뿐

—야 참 봉애동지  
방사공처녀들  
어미품에 모여드는 햇병아리들마냥  
오그그 모여드는데  
꿈에서도 뿔아보던 그 비날론이었던건만  
오늘은 어쩐지  
눈에 익고 손에 설어  
조여만지는 봉애의 마음

채금이가 있었으면…  
저도 몰래 기다려지는 생각  
밀물처럼 밀려드는 후회  
—내 잘못이었어  
모든것이…  
이제라도 꼭 데려와야 해

머리수건을 벗어  
손에 감아쥐고 떠나는데  
아, 채금이  
저기 문결에 서있구나!  
머리를 떨구고…

—어찌된 일인가?  
채금이가 제발로 오다니?!…  
이름을 막 부르며 달려가려는데  
입안에서 잦아버리는  
봉애의 목소리…

뜻밖의 기쁨앞에선  
아마도 말이 안 나오는게지  
눈물이 핑그르 앞서누나  
덤덤히 마주보기만 하더니  
두손을 맞잡아 꼭 쥐누나

그리곤 봉애  
채금의 가슴  
아프게, 아프게 쥐여박는데  
그 아픔을 타고  
어느덧 마음이 하나된듯  
서로 밝게 짓는 웃음이어

—비날론을 뿔고싶었어  
그리고 너도…



떠나기도 쉽지 않았지만  
오기도... 오기도...  
이제라도 날 받아줘...

끊기며  
다시 이어지는 그 말  
그속엔 비날론을 떠나  
맘편히 살수 없었던 그의 모대김  
축축히 배여있거니

붕애손에 이끌려  
기대앞으로 다가서는 채금  
—동무들 채금이가 왔어  
내가 몇번이나 말하던  
그 기능공 채금이...

눈물이 반짝이는 눈빛들  
신입공들 좋아라  
저저마다 그의 손을 잡는다  
—기다렸어요  
정말 고마와요

하루와 같이  
눈에 삼삼히 보여오던  
그 방사기들도  
채금을 손꼽아기다린듯  
쭉— 정렬해섰는데

품에서 떼여놓았던 자식을 끌어안듯  
방사기들을 하나하나 쓰다듬는 채금  
속죄, 행복  
엇갈린 감정이  
지금 그의 가슴에 짝 차오른다

—방사기들아  
무척 보고싶었어...  
이 못난 주인에게  
변함없는 인사를 보내주는구나  
고마워, 이젠 다시 떠나지 않으마

채금의 날랜 손동작에서  
눈길을 뺄줄 모르는 방사공처녀들  
—야 정말 멋있구나 교예사손갈네  
하지만 그들의 탄성  
아쉬움으로 바뀐다  
낮아지는 용액온도  
메여버리는 노즐

어쩔줄 몰라  
처녀들 울상들인데  
붕애, 채금  
굳어지기 시작하는 용액  
뜨거운 물로 녹이며  
작업칼로 요령있게 뜯어내누나

—성봉이  
전동기상태를 부탁해  
그리고 속도계도...  
거듭거듭 당부하는 붕애  
늘 친동생처럼 성봉이를 대해주는 그였다  
성봉이도 친누이처럼  
그를 믿고 따랐고 존경했다

성봉이!  
붕애의 첫 당세포비서  
못 잊을 우아바이의 아들이었으니  
어찌 사랑하지 않으랴

다시 돌아가는  
방사기, 방사기  
또 말썽나지 않을까  
속을 조이며 순회하는 방사공들

이렇게 이렇게 비날론을 안아내는데  
그 마음 다 헤아리셨는가  
그 모습 다 그려보셨는가  
아, 장군님  
소문도 없이 공장에 오시였다

—아니?! 장군님께서!  
붕애 꿈인가 생인가  
하늘의 밝은 빛  
여기에 다 모아온듯  
삼시에 환해지는 방사현장

너무도 천만뜻밖이어서  
미처 인사도 못 올리는 방사공들을 향해  
장군님 먼저 인사를 보내신다  
그러시고는  
붕애 가까이 오시여 다정히 물으신다  
—비날론이 지금  
어데까지 왔소?

기대와 념원에 찬

아, 그이 물으심  
그러나 그리도  
절절하게 물으시는 비날론  
저기 맨 앞공정에서  
이제야 첫걸음 내짚었으니

안타까움에 타는 마음  
죄스러움에 숙어지는 고개  
하루만 먼저  
하루만 먼저  
비날론을 뿔았더라면...

장군님 그 마음 헤아려주신듯  
—비날론의 고고성  
쉽게야 들을수 없지  
어서 함께  
비날론 마중을 가자구  
호탕하게 말씀하시며  
층수 많은 칠계단  
몸소 앞장서 오르시는데...

계단이어  
비날론공장의 층층계단이어  
부디 키를 삼가 낮추라  
비날론 마중하시려  
장군님 오르시는 그 길  
어이 그리도 높아보이느냐

몇걸음이면  
그이 다 오르시련만  
아, 그밑엔 솟아있구나  
조국을 지켜선  
눈덮인 철령이  
찬바람 부는 오성산이...

불꺼진 비날론공장을 두고  
너무도 아프신 마음  
희망안고 맹세안고  
조용히 노래선물에 엎어보시던  
그 이름모를 산굽이  
그 이름없는 들길이...

준엄하고  
시련에 찼던  
그 모든 력사의 길들우에  
너 이처럼 솟아

장군님 오르고오르시니

비날론을 마중해  
얼마나 많은 세월  
그이 헤쳐오시었느냐  
행복의 열매로 무르익히시려  
비날론밑뿌리에  
땀을 묻으시며...

모진 추위속에 무더위속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며  
비날론의 한공정 또 한공정  
손잡아 품들여 일으켜주신 장군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정 장군님가슴속에선 그 사시절  
우리 비날론이  
뜨거이 먼저 흘렀구나  
세차게 먼저 쏟아졌구나

좋은 날  
좋은 길  
가림없이 불같이 흘러온  
아, 선군령도의 그 세월  
이 가슴에 더욱 사무치노라

어서 좋은 인민들에게  
포근한 비날론  
봄빛처럼 따스히 안겨주시려  
몸소 방사공 되고싶으신듯  
매 기대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물으시는데

—장군님  
이제 하루만 있으면  
비날론이 다 됩니다  
어쭙게 올리는  
도당일군의 보고

자신의 념원이 풀리는  
그 시각을 앞두고  
생각도 많으신가  
말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는  
아, 장군님

수세공정에 갓 넘어서는

비날론의 가는 흐름앞에  
또 발걸음 멈추신 그이  
나직하나 흥분된 어조로  
결연히 말씀하신다

—우리의 비날론이 나온다면  
며칠이라도 더 기다리겠소

아, 사람들이여 듣는가  
비날론력사엔  
어찌하여 이렇듯  
가슴뜨거운 사연만이 새겨지는것이나

이제는 비날론의 보고  
집무실에서 받으셔도 되시련만  
자식의 첫걸음마  
하나하나 익혀주시는 심정으로  
비날론시운전을  
친히 살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세상 더없는 사랑이였다  
세상 더없는 믿음이였다  
그러니 방사공들  
어찌 비날론 뿔지 못하랴  
비날론을 안고 땃땃이  
그이앞에 어이 나서지 못하랴

복받은 비날론아  
아버이의 그 기다림에  
어서 서둘러주려마  
어서 나래를 돌려주려마  
가늘어도 웅웅 뻗어오는 흐름아  
장한 흐름아

아, 이 땅엔 흐른다  
크고작은 천만가지 나라일로  
바쁘고바쁘신 장군님  
비날론을 위해 바치시는 하루가  
기다려주시는 그 하루가

#### 4장. 불라는 하루

분분초초로 나누이며  
시간이 흐른다  
장군님과 약속한  
비날론의 그 하루가

초침소리마저  
뛰는 걸음 더 재촉하고  
번개같은 일손에  
빨리 더 빨리 불을 다니  
어찌 깨닫지 못하랴

아, 그 시간속에 비날론은  
기어이 고고성을 터치리라  
그 재부를 안고 조국은  
더욱 눈부시리라  
장군님 비날론의 새 구상 또 펴시리라

온 공장의 열망이  
지압처럼 뻗쳐오는 방사직장  
잠을 모르며  
해이를 모르는 눈동자마다  
비날론이 비졌으니

이곳에선 지배인도 책임비서도  
그리고 이제는  
방사공들과 친숙해진  
도당책임일군도  
방사공의 심정이였다  
수리공의 마음이였다

거듭되는 현장협의회  
시간의 촉박을 느끼며  
서로 달리하는 견해들  
이미전에 돌리던 기대들인데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냥 냅다 돌려보자는  
우세를 차지하는 주장들

그 말이 옳을수도 있다  
더우기 시간이 급하다는  
그 주장은 무시할수 없다  
그렇다면...

서리발처럼 단호해지는  
지배인의 결심  
—매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보고  
미흡한 설비들은 교체합시다

카바이드는... 증기는...  
그러면 시간은

그렇다 시간은 용서를 모른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수 있을까  
제값을 타는 지휘관의 사색

마침내 구령을 내린다  
—지휘일군들 분담된  
공정 앞으랏!  
기술조작을 엄수할것!  
시간을 최대한으로 당길것

뒤따르는 책임비서의 웨침  
—비날론로동계급 우리를  
장군님께서 지켜보고계십니다  
살아도 비날론  
죽어도 비날론  
비날론을 기어이 안아웁시다

우리는 복소리에  
심장의 박동이 높뛰느냐  
힉찬 노래선물에  
가슴의 피가 끓느냐  
그 들끓는 숨결을 안고 태동하는  
비날론대교향악이어

불사신마냥 일어서는 이곳에선  
비날론이라는 말을 누구도  
자주 입에 올리지 않았어도  
높뛰는 가슴마다엔  
비날론이 고동쳤고

매 순간순간  
하나의 목적을 향해  
불붙는 마음들에선  
승리한 고지우의 기발처럼  
비날론이 나뭇졌다

이때  
—증기압이 떨어진다!—  
하는 다급한 소리  
뒤미처 서서히 굳어지며  
수천수만개의 노즐구멍을  
덮어버리는 반응물 반응물

점점 차지는 밤기온  
얼어붙는 배관들  
채금이 솜옷을 벗어

관을 감싸자  
너도나도 뒤따르는 방사공들

타드는 입술  
재가 앉는 가슴  
그 순간  
지배인과 책임비서  
번쩍 눈길 마주친다

고개깊이 끄덕이는 책임비서  
그러자 지배인  
작업장문을 박차며  
보이라실로  
번개같이 내달린다

아마도  
비날론으로 뜻이 통하는 심장들은  
그렇게 말을 나누는것인가  
증기보이라 그곳에선들 어찌 모르리  
땀으로 미역같은듯 번들거리는 얼굴  
팔소매로 급히 문대며  
지배인을 맞이하는 준보반장

그의 눈길도 빨갛게 충혈졌다  
하지만 사람의 체온이 식으면  
피가 굳어지듯  
증기는 비날론의 체온  
식으면 비날론이 죽어버리는...

너무도 잘 아는  
그래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운듯  
눈을 쪼프리며 어두워지는  
지배인의 낮빛

하면서도  
화실의 온도를 가늠해보더니  
리해가 되는듯  
부드러운 어조로 묻는다  
—탄질이 이 꼴이니...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여보게 지배인  
15분만... 정상이 될거우다  
탄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  
미덥게 바라보는

지배인의 후더운 눈길

비날론보이라는 나이자  
준보반장의 로동년한  
그는 말수더구가 적었지만  
마음이 진국이었고  
보이라는 그의 몸의 한 부분이였다

15분!  
그 말만 외웠으나  
그의 가슴속에선  
아프게 흘러내렸다  
오랜 로동계급의 눈물이  
형언할수 없는 피로움이...

며칠밤 꼬박기 밝혀  
창의고안해낸 새 첨가제에  
산소조절주입법으로  
다시 거세게 솟구치는 불길  
부르르 흔들리는 압력계바늘!

크고 거쿨진  
준보반장의 손을 덥석 잡아  
힘있게 흔들던 지배인  
송수화기를 든다  
—증기 정상이다!  
빨리 준비하라!

x

은희결을 지나는데 하더니  
슬쩍 던지는  
성봉의 말이다  
—침착하게 하라구  
은희 곱게 눈 흘기는데

한수 더 뜨는 방사직장장  
—질기디질긴  
비날론바줄로 비끄러냈으니  
떨어 못지는게지 쫓쫓  
위신없이 쫓아다니면서...

그러자 봉애도  
성봉이 편역을 드누나  
—비날론도 사랑의 불엔 꼼짝 못하니  
인츰 녹아불지 않을라구

그 바람에 그 바쁜 속에서도  
와르르 터지는 웃음소리  
굴할줄 모르는  
인간들이 내뿜는 숨결소리!  
비날론이 구수히 익는 소리!

그제야 긴장된 마음 풀렸는지  
인차 단추를 누르는 은희  
다시 돌아가는 방사기  
다시 솟구치는 비날론실발  
뒤미처 실결이를 하는 방사공들

오리오리 실발들  
작은 원통로라들에 창창 감겨들더니  
차츰차츰 폭을 넓히며 굽어지는데  
2층로라실 굴리개에서  
갑자기 실발이 엉킨다  
그러자 현장경보기  
다급한 소리를 내지른다

방사 2층계단  
날새같이 날아오르는 봉애 채금이  
눈깜짝할새 베고 잇고  
제대로 감아놓으니  
신입공처녀들 그 모범을 따른다

며느리의 땀젖은 얼굴  
장하게 지켜보는 봉애 시어머니  
—아에미야, 수고하는구나  
저녁밥이다 식기 전에...  
코허리 시큰해 말땀지 못한다

그리고는  
옷자락으로 눈굽을 찍더니  
끼고온 솜장갑을 툭툭 털어  
봉애에게 내민다  
어서 땀을 닦으라고

지금 그의 마음은  
무척도 흥 뿔터란다  
며느리가 온 비날론을  
다 휘둥하는것만 같아  
무척도 기뻐터란다

수세

건조  
그 공정을 무난히 지나더니  
열처리공정에서  
또 감겨도는 굵은 띠흐름

수백도를 오르내리는 로  
채 식지 않은 안에선  
아직도 확확 열기가 뿜어지는데  
누군가가 로문을 열어제낀다

그는 성봉이  
또 버릇처럼 깜빡이는 눈  
그러나 그것은 겁에 질린  
그런 눈이 아니었다  
이 순간 그에게는 아버지가 생각났다

—성봉아!  
내 아들이 어서!  
아버지는 널 믿는다  
장군님께서 기다리시는 비날론  
늦어지면 안돼

아, 그것은  
너무도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귀에 익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성봉의 마음이었다

목안까지 태우는듯  
숨쉬기조차 가빠지는데  
하지만 침착하게  
감겨진 실띠를 찾아준다

정신마저 아찔해지는  
위급한 그 순간  
툭— 끊기는 실띠  
끊어낸 토막 손에 감아쥔채  
모로 쓰러지는 그

—성봉이!  
—성봉이!  
교대를 재촉하는 또 한사람  
그러나 안심하라  
우리의 성봉이 끝끝내 해냈으니...

장군님께 드릴 기쁨이라면  
한몫 바쳐도 웃으며 나설 비날론사람들  
그 뜨거운 진정에 받들려  
서서히 반응공정으로 들어서는  
비날론띠흐름!

건조공정을 또 지나  
따스한 온기를 품은채  
긴 흐름을 이끌고  
물목을 터친 물줄기와도 같이  
아, 하조장에 내리누나  
내려내려 쌓이누나

충포성없는 전투장에도  
한몫 내대야 할 그런 순간은 있었거니  
장군님 바라시는  
오직 그 비날론으로  
충직해야 할 전사들  
비날론을 위해  
무엇을 서슴는단 말이나

승리한 고지의 정적이나  
왜 이리도 조용한것이나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애쓰며  
뛰고 달리더니...

새날의 밝음이 끝내 안아온것이나  
오리오리 이어지며  
오리오리 엮어지며  
팔뚝같은 긴 띠흐름이  
원통굴리개마다 그득 감기자

아, 그제야 터지는 함성  
—비날론이 흐른다  
—비날론이 흐른다  
봉애의 목갈린 음성  
방사공들의 울음섞인 환성

누가 먼저 웨쳤느냐  
끝내는 만세의 함성으로 높아지는  
환희와 기쁨  
아, 비날론이 쏟아지는구나

광광 가슴벽을 치는  
그 소리소리에  
지배인도 책임비서도  
그리고 도당의 책임일군도  
찌릿이 눈곱이 젖는다

시련의 찬바람에 떨던  
비날론의 생사를 두고  
가슴치며 몸부림치던  
온 비날론지구가  
무한한 환희에 휩싸이는데

푸름푸름  
동녘하늘이 들리운다  
비날론흐름우에 펼쳐진다  
낮도 잊고 밤도 잊고  
마중해온 그 새날이 조용히도 밝아오누나

하건만  
저도 몰래 기다려만지는  
봉애의 마음  
장군님께 이 비날론  
어서 보여드리고싶어  
더욱 간절해지는 그 소원

기다리면서도  
무척 기다리면서도  
그러나 누구도 선뜻 기다릴수 없는  
아, 그 아침이 밝아오건만

어이 또 오신단 말이나  
비날론을 위해 쉬지 못하고  
방사공들과 똑같이

시운전을 지켜보신 장군님  
  
얼마나 크나큰  
우리 당 선군위업이  
그 시간속에  
만태업되어있느냐

장군님 내짚으시는  
한자욱 그 곁에  
내달리는 인민의  
십년 백년세월이 떠받들리고  
폭풍치는 조국의  
무궁세월이 담보되지 않느냐

철없는 생각 거두라  
량심이 타이르는 소리  
그렇게는 안된다  
일군들도 방사공들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듯

장군님 오시기 전에  
빨리 먼저 보내드리자  
어서 보시게!  
그리고 기쁘시게!  
서두르는 마음과 마음들

—장군님  
오늘에야 비날론이 나왔습니다!  
승리의 2.8이  
기어이 뿔아낸  
수령님의 비날론이...

(다음호에 계속)

## 유 모 아

### 신 사 란 무 엇 인 가

18세기 미국과학자 프랭클린의 집에 한 하인이 있었다.

어느날 하인이 프랭클린에게 물었다.

《주인님, 신사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한가지 생물로서 먹고 마시고 잘 줄은 아는데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생명있는 물건이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가르쳐주었다.

잠시후에 하인이 다시 달려와 프랭클린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이제야 신사란 무엇인지 알았어요. 사람은 사업하고 말은 일하고 소도 로동하는데 유독 돼지란 놈이 먹고 자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한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돼지가 바로 신사예요!》

## 은 하 수 흐 르 는 땅

박 정 애

하늘에만 은하수 있다더냐  
고르로운 기대의 은은한 선물속에  
흐름선에 실려 흐르는 갖가지 화장품들  
땅우에 은하수로 비껴흐르누나

우리 행복 약속하는  
《은하수》 비누 《은하수》 크림 《은하수》 향  
분...  
상점과 집들  
이 땅 그 어디나 갈  
기쁨신고 끝없이 흐르는 은하수...

네가 흘러가는 이 땅은  
그 얼마나 밝아지고 향기넘치는것인가  
로인들은 한껏 젊음을 노래하고  
처녀들의 얼굴은 날마다 꽃처럼 피고

그 어느 하나라도 무심히 볼수 없구나  
고난을 이겨낸 인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세우시려  
장군님 잠 못드시던 전선길의 밤  
야전차창에 비껴흐르던 그 은하수 어려와서

이른새벽 공장을 찾아오시여  
모양과 색깔 가지수도 헤아리신  
그 손길이 닿아있고  
그 향기까지 가듬해주신  
다심한 사랑이 실려있어

내 고마움에 젖어 안아보니  
하늘을 기울여  
인민에게 안겨주신 사랑의 은하수  
장군님의 무한한 그 헌신  
뜨거운 아버지의 그 은정의 세계여

은하수 은하수  
우리 생활을 가장 밝게 빛내주는 빛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품고 살 아름다운 향기  
장군님 안겨주신  
무한한 사랑과 행복의 은하!

은하수 은하수는  
밤하늘에만 비껴흐른다지만  
낮도 없이 밤도 없이 계절도 없이  
만복의 세월속에  
땅의 은하수는 영원히 흘러흐르리

## 해 저 무 는 논 머 리 에 서

김 명 철

해가 저물어  
하늘가에 노을이 곱게도 비졌는데  
분조장 나는 지금  
논머리에 앉아 수첩을 펼친다  
우리 분조원들의 로력공수를 매긴다

또 하루 정말 드바빠 보냈구나  
인민생활을 더 높이자고  
온 나라가 떨쳐나 들끓는 이해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짓자고  
첫새벽 들로 나온 우리 사람들

수로뚝에 주련이 기발들을 꽂아놓고  
남먼저 밭고랑을 잡아나간 처녀  
그 일손도 결싸지만

그 노래의 선창따라 성수들을 났으니  
선동원 순희야말로 우리 분조 기수가 아니런가

간밤도 논고들을 열고 닫았건만  
비료물을 맞추느라 오늘 해도 들에서 지운  
성무아바이 그 모습이 미덥다  
포전을 꽃밭처럼 알뜰히도 가꾸는  
금숙아주머니 그 진정이 뜨겁다

찌는듯 한 피약별에 이랑타고 오가며  
비료를 치던 저 영실이네라  
허리 펼 사이도 없이 콩포기를 해집으며  
두렁풀을 뽑던 저 봉세네라  
누구 하나 더운 땀을 아끼지 않았나니



나는 안다 우리 분조원들  
아직은 살림이 넉넉치 못함을  
하지만 나라의 쌀독이 차넘쳐야  
조국땅 어디 가나 웃음꽃 피겠기에  
농번기를 전시처럼 여기는것 아니라

그렇구나 오늘의 우리 분조 포전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명선의 한 진지  
우리 분조원들은 격전장의 용사들  
이 로력일평가수첩은 전투기록장

아,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로 잘살게 해주시려  
사시장철 눈비속을 헤치시는 장군님

지금 이 시각도 저 노을빛속에  
이 푸른 대지를 바라보고계시려니

오리라 이제 머지않아  
희천의 발전소의 고압선에 불을 걸고  
홍남과 남흥에서 비료가 더 많이 쏟아질 그날  
이 들판 가득 설레일 좋은 작황 보시며  
장군님 기뻐하실 그날이 오리라

그날을 앞당겨올 열망으로 피를 끓여  
또 하루 땅을 가꾼 숨결들을 다 안고  
나는 오늘 로력공수를 적는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  
농업전선영웅들의 위훈을 적는다

## 너 보다 좋은 곳 몰라라

김 일 왕

애젊은 시절에 떠난 고향  
고향을 찾아올적마다  
몰라보게도 변모되었건만  
고향에 대한 애뜻한 정과 추억은  
언제나 변함없구나

문을 열면 황금벼바다  
구수히도 밤내 풍기고  
뒤산엔 툇툇 터진 밤알을 가득 인 밤나무들  
다치면 밤알소나기에 묻힐듯  
추억을 불러주는 젖소들의 영각소리...

얼마나 좋으나 좋은 세상 좋은 세월 좋은  
계절  
저 보라 오늘은 기사장 아들 잔치하는 날  
신랑신부 들로 나섰구나  
작업반기술원이 사진기까지 척 메고

나도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듯  
동네젊은이들속에 섞여 그들을 축복하네  
그들은 즐겨 사진을 찍네  
염소를 몰아가던 순희 채찍을 든채 뛰어드네  
돌피 잡던 복덕아주머니  
바지가랭이 걷어올린채 옆에 서네  
사진을 찍네 산기슭 새 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네

그들이 봄내 여름내 땀흘려 가꾼  
청년분조포전을 한품에 안고 사진을 찍네  
그들의 자랑 소형발전소 푸른 지붕 배경으로  
멋진 염소우리도 배경으로

이때라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에  
백학 한무리 환희로운 날개 펼쳐 날고  
가을바람에 설레는 황금벌이  
그들을 일싸안았는가  
그들이 황금벌을 일싸안았는가  
벌도 청춘도 기쁨에 설레는 좋은 가을날

시절도 좋은 시절 계절도 좋은 계절  
하늘은 패청 대지는 금나락  
너희들은 하늘과 땅의 축복 다 받았구나  
이 땅에 영원히 삶의 뿌리내린 선군시대 청춘  
이여  
향촌에 피어난 한쌍의 꽃이여

아, 나서자란 땅  
구슬땀을 바쳐 가꾼 고향산천  
로동속에 사랑을 꽃피운 정든 품아  
너보다 좋은 곳 나는 몰라라  
내 어디 가도 너를 못 잊으리  
풍요한 산천 아름다운 청춘  
사회주의선경 내 고향이여

# 가사 《곧바로》에 구현된 표현수법과 그의 형상적 효과

권 선 철

진실한 말이 심금을 울린다.

선군조선의 불패의 기상과 도도한 흐름을 격동과 환희의 정서로 노래하고 영원한 신념과 의지의 분출로 형상화한 가요 《곧바로》!

우리가 달음쳐온 천만리진군길이 보여오고 그렇게 폭풍쳐갈 앞날이 비껴오는 가사 《곧바로》(김철 작)의 구절구절은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신념의 불을 지피는 진군의 박동을 주고있으며 우리의 걸음에 날개를 다는 천리마의 발구름으로 울려가고있다. 가사의 심오한 철학성이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온 지난 년대기들뿐아니라 매 인간들이 헤쳐넘어야 할 승리의 래일로 일반화되어 진실하고 감명깊은 여운을 주는것은 높은 사상성과 함께 깊이있는 언어형상의 비결이다. 언어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수 있게 하고 밖에 내비칠수도 있게 하는 창문이나 같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의 표현은 누구나 다 쉽게 알수 있고 또 별치않은 말 같지만 다 읽고나서는 무엇인가 충격을 받고 오래동안 생각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가사 《곧바로》의 언어형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생활적인 어휘를 통한 향토적인 형상미와 사상감정을 그대로 펼쳐주는 직선적인 표현을 통한 풍부한 서정미를 조화롭게 둔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활속에 깊이 침투한 곧바로라는 말이 그대로 가사의 1절과 2절의 첫 시행을 이루면서 다음구절의 사상정서적내용과 형상성을 더욱 풍부하게, 명백하게 해주고있다.

남들이 바람타고 동쪽으로 간다고  
천리마여 가던 길을 우리가 돌았던가  
...

그 누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든 오직 한길,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곧바로 달려온 우리 혁명의 지나온 년대기들과 전후의 재를 털고 락원을 일떠세운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불굴의 기상이 바로 이와 같은 형상적비유를 통해 확증되고있다.

역시 2절에서도 《남들이 뜻을 달고 서쪽으로

간》다고 《가던 길을 우리가 바꿨던가》라는 시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한길을 달려온 우리 혁명의 승리와 번영의 력사가 확연히 펼쳐지고있다.

《바람》과 《뜻》이라는 형상적비유가 천리마의 곧바른 앞길에 상징적으로 대비된것으로 하여 그 의미가 무척 깊다. 이러한 숨은 비김법은 직접 그려진 형상의 의미뒤에 진짜의미를 숨겨두고 그것을 여러가지 풍부한 뜻으로 풀어주는 비김법이다.

시형상에서 다의미적인 뜻깊은 언어생활을 통하여 회화적인 립체성뿐아니라 의미적인 립체성을 보장하는것은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말뒤에 큰뜻을 담을줄 아는 재능은 생활의 의미를 깊고 폭넓게 파악하고 진실하게 나타낼줄 아는 작가에게서만 볼수 있다.

시인은 우선 묘사대상에 대한 풍부한 체험과 인식으로부터 천리마가 어제든 오늘도 한모습이고 비와도 눈와도 한본새이며 곧바로만 날은다는 시적 환상에 접하였다. 그것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만을 곧바로 걸어온 어제날의 추억으로뿐아니라 그렇게 매 인간들이 걸어가야 할 앞날의 미래로 힘있게 확증하였던것이다. 곧바로만 날은 천리마의 속성에 대한 파악과 인식이 통속적인 표현들을 낳았고 그것으로 인생관적인 문제를 무리없이 해명하도록 풍부한 형상을 창조하였다.

가사의 통속적인 어휘에 의한 진실한 형상미는 명백한 언어형상에 의한 풍부한 서정미로 둔구어지고있다.

모든 시창작이 다 그러하지만 가사에서는 더우기 직선적인 표현보다도 생신하며 형상적인 표현들로 예술적인 맛을 둔구어야 한다. 그러나 가사를 창작함에 있어서 형상적이며 예술적인 어휘보다 직선적인 표현, 정치적인 표현이 보다 더 명백하고 강렬한 사상을 나타낼수 있을 때에는 대담하게 리용해야 한다. 문제는 그것이 뜨거운 열정과 강렬한 지향을 안고있는가, 가사의 풍부한 정서를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가 하는것이다.

시정서에 잘 어울리고 그자체가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된 정치적표현은 시형상을 파괴하는것이

아니라 시의 정서적감화력을 높이며 사상적내용을  
돌구어준다.

가사 《곧바로》에서는 남들이 《바람타》고 가  
고 《뚝을 달》고서 가는 길을 따르지 않은 천리  
마의 모습에 대한 표상을 통하여 신념이 강하고  
억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서적지향과 의지  
를 깊이있고 풍부한 형상으로 깔아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  
따라 곧바로 한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곧바로  
만 같 것이라는 사상이 강렬한 의미로 안겨지도록  
하였던것이다.

이처럼 선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걸어진 길에  
대한 자량과 긍지로 또 그렇게 걸어갈 래일에 대  
한 신심과 의지로 빛발치는 사상정서의 분출은 바  
로 생활적인 어휘와 직선적인 표현의 조화로운 어  
울림으로 이루어지고있으며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인 통일로 훌륭히 보장되고있다.

가사에서는 또한 대구법과 되풀이법, 자리바  
꿈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표현수법들을 적극 활용  
하여 풍부하면서도 깊이있는 시형상의 창조를 담  
보하고있으며 탄력있고 박력적인 운물을 통한 음  
악성을 보장하고있다.

구체적으로 1절과 2절에서 《남들이 바람타  
고 동쪽으로 간다고/ 천리마여 가던 길을 우리가  
돌았던가》라는 시구에 《남들이 뚝을 달고 서쪽  
으로 간다고/ 천리마여 가던 길을 우리가 바꿨던  
가》라는 대구를 주고있다. 가사에서 대구법은 시  
어와 시행에서가 아니라 련과 련사이에서 폭이 있  
게 활용되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주체의 한길만  
을 걸어진 자주적 우리 인민의 참모습을 떠올려주  
고 부단히 점층되는 가사형상의 의미적련관을 명  
백하게 이어주고있다.

가사에서는 매 절에서 《곧바로》라는 표현을  
여섯번씩이나 반복해쓰고있지만 표현을 램발한  
다는 느낌은 전혀 주지 않고있다. 가사의 사상적  
알맹이를 긍지높게 천명하는 《곧바로》라는 표현  
을 련이어 반복해준것으로 하여 사상정서적지향  
을 자기의 인생관의 한 부분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다. 곧바로 걸어진 길을 곧바로 헤쳐갈 신념과 의  
지가 련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곧바로》의 표현을  
통해 지속적인 여운으로 심장에 쏘아박듯이 새겨  
진다. 이밖에도 《주체의 한길》처럼 사상정서  
적알맹이가 심어진 표현을 매 절가마다 반복해준  
으로써 그 의미를 심원하게, 그 지향을 확신성있  
게 형상하고있으며 여러가지 표현들의 반복과 대  
구를 통한 음악적효과를 높이고있다.

천리마에 대한, 곧바로 나는 천리마의 장엄한  
기상에 대한 시인의 깊은 정서적체감과 양양된 열  
정은 뜨거운 심장의 박동과 호흡물에 의한 시운물  
을 낳았으며 박력있고 힘찬 운물은 가사 《곧바  
로》의 서정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듣고나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고 부르느라  
마음속에 천리마의 굳센 의지와 기상이 나래치게  
하는 가사 《곧바로》의 창작경험은 우리에게 시대  
가 요구하는 명작은 시대정신의 민감한 포착과 높  
은 실력으로 창조된다는것을 똑똑히 가르치고있다.

어제도 오늘도 한모습이였고 래일에도 영원히  
한모습일 천리마의 형상을 통하여 주체의 강성국  
가를 향해 질풍같이 내닫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파감한 공격정신과 계속혁명의 정신을 줄기차게  
이어주고있는 오늘의 천리마는 사상적대, 정책  
적대가 뚜렷하고 현실에 발을 붙인 시대의 걸작,  
사회주의교양의 교과서와 같은 문학작품창작에  
로 우리 작가들을 힘껏 이끌어준다.

## 상 식

# 고도기술의 일반적특성

—창조성이 높은것이다.

고도기술은 최신과학기술성파에 기초한 지식  
집약형기술로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재부의 창조  
에 이바지한다.

—전략성이 높은것이다.

고도기술은 과학기술형태의 전략적자원으로서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분야의 지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인자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국제적으로 가  
장 중시하는 대상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들이 고도기술발전과 산업화를 국가의  
전략적문제,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  
로 보고있다.

—수익성이 높은것이다.

고도기술은 제품의 성능과 질, 노동생산능률,  
자원리용률을 현저히 높임으로써 막대한 경제적리  
익을 얻게 한다.

—침투성이 강한것이다.

고도기술은 여러 과학기술분야들사이의 밀접  
한 련관속에서 형성된 기술이므로 전통산업부문에  
에 널리 도입되어 전반적인 기술적진보를 비상히  
촉진시키고있다.

—모험성을 내포하고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도기술은 매우 고급한 지식집약형  
기술로서 그의 개발에 투자가 많이 들고 경쟁  
이 치열하며 모험을 동반하고있다.

시 초

# 조 국 과 녀 인

럼 형 미

## 그 부 름 앞 에

엄마엄마 하더니  
어느새 달라졌는가  
어머니!... 어머니!...  
귀에 선 아들의 부름소리

벌써 다 컸구나  
깃 자란 새 등지를 떠나가듯  
어머니품 떠날 때가 다가오누나  
내 사랑 아들이

너를 낳아 지금껏  
내 품에서 떼어놓은적 있었다면  
야영이며 수학여행...  
그 잠간 며칠새도 이 가슴 텅 빈듯  
안절부절 손꼽아 기다리곤 했었지

이제는 아름답게 자라  
어릴 때처럼 껴안아줄수도 없다면  
그래도 네가 내곁에만 있으면 좋더라  
큰 나무에 기대인듯 한 흐뭇함  
가슴에 출렁이는 행복감...

아, 무성한 거목우에 하늘이 모자라지 않듯  
싱싱히도 뻗는 네 삶의 푸른 아지  
굽힘없이 꺾임없이 키워줄  
크나큰 어머니품으로 떠나보내련다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깊어지는 생각으로 불러부르니  
어째서 어째서 그 이름은 하나일가  
크나큰 조국도 어머니!  
이 작은 녀인도 어머니!

## 어 머 니 모 습

아들이 엄마모습 꼭 닮았다고  
못사람들 말할 때면  
내 은근히 생각깊노라  
자식은 곁을 낳지  
속을 못 낳는다는 말도 있기에

아니여라  
젖품에 파고들던 아기적부터  
나를 바라본 고운 눈동자  
엄마눈과 마주치면 너무도 좋아  
들썩이던 그 마음 나는 아노라

감추는것 티끌없는 맑은 눈동자  
무지개빛보석처럼 반짝일 때면  
가슴속의 꿈나무 억만일새 설렁거림을

엄마나무에 휘감긴 덩굴 아니되리  
벌써부터 뿌리내린 네 마음의 거목을

아노라 엄마는 말없이도 아노라  
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수집음 잘 타면서도  
불의앞엔 기름친 불갈고  
정에서는 눈물많은 그 여림도

아노라 네가 분명 나를 닮았음을  
내가 너를 낳았으니 어찌 닮지 않으랴  
아들아 네 가슴에 새겨진 어머니의 모습도  
조국이 없다면 눈물속에 흐려지려니  
바라노니 어머니를 알면서 조국을 알기를  
조국을 아는 참된 그 아들이 되기를!

## 제 일 큰 대 학

아들아  
네가 희망하는 대학은 어디냐  
너의 천성과 취미 눈여겨보며  
나도 많은 생각 하고한단다

정보과학시대의 오늘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는  
그런 장한 아들을 나는 바란다

그 최첨단의 봉우리에  
누구보다 높이높이 날아오를  
성공의 나래는 무엇이라  
대양도 폭풍도 앞장서 뚫고갈  
그 힘의 무한한 원천은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없는 지식과 재능은  
자기를 위해서만 퍼덕이거니  
그 작고 가없는 날개로는

높이도 멀리도 못 가는 법

령리한 머리로만 사는것 인생이 아니더라  
애국의 피끓는 불덩이심장으로 열렬하게 사는것  
아름다운 행복이기에  
나는 바란다 너의 가슴에  
그 사랑부터 가득차기를

너를 키운 이 땅과 푸른 하늘  
너를 믿는 사람들의 정다운 눈빛  
사랑한다 말로써 하지 말어라  
사랑은 제 피와 땀 바치고서야  
진정 제것 되는 값비싼 재부거니

아들아 장군님군대가 되거라  
총대는 사랑을 배워주는 제일 큰 펜이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바쳐갈  
목숨같은 사랑부터 먼저 배우거라  
인생의 제일 큰 학문은 애국이다!

## 밀 음

아들아  
머지않아 집을 떠나가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리  
한장한장 너의 사진  
어머니는 날마다 들여다보리

빨간 유모차 타고  
꽃잎손 내흔드는 귀여운 아가야  
야영의 푸른 바다가에서  
물새처럼 뛰어노는 명랑한 소년아  
최우등의 영예론 꽃목걸이속에  
대견히도 웃는 림름한 모습아

너는 고난의 나날에 태어나 자랐건만  
한점의 구김살도 없이 웃고만 있으니  
정녕 사진첩엔 기쁨의 순간만 새겨지는가  
네 작은 밥그릇조차 채워줄수 없었던  
시련의 그날들은 흔적조차 없구나

아, 너는 언제나 나의 노래  
어렵고 힘겨울 때면

더더욱 씩씩한 나의 용기였나니  
너를 업으면 얼음길에도 넘어지지 않았고  
네 숨결 안고 갈 때면  
어두운 밤도 낮처럼 밝았더라

아들아, 너를 키우며 엄마는 알았다  
천만자식 거느린 크나큰 어머니를  
그 위대한 사랑으로 높이 추켜든  
선군의 총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가를

오늘도 그 사랑엔 만족을 몰라  
더 크고 주렁진 천만가지 복을  
슬하의 자식들에게 다함없이 주고싶어  
쉽없이 창조하는 고마운 나의 조국

바라노라 나의 아들아  
너의 났과 심장에도  
그 위대한 어머니가 깊이깊이 새겨지기를  
굳세게 틀어쥔 애국의 총대로  
길이길이 받들고 빛내기를

한장한장 너의 사진 번져갈수록  
 뿔뿔쿠나 내 아들이  
 너 비록 철없었어도  
 시련 많던 조국과 함께 웃으며 걸었거니  
 그 품에서 배운 행복의 걸음마  
 이제라고 달라질수 있으랴

너 이제 집 떠나 하늘땅 어느끝에 간대도  
 어머니는 언제나 마음튼튼히 믿으리라  
 사시절 너를 품은 소중한 추억으로  
 어머니는 영원히 너를 보증하리라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고  
 달리는 될수 없는 조국의 아들임을!

## 조 국 과 녀 인

잘 가거라 내 아들이  
 오늘부터 너는  
 한 가정의 아들만이 아닌  
 조국과 인민의 병사

이 어머니의 손보다 더 크고 따스한 손길이  
 너를 초소에 세워주고  
 밤이면 담요깃 정히 여며주리  
 추울세라 네 솜옷의 두터이도 만져보리

훈련의 극한점에 쓰러져  
 나약한 마음 흔들릴 때면  
 엄한 명령으로 불러일으키리  
 아침이면 투정 많던 너의 늦잠  
 기상구령으로 어김없이 깨워주리

날마다 달라지는 네 모습  
 영예사진에 담아 고향에 보내주고  
 때로 모르게 저지른 잘못  
 가슴아파 잠 못이루며  
 못난 울음 용서로 품어도 주리

녀인의 젖줄기가 가닿을수 없는  
 선군태양의 눈부신 빛발이

네 성장의 잎새 아지마다 피워주고  
 네 행복의 열매 아름답게 맺어주며  
 나라의 거목으로 억세게 키워주리

아, 어머니 품을 떠날 땐 철부지였어도  
 돌아올 땐 조국이 어엿하게 키운 아들  
 제가 낳아키운 자식이 과연 옳은가  
 어머니는 자식의 어릴적처럼  
 이름을 부르기도 어려워지리니

그래서 그 품에  
 귀한 아들 서슴없이 떠맡기고  
 어머니는 눈비와도 발편잡 들리랴  
 장군님결사옹위의 전선에  
 공세우는 자식을 둔 행복으로  
 헤쳐지는 자랑속에 젊어만지리라

아, 조국과 녀인은 하나!  
 생명은 녀인이 낳았어도  
 인간의 참된 삶은 조국이 주는것이기예  
 아들이 부디 명심하거라  
 조국을 버린 자식은 뿌리 잘린 나무  
 다시는 불러볼 어머니 이 세상에 없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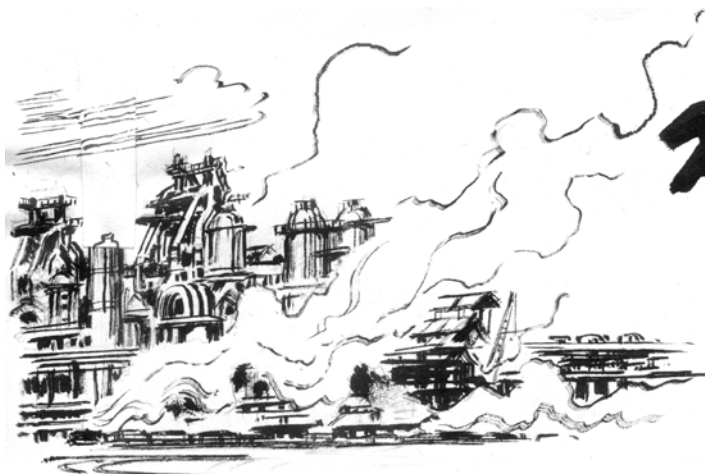
### 조선속담

### 육 , 시 비 , 참 견

- 건넌산 보고 꾸짖기
- 귀먹은 육
- 물라는 쥐 안 물고 씨암탉 문다
- 술먹은 개
- 아비없는 후례자식
- 보름달이 밝은줄 몰랐더니
- 이래라저래라하니 이 자리에서 춤추기 어

럽다

- 남의 참견 말고 제 발등의 불이나 끄라
- 제 코도 못 씻는게 남의 부뚜막 걱정한다
- 할일이 없으면 낮잠이나 자라
- 열 병어리가 말을 해도 가만있거라
- 열두폭치마를 둘렀나



# 자기 위치 앞으로

엄 단 응

## 1

우리 나라 ××지역에 새로 일떠서는 대야금기  
지건설장의 어느 한 중요건설대상을 맡은 ××건  
설사업소 지배인 전창민은 말없이 창문가에 버티  
고서서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의례히 이  
렇게 하는 버릇이 있다.

런대장지휘감시소에서 전선을 감시해오던 몸  
에 땀 군대생활의 관습인지도 모른다.

창밖의 모든것은 솟아오르는 아침해도 푸른 바  
다도 짙은 안개속에 잠겨버리고 지붕을 채 씹우지  
못한 혼선로의 트라스와 뼈죽이 머리를 내민 탑식  
기중기의 거뒸한 튼곽만이 뚜렷이 드러나보였다.  
어디선지 야무진 호각소리와 함께 검은 물체 하나  
가 공중으로 불쑥 솟아오른다. 기중기에 매달린  
검은 그 물체 철판에는 어느덧 햇살같은 안개가  
휘감겨돌아간다. 안개 덮인 지붕판은 천천히, 갈  
수록 속도를 죽여가며 지붕을 향해 내려앉는다.  
이윽고 트라스에 맞물리는 장쾌한 철판부딪침소리  
가 찌르릉! 하고 사무실의 유리창문을 두드리며  
건설장의 넓은 공간으로 번져나간다. ...

창밖을 내다보고 섰던 지배인은 초조하게 자리  
에 와서 앉았다. 지배인의 책상우에는 용수철처럼  
타래진 초록색전화줄이 달린 다섯대의 전화기가  
주렁이 놓여있다.

지배인은 그중에서 송수화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기사장실에 대시오.》

지배인은 수화기를 귀에 갖다대고 다른 한손에  
쥔 붉은색연필끝으로 복잡한 선과 점이 교차된 도  
면우를 훑어나가다가 하연 연필을 거꾸로 세워 책  
상우에다 짹 누르며 그 어떤 생각속에 파고들기도

했다.

수화기에서는 아직도 응답이 없다. 지배인은 못  
마땅한듯이 전화기를 툭툭 잡아두드렸다. 이때 손  
기척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키가 후리후리한 기  
사장이 들어섰다.

《지금 전화로 찾고있는 길이였소. 기중기문  
제는 어떻게 했소?》

지배인은 송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기사장이 자리  
에 채 앉기도 전에 못마땅한 목소리로 조급하게  
물었다. 기사장은 말없이 한동안 서있었다. 그는  
책상앞에 있는 의자를 당겨놓고 자리에 앉은 다음  
에도 잠시 그냥 말이 없었는데 길쭉한 그의 얼굴  
에는 어딘지 모르게 피로의 그늘이 져있었다.

《아직 신통한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술부  
장의 제안을 다시 검토해보았으나 덮어놓고 소극  
적이라고 나무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25톤기중기 하나를 15리밖에서 옮  
겨오는데 녀달이 꼭 걸려야 된단 말입니까?》

지배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지배인동지도 아시다싶이 우리가 그것을 처음  
접수해올 때는 6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도 그때에 비하면...》

기사장은 말을 중도에 끊어버렸다.

지배인은 주먹으로 이마를 받치고 앉아있었는데  
진한 그의 두눈섭이 이그러지면서 미간에다 깊은  
주름살을 지어놓았다. 침묵이 흘렀다. ... 전화종소  
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건설국장으로부터 온 전  
화였다.

《산소로건물조립작업 말입니까? 언제 착수하겠  
느냐구요?》

지배인은 대답을 못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곧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양기 능력에 걸려있습니다. 25톤기중기를 여기에 인입하려고 하는데 옮겨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정확한 계획날자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배인은 송수화기를 내려놓자 말없이 옷걸개에서 작업모를 벗겨 머리에 푹 눌러썼다. 그리고 양복저고리우에다 작업복을 꺼입었다. 기사장도 책상에 놓았던 사업수첩을 쥐고 자리에서 따라일어났다.

《기중기문제는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기사장은 작업복을 꺼입고있는 지배인의 등에 대고 말하였다. 지배인은 못 들은것처럼 아무말없이 문쪽으로 걸어나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따라선 기사장에게 말하였다.

《기사장동무는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있는가를 생각해봐야겠소. 중대나 소대가 아니라 한개 사단을 책임진 참모장의 립장에서 말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작업복주머니에 두손을 깊숙이 지르고 머리를 수그린채 빠른 걸음으로 층층대를 내리기 시작했다.

건설사업소 앞마당은 늘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과 자동차들로 붐비었다. 방송위원회 기자가 방송차를 마당에 세워놓고 사무실로 달려올라가는가 하면 도면을 맡아온 설계일꾼들과 자재인수원들, 신문기자들이 분주히 드나들기도 하고 경제선동사업을 위해 파견돼 내려온 배우들과 예술인들, 지원나온 사람들이 마당에 앉아 자기들의 인솔자가 사무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전창민지배인이 작업복차림에다 모자를 눌러쓰고 현판에 나타나자 대기중에 있던 운전사가 지체없이 《갱생》 승용차를 현판에다 갖다대었다.

전창민은 차에 오르려다가 잠시 멈춰서버렸다. 사무실에서 계획부원이 비준문건을 들고 달려나온 것이었다.

《무엇이요?》

지배인은 승용차 발디딤판에 한발을 올려놓은채 뒤를 돌아다보았다. 부원은 어찌나 급히 달려나왔던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숨을 가라앉히느라고 씨근거렸다.

전창민은 그가 내민 비준문건을 대충 훑어보고 나서 그것을 무릎우에다 올려놓고 수표를 해주고 차에 올랐다.

《지배인동지, 몇시쯤 돌아오십니까? 아직도 비준받을 문건이 남아있습니다.》

지배인은 문을 닫으며 밖을 향해 소리를 쳤다.

《부원동무, 밤에 봅시다.》

계획부원은 걱정스러운듯 달리는 승용차를 바라

보고있었다.

…승용차는 흰 모래불우에 새로 다진 건설장구 내길을 달리고있었다. 강철기둥들이 백사장 여기저기에 거목처럼 뿌리를 박고 서있었다. 승용차는 그 강철기둥의 숲을 이리저리 헤치며 갈색도색 칠을 한 엄청나게 큰 기둥뒀을 스쳐지나갔다.

새로 아연도금을 한 고압전주탑이 해빛에 번쩍거리고 아직 불을 지퍼본적이 없는 굴뚝들이며 탑식기중기들이 하늘을 찌를듯이 솟아올랐다. 하늘과 땅 곳곳에서 용접의 푸른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길이 닿는 곳마다 기발이 펠력이었다. 화물차들이 꼬리를 물고 허공에다 먼지를 말아올리며 내달리는가 하면 굴착기와 기중기차들이 포신을 추켜든 땅크처럼 육중한 몸체를 기우뚱거리며 지나갔다. 손에 용접면을 든 나이많은 로동자 한사람이 길을 내주느라고 길가에 비껴서있었다. 지배인은 불시에 차를 멈춰세웠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모자를 벗어들었다.

《아바이, 그새 안녕하십니까?》

머리가 이미 백발이 된 용접공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있다가 반색을 하며 마주 걸어왔다. 지배인은 옷사람과 나이 많은 년장자를 존대할줄 알았다.

그는 아무리 바쁜 길에도 나이 많은 이 용접공 앞에서는 반드시 차를 멈춰세우고 짹막하나마 인사를 나누곤 하였다. 해방직후 용광로를 복구하여 첫 쇳물을 뽑아낸 공로자의 한사람인 오랜 이 용접공은 년로보장년한이 지난지 이미 오래으나 거듭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용접집게를 놓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사람들과 마주앉으면 해방직후 용접면이 없어서 돋보기안경에다 고무신을 태워 그슬음을 올려가지고 용접을 하던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용접공들이 자외선을 받아 눈을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친히 용접면을 보내주시던 일들을 감회깊이 회상하곤 했다.

《그러지 않아도 지배인을 한번 찾아가자고 했네. 조용히 할 말도 좀 있고… 그런데 좀처럼 지배인을 만날 기회가 있어야지.》

로인은 마침 잘됐다는듯이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꺼내물고 성냥을 그어댔다. 전창민은 난감하여 잠시 망설이다가 손에 쥐었던 모자를 눌러썼다.

《급한 일이 생겨 제관직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창민은 서운해하는 로인에게 거듭 양해를 구하고나서 차에 올라앉았다.

그러나 차는 얼마 못 가서 다시 멈춰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로 한시간전에 굴착기가 와서 제



관직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길을 거의 한길나마 파헤쳐놓았던것이다. 지하배관공사였다. 거창한 이 건설장은 끊임없이 땅을 파헤치고 시시각각 지각을 변형시켜놓았다. 지배인은 차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배관구멍이를 기운차게 훌쩍 뛰어넘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못 가서 맥이 빠지기 시작했다. 모래판에 발목이 푹푹 빠져 걸음을 옮길수 없었던것이다. 모래판을 벗어나자 이번에는 발 밑에서 사각사각 슬라크가 밟히는 새 자동차길이 나타났다. 지배인은 다시 모자와 작업복어깨우에 용접의 불꽃이 내려앉은 고층용접작업장밀을 지나갔다.

건설장은 끝없이 넓다.

지배인은 바쁜 몸이었다.

## 2

25톤기중기는 건설장의 거인이다. 그와 어깨를 겨루는것은 고압전주탑과 아찔하게 새로 일떠선 굴뚝밖에 더는 없다. 그와 다정하게 속삭일수 있는것도 지나가는 흰구름과 기러기떼뿐이다.

25톤기중기는 힘장수이다. 짐을 실은 중량급화물자동차도 손을 내뻗치면 장난감처럼 뉘큼 들어 높은 지붕우에 올려놓을수 있다.

지배인이 이곳에 당도하였을 때 기중기는 트라스우에 철타판을 물어올려 지붕을 씌우고있었다. 지배인에게 있어서 이 탑식기중기는 결코 처음보는 낯선 물건이 아니였다. 그러나 이 며칠째 이 기중기때문에 신경을 써온 그에게 있어서 이전에는 평범하게 대하였던 이 물체가 오늘은 그 어떤 새로운 의의를 가지고 눈앞에 나타나는것이였다.

전창민은 우선 25톤탑식기중기의 거대한 몸체앞에서 알지 못할 그 어떤 위압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머리를 힘껏 뒤로 제끼고 하늘을 찌를듯이 아찔하게 솟아오른 기중기끝을 오래도록 지켜보고있었다. 지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것은 다만 25톤기중기의 거대한 그 위용만이 아니였다. 이 육중한 물체가 가지고있는 다른 한 측면, 신기하리만치 자유롭고 기민한 그의 움직임에 끌려들어가고있는것이였다. 마주보이는 지붕우에 젊은 연공 하나가 서있었다. 그는 호각과 날랜 손동작으로 이 거대한 물체를 자유자재로 조종하고있었다.

그가 가리키는 손길을 따라 기중기는 육중한 몸을 움직여 앞으로 걸어나가기도 하고 혹은 뒤로 움쭙 물러서기도 하였다. 때로 기중기는 허공에다 팔을 휘저으며 반원을 쭉 그리다가 높은 트라스우에 문득 멈춰서기도 하였다. 기중기는 마치 감각

을 가진 동물같았다.

그 거물은 마치 신호공의 손끝을 지켜보며 그의 호각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예단의 길들인 짐승 같았다.

지배인은 어마어마한 이 거물을 손가락으로 조종하고있는 지붕우의 그 연공이 마치 그 어떤 신기한 힘을 가진 장수와도 같이 돋보였다.

지배인은 밑에서 철타판 네고리에다 기중기고리를 물려주고있는 한 연공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기중기바줄갈구리에다 철타판고리 하나를 걸어주며 물었다.

《저 동무가 누구요? 우에서 지휘하는 저 신호공동무 말이요.》

《우리 조장동무 말이요?》

얼굴에 주근깨가 약간 있는 연공은 철타판고리에다 바줄을 매느라고 전창민을 쳐다보지도 않고 반말을 하다가 그가 지배인인줄 알아차리자 당황하여 빼놓어진 안전모를 바로잡으며 군대식으로 대답하였다.

《최영길 동무입니다.》

《뭘 최영길 동무라구?》

《예, 지난해 가을에 우리 작업반에 왔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되자바람으로 말입니다.》

지배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뜻밖의 대답이였다. 그가 연공경험이 불과 반년밖에 안되는 젊은 제대군인이라는것은 지배인도 알고있다.

《그런데 벌써 신호조장으로 임명됐단 말이요?》

전창민은 믿기 어렵다는듯이 다시 물었다.

《우에서 누가 임명한것도 아니지요. 신호공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기중기운전공처녀들에게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행운이라고도 볼수 있지요.》

연공은 익살스럽게 이렇게 덧붙이고나서 점직한듯 스스로 낮을 붉혔다.

철타판조립직장에서는 연공들과 기중기운전공처녀들로 작업조를 무을 때 기중기운전공들이 마음에 드는 신호수를 선택하는것이 상례로 되고있었다. 그것은 운전공들과 신호수간의 긴밀한 협동동작만이 어려운 설비조립작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담보로 되기때문이였다.

호각소리가 길게 울렸다. 땅에 늘어졌던 바줄이 차츰 팽팽해지면서 지배인이 딛고섰던 철타판이 움쭙움쭙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전창민은 머리를 뒤로 제끼고 서서 공중으로 높이 떠올라가는 철타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기중기의 운전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지배인이 쇠사다리를 뚫아올라 운전실문을 열었

을 때 안에서는 낮익은 처녀 하나가 운전대에 올라앉아 한창 기중기를 운전하고있었다. 두발이 땅에 닿지 않아 발밑에다 발판을 놓고있었으나 펍야무지게 생긴 처녀였다. 지배인은 그의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잠시 비켜서있었다. 처녀는 물어올렸던 철판 하나를 지붕우 제자리에 내려놓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이 인사를 하고 곁에 있는 걸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처녀는 지배인과 마주앉아 다음말을 미처 꺼내지 못한채 다시 운전대에 돌아앉지 않으면 안되었다. 신호공의 호각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전창민은 쪽걸상에 걸터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기서는 아까 땅우에서보다 훨씬 가까이 연공들의 작업모습이 바라보였다. 안전띠로 몸을 가튼히 죄어맨 젊은 신호공이 쳐다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한 그 높은 곳에서 외나무다리와 같은 천정트라스우를 날쌔게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지휘하고있었다. 운전공처녀는 잠시도 놓칠세라 그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면서 연공의 손과 호각소리에 따라 손에 익은 능숙한 동작으로 운전대의 손잡이를 조종하고있었다. 처녀의 빛나는 두시선이 측정계의 예민한 바늘끝처럼 연공의 손끝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육중한 25톤기중기는 엄청나게 큰 그 팔을 허공에서 휙 내돌리기도 하고 연공의 호각소리가 처녀의 예민한 청각을 자극할 때마다 기중기는 아래로 쇠바줄을 천천히 내리우기도 하고 위로 감아올리기도 하였다.

지배인은 정신을 잃고 운전공처녀를 바라보았다.

처녀의 빛나는 두눈! 그것은 어마어마한 이 25톤기중기의 눈이었으며 귀여운 처녀의 귀! 그것은 장대한 이 거인의 청각이었다. 커다란 이 거물의 중추신경이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었다.

지배인은 이 며칠동안 자신이 어째서 이 25톤기중기의 높이와 중량과 장대한 그 체대에 대해서만 정신을 팔고 이 거물의 중추신경인 운전공처녀를 보지 못했는지 이해할수 없었다.

지배인은 오늘 하루의 행동계획을 바꾸어 잠시 만나보고 가려던 연공작업반에 눌러앉아 마술사의 체적을 휘두르는 신호공도 만나보고 이 기중기의 중추신경인 처녀운전공과 더불어 기중기이동문제를 토론하리라 결심하였다.

### 3

기중기이동문제를 풀기 위한 소참모회의는 밤 10시부터 지배인실에서 시작되었다. 지배인의 제의에 의하여 제관조립직장의 연공들을 대표하여

신호조장 최영길을 포함한 몇명의 연공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지배인은 낮에 기중기운전공 순공이를 여기에 꼭 참가시키라고 당부하였으나 근무교대를 채 하지 못한 관계로 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몹시 서운해하였다. 그는 낮에 작업현장에 눌러앉아 그들의 일손도 도와주고 점심도 같이 나누면서 이 문제를 연공들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아직 이렇다할 묘안이 나온것은 아니었으나 한가지 결심만은 뚜렷해졌다. 그것은 공사기일로 보나 노동자들의 충천한 기세로 보나 이 기중기 하나를 이동하는데 종래대로 몇달씩 긴 시간을 소비할수는 없으며 노동자들의 힘을 잘 발동한다면 시간을 훨씬 앞당길수 있겠다는 신념이었다. 기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기술부장의 제안으로부터 토의가 시작되었다. 기중기의 팔을 해체하고 동체부분을 다시 세토막으로 크게 분해하여 운반하자는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시간을 두달로 단축할수 있다는것이다.

최소한도 녀달이 걸려야 된다던 시초의 제안에 비해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대단한 제안이였다. 혁신적인 대담성과 과학적인 타산이 안받침된 이 제안을 기사장이 적극 지지하였다.

전창민자신도 기술부장의 이 합리적인 제안을 나무랄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당장 새 구조물조립전투를 벌려야 되겠는데 앞으로 두달후에야 기중기를 쓸수 있다는 막연한 불만이 그의 가슴에서 꿈틀거렸다.

방안에는 담배연기만이 가득차있었다.

지배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기창을 열어제꼈다. 이때 신호조장 최영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지금 강철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강행군을 하고있습니다. 군대에서 말하면 기중기는 포와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중기 하나를 옮기는데 두달씩 걸려서야 어떻게 적과 싸워이길수 있습니까. 때문에 저는 이 제안을 반대합니다.》

지배인은 머리를 끄덕였다. 기술부장 역시 흥미있는 표정으로 연공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기사장은 침울한 얼굴로 젊은 연공의 뺨뺨하게 일어선 앞머리를 지켜보고있었다. 기사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흥분을 억제하고 웃는 낯으로 상대방과 이야기할줄 알았다.

《웁소, 동무의 말이 웁소. 그러자면 문제는 더 좋은 방도가 나와야 될게 아니겠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자는것도 바로 그것이요. 다른 방도가 있으면 내놓고 토의해봅시다.》

기사장은 웃으면서 그렇지 않느냐는듯 좌중을

둘러보았다.

신호공은 흥분을 억제하느라고 앞사람의 결상 등받이를 두손으로 꼭 움켜쥐고 서있었다.

《아까 지배인동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앉아 방도를 더 연구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기중기를 분해할것이 아니라 통채로 자동차에 실어옮기자는것입니다.》

《통채로?》

《네!》

《자동차에?》

《그렇습니다.》

놀란것은 기술일군들만이 아니였다. 지배인 자신도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짧은 연공은 조리있게 말을 이어나갔다.

《물론 25톤기중기를 한꺼번에 실을만 한 큰 자동차는 아직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통나무들을 무어 큰 폐목을 못듯이 자동차폐를 못는 다면 이보다 더한 물체라도 능히 실을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의장은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자동차폐를 못잔 말이지?》

《그렇습니다. 지배인동지도 아시겠지만 공병들이 여러척의 작은 도하창(철선)우에다 널판을 놓고 큰 도선판을 만들어 땅크며 포를 운반하지 않습니다까? 그런 식으로 60톤전인차 몇대로 말하자면 자동차도선판을 만들어 싣자는것입니다.》

지배인은 그럴듯 하다는듯이 감탄하여 머리를련속 끄덕였다.

《좋아, 싣는것은 그렇게 싣는다 치고 그 큰 기중기가 움직이는 차우에서 자빠지지 않고 서있을가?》

지배인은 흡족한 얼굴로 능청스럽게 눈을 깜빡거리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았습니다. 소형기중기차의 팔로 25톤기중기를 량익측에서 부축해줄수 없을가 하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나무를 심고 버팀대를 세워놓듯이 작은 기중기팔들로 따라가면서 부축해주자는것입니다.》

《동무의 말대로 자동차에 싣고온다는 그 15리 길이 어떤 길이라는것을 생각해봤소?》

말없이 앉아있던 기사장이 불쑥 물었다. 그의 음성은 점잖았으나 그속에는 철부지의 무모함을 꾸짖는 년장자의 너그러운 웃음이 섞여있었다.

《길이 물론 험한줄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이 바쁜 때 언제 로반을 닦고 침목을 갈아 레루를 놓겠습니까? 기중기앞에서 불도젤로 직접 길을 닦으며 나가자는것입니다. 공병들이 통로를 개척하듯이 불도젤로 길을 닦으며 그의 뒤를 따라

나간다면 두달이 아니라 하루면 될것 같습니다.》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지배인도 기사장도... 회의장은 한동안 너무도 대답하고 너무도 엄청난 발기앞에서 넋을 잃은듯 싶었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기술부의 어느 한 기사는 책상우에 사업일지를 펼쳐 놓고 연필을 달리더니 류동상태에서의 25톤기중기의 력학적인 중심모멘트에 대한 계산수자를 인용하면서 이 제안의 부당성을 론증하였다.

《이 동무가 납득할수 있게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

결에 앉았던 기사장이 주머니에서 상아물부리를 꺼내 성냥갑우에다 거꾸로 세워놓고 물체의 관성법칙과 류동상태에서의 중심모멘트의 변화과정을 짧은 연공이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기사장의 이야기가 끝나자 지금까지 한마디 말이 없던 기술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25톤기중기를 통채로 떠옮긴다는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나는 기술적인 타산에 앞서 우선 연공동무들의 대답한 발기가 마음에 듭니다. 한번 통이 크게, 대답하게 생각하고 판을 크게 벌리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술적인 난관은 연공동무들과 함께 우리 기술부가 해결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기사장의 아량있는 설명에 기울어지던 방안의 분위기는 다시 일변하였다.

결국 소참모회의는 연공들의 제안의 무모성을 론증하는 기사장의 너그러운 설명과 그 주장에 반격을 가한 기술부장의 제의로 하여 아귀를 짓지 못하였다.

#### 4

회의는 끝났으나 지배인은 흥분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그는 뒤집을 지고 텅 빈 사무실안을 왔다 갔다하였다.

(자동차폐를 못잔 말이지? 작은 도하창으로 큰 도선판을 무어 땅크를 운반하듯이, 음...)

그는 문득 가렐하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포의 리용률을 높일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76밀리런대포를 분해하지 않고 통채로 직접 고지우에 끌고 올라가서 통쾌하게 적을 답새우던 일이 되살아났다.

(그때 나도 포병구분대 전투원들과 함께 런대장

견장이 달린 이 어깨우에 포신을 떠받들고 험한 산벼랑을 기어오르지 않았던가? 포와 기중기, 비록 환경과 물체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해 어깨에 25톤기중기를 떠받들고 일어서한다면 못해낼 일이 무엇인가. ... 그런데 관성의 법칙, 그놈의 중심모멘트가 앞을 가로막는단 말이지?...)

지배인은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방안을 왔다 갔다하였다.

《똑 똑 똑...》 문기척소리가 들렸다. 지배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들어가도 좋습니까?》

녀자의 조용한 목소리와 함께 가볍게 문이 열리면서 기중기운전공 순금이가 들어섰다. 지배인은 반색을 하며 그를 향해 마주걸어나갔다.

《이제야 왔나? 앉소! 어서 여기와 앉으라구.》

그는 순금이앞에 걸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운전공처녀는 걸상에 앉으려 하지 않고 서서 똑바로 지배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지배인동지! 이제 오다가 최영길동무를 만났어요. 그 동무가 지배인동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창민은 조금 허리를 굽히고 처녀의 깜박거리는 두눈을 흥미있게 들여다보았다.

《그래 영길이가 나더러 뭐라고 하던가?》

순금이는 난처한듯 고개를 떨구었다.

《지배인동지는 군대출신이기때문에 통이 큰 본인줄 알았더니 영 담이 작고 결단성이 없다고 해요.》

《뭐? 내가 담이 작고 결단성이 없다? 하하하...》

지배인은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면 왜 참모회의에서 기중기문제를 뒤로 미루셨어요?》

《어째서 뒤로 미루었는가구?》

지배인은 여전히 미소를 띠운채 천천히 뒤집을 지고 방안을 돌아갔다. 그는 어쩌면 자기 집 웅석꾸러기 딸애와도 같은 이 기중기운전공처녀와 이야기를 하는것이 못내 즐거웠다.

《거기엔 상당한 원인이 있지, 알겠나? 지금 힘의 물리적인 중심모멘트, 관성의 법칙이 내앞을 가로막고있소, 그놈의 중심모멘트가...》

그러자 처녀는 눈빛을 빛내며 방실 웃었다.

《저도 영길동무한테서 들었어요. 우리가 내놓은 의견을 반대하는 동무들은 물리학의 법칙만 알았지 인간이 그 법칙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본질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중심모멘트에만 포

로돼있는거야요. 그리고도 우리더러 모른다고 오히려 깔보거든요.》

지배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걸상에 걸터앉아 담배를 꺼내물었다.

《그래, 포로병들이 동무들을 깔보고있단 말이지?》

《지배인동지, 저희들을 믿어주세요. 우리는 25톤기중기에서 나사못 하나 풀지 않고 그냥 통채로 두달이 아니라 단 하루동안에 당이 요구하는 장소에 옮겨놓겠어요.》

《그런데 무슨 방도라도 있나?》

《있어요, 우리는 다람쥐원리를 리용하려고 해요.》

《뭘, 다람쥐원리?》

《예.》

처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웃었다.

《지배인동지는 다람쥐가 긴 꼬리를 가지고 몸의 중심모멘트를 조절하고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셨어요?》

전창민은 입에서 물부리를 뱉아쥐고 흥미있게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람쥐가 회초리같은 나무가지끝에도 자유롭게 오르내릴수 있는것은 긴 꼬리를 가지고 몸의 균형을 옹게 조절하고있기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다람쥐는 긴 꼬리를 가지고 몸의 중심모멘트를 조절하고있는거예요.》

《아, 그렇군!》

지배인은 처녀의 이야기에 그만 정신이 팔려 자기도 모르게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졌다.

《그래서 지배인동지.》

처녀는 한결음 지배인앞으로 다가섰다.

《우리는 25톤기중기의 팔을 떼지 않고 그 팔을 리용하려고 해요, 다람쥐의 꼬리처럼 말예요.》

《그렇지!》

지배인은 손으로 책상을 탕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옳아, 이렇게 말이지. 이렇게 교예극장 배우들이 줄타기를 하는것처럼...》

지배인은 두팔을 벌리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동작을 시험해보았다.

지배인은 25톤기중기를 이제는 통채로 자동차에 옮겨싣고 갈수 있겠다는 흥분으로 하여 심장이 뛴뛰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 어떤 불안감이 불쑥 머리를 추켜들었다.

(그러다가 만약... 아니다, 아니다.)

지배인은 정색을 하고 머리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지배인동지, 할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안되오, 그렇게는 할수 없소. 그런 위험한 기중기우에 나는 귀중한 우리 동무들을 올려놓을수 없소.》

운전공처녀는 한걸음 더 지배인앞으로 다가섰다.

《안심하세요. 지배인동지, 제가 꼭 할수 있어요. 기중기는 저의 몸과 같은거예요. 저는 자기 팔을 놀리듯이 기중기팔을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어요.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난관이 제기되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주저하고 동요하고 물러설수 있습니까.》

지배인은 갑자기 눈앞이 확 흐려져서 창문을 향해 돌아섰다. 어둠속 여기저기에서 용접의 불꽃이 튀고있었다. 불비처럼 쏟아져내리던 용접의 그 불꽃들은 차츰 하나로 융합되면서 갈수록 커다란 하나의 불덩이로 흐려졌다. 그의 눈앞에는 트라스우를 오르내리며 기중기를 지휘하던 신태호의 모습이며 량손에 운전대를 틀어쥐고 잠시도 놓칠세라 연공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던 처녀의 빛나는 두눈이 자꾸 어른거렸다. 나는 어째서 여직 한대오속에 있는 이 동무들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왔는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이 항상 군중들속에 들어가 사업해야 한다고 그토록 간곡하게 가르치시지 않으셨는가. 그는 문득 아침 기사장에게 지휘관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일이 되살아났다. 그러면 여직 지휘관으로서의 나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공격전투시에 맨앞장에 서고 어려운 후퇴시기에 맨뒤에 서있었는가? 행군하는 때에는 대오 한복판에 서서 힘겨워하는 전사의 총과 배낭을 메다주기도 하고 부족해주기도 하였는가?...

전창민은 할말이 없었다. 심심히 뉘우쳐지는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몹시도 가슴이 아팠다.

전창민은 그래도 자신이 노동자들을 리해하고있다고 생각해오고있었다. 늘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그는 순금이 같은 이 건설장의 주인들을 알지 못하고있었으며 그들의 곁을 바람처럼 스쳐지나가기만 하였다.

오늘 아침 구내길에서 지배인을 붙잡는 용접공로인의 곁을 분주히 지나가버렸듯이 그는 노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몰랐다.

자기 위치에 들어서자!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전사들속으로!

포병중대 전사들과 함께 76밀리런대포를 어깨로 떠밀며 벼랑을 기어오르던 그때와 같이 또다시 자기 위치에 들어서자!

전창민은 돌아섰다.

《한순금동무! 돌아가서 오늘 저녁은 꼭 쉬시오. 그래야 앞으로의 강행군을 보장할수 있소. 동무의 의견대로 25톤기중기를 통채로 떠옮깁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늦어도 래일중으로 행군출발준비를 끝내야겠소.》

순금의 얼굴에는 감격의 파도가 물결쳤다.

《알았습니다.》

처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2층층계를 구을듯이 달려내려갔다.

지배인은 쿵쿵 계단을 울리는 그의 잔 발구름소리가 귀전에서 멀리 사라질 때까지 두눈이 글썽해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한자리에 굳어져있었다.

## 5

출발준비는 해질무렵에 끝났다. 지배인은 새벽부터 기중기를 차에 싣느라고 담배 한대 피울 짬도 없이 분주히 돌아갔다. 제관조립직장의 연공들이 어려운 이 사업을 직접 감당하였다.

그들뿐이 아니었다. 온 건설장이 떨쳐나와 어려운 이 작업을 도와나섰다.

기사장을 비롯한 기술일군들이 작업의 기술적지도를 맡아 드바빠 돌아갔다. 그리하여 25톤기중기를 석대의 60톤견인차로 무어진 련결차때목우에 옮겨실을수 있었다. 대기하고있던 녀대의 소형기중기차의 무쇠팔들이 하늘높이 솟아오른 어미기중기의 량옆구리를 떠받들었다. 견인차앞에는 길을 다지는 두대의 로라차가 서고 다시 그앞에는 석대의 대형불도젤이 정렬하였다. 그리고 앞과 뒤에는 지휘차들이 서있었다. 그것은 마치 공격출발진지를 차지하고 전투명령을 기다리는 기계화군단을 련상시켰다.

출발시간이 다가올수록 전창민의 가슴은 불안과 흥분으로 조여들었다. 그는 머리를 제껴 허공높이 솟아오른 기중기 한끝을 쳐다보기도 하고 견인차의 고무바퀴를 발끝으로 툭툭 다쳐보기도 하였다.

출발에 앞서 지배인은 기계화행군대오에 망라된 전체 성원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준비상태를 검열하였다. 그는 행군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꼼꼼히 상기시키고나서 오래간만에 군대식으로 구령을 쳤다.

《자기 위치 앞으로!》

정렬했던 대오는 힘차게 첫걸음을 내디디며 각기 제자리로 흩어져갔다.

이동방송실의 확장기에서 울려퍼지는 항일유격대행진곡이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자동차들은 벌써 발동을 걸어 부르릉거리며 출발구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있었다.

25톤기중기를 통채로 차에 실어 떠옮긴다는 소문은 이미 온 건설장에 퍼져 군중들이 떼구름처럼 밀려들었다.

지배인은 출발준비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나서 25톤기중기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승용차 한대가 급히 달려오더니 그의 곁에 와서 멈춰섰다. 그것은 항상 지배인을 따라다니던 그의 승용차였다.

운전사는 출발시간이 늦을세라 차에서 뛰어내려 지배인이 오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전창민은 그냥 차의 곁을 스쳐지나가면서 운전사에게 말하였다.

《차를 들여다세워놓소. 나는 이제부터 이 동무들과 같이 가야겠소. 내 위치는 저기요.》

지배인은 25톤기중기의 운전실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는 기중기를 향해 걸어나가다가 긴장해서 기중기의 운전실을 바라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기술자들에게 무엇인가 작업지시를 주고있는 기사장과 마주쳤다. 석양이 비낀 기사장의 얼굴은 오늘날따라 몹시 수척해보였다.

전창민은 너그럽게 웃었다.

《기사장동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일꾼들이 항일유격대의 지휘관처럼 언제나 로동자들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소. 우리 지휘관들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싸우는 전사들곁에, 전호속에 같이 있어야 하오. 그러나 지난날 우리는 그들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지내왔소.》

전창민은 기중기의 쇠사다리를 오르다가 걸음을 멈추고 밑을 굽어보며 큰소리로 웨쳤다.

《기사장동무는 맨앞에 서서 불도젤로 새길을 닦으며 나가시오. 출발시간이 다되었습니다. 빨리 자기 위치에 들어서시오!》

기중기운전실에서 곧추 내다보이는 지휘차우에는 젊은 연공인 신호수 최영길이 기발을 손에 쥐고 출발을 기다리고있었다.

지배인이 운전칸에 나타나자 긴장하게 운전대를 틀어쥐고 앉았던 순금이 놀라운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소, 앉소. 나도 오늘은 여기 순금동무곁에 있어야겠소.》

《네?...》

한동안 어리둥절해있던 순금의 얼굴에 감격의 물결이 세차게 파도쳤다.

운전대를 틀어쥐 손금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준비들은 다 됐소?》

《네!》

《그럼 떠납시다.》

신호공이 기발을 휘젓자 발동기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자동차떼가 몸을 떨었다.

《출발!》

자신만만하고 신심에 넘친 지배인의 구령과 함께 어마어마한 기중기를 실은 련결차떼가 움짙 앞으로 움직였다. 순간 건설장이 떠나갈듯 만세소리가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운전대를 틀어쥐 손금의 손은 더욱 날쌔게 움직이었다.

지배인은 문을 열고 운전탑으로 나갔다.

머리우에서 기중기팔이 다람쥐가 꼬리를 휘젓듯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거대한 기중기체의 중심모멘트를 조종하고있었다. 불도젤은 움짙 움짙 용을 쓰면서 번뜩이는 삽날로 마치 이 땅위에 아직 남아있는 온갖 낡은것들을 쓸어버리듯이 땅바닥을 고무 깎으면서 길없는 벌판위에 길을 내고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로라차가 땅을 다지며 지나갔다. 가지런히 늘어선 견인차들은 적진을 향해 밀려나가는 탱크서열처럼 아무도 아직 밟아보지 못한 새길위에 커다란 고무바퀴자국을 찍으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앞을 향해 움직이었다. 요란한 발동소리가 벌판의 대기를 짹 채우고 그들이 스쳐지날 때마다 대지는 무거운 바퀴에 짓눌려 몸을 떨었다.

《순금이! 무섭지 않아?》

전창민은 몸에 익은 손동작으로 능숙하게 운전대를 조종하고있는 기중기운전공처녀에게 말을 걸었다.

《무섭지 않아요. 지배인동지가 곁에 계시니 어떤지 마음이 든든해요.》

순금은 글썽한 눈으로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여러갈래의 탐조등이 그들의 앞길을 환히 비쳐주었다. 건설장의 수많은 자동차들도 불빛으로 이에 합류하였다. 오가던 자동차들도 잠시 길을 멈추고 그들에게 불빛을 한동안 던져주고서야 다시 길을 떠나군 하였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은 전등불이 환한 하나의 큰 도시가 어디론지 움직여가는것 같았다. 지상과 공중의 곳곳에서는 무수한 용접의 불꽃이 밤하늘에 튀어오르고있었다. 25톤기중기를 실은 장엄한 이 행진대오는 눈부신 그 축하의 꽃보라속을 헤집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는 강철고지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고있었다.

[주체63(1974)년]

## 영웅의 모습 외 1 편

김 정 삼

살아있으면  
끝끝한 아들딸들과  
귀여운 손자들을 거느린  
할아버지의 행복을 누릴수 있었으리

살아있으면  
불같은 시를 써서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명망높은 시인으로 되었으리

허나 많은 세월 흐른 오늘도  
포연배인 군복차림  
열여덟 분대장의 모습으로  
영웅은 우리앞에 있나니

만복을 누리며 살아도  
열혈시인으로 사랑을 받아도  
화점향해 가슴대던 그 모습처럼야

사람들 가슴 덥혀줄수 있으랴  
  
청춘이란 무엇에 필요하며  
생이란 무엇으로 가치높은것인가를  
한순간에 깨우쳐준 영웅의 모습

그 모습 아니라면  
어찌 세상이 아는 리수복이라  
정녕 그 모습 아니라면  
수령님과 장군님 기억하시는  
리수복이 될수 있으랴

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옹위 영웅들을 부르며  
세월의 언덕우에 영웅은 있어라  
원쑤의 불구멍을 향해 날아들던  
열여덟 영생의 모습으로!

## 생각 깊은 순간

살아온 나날을 추억하기엔  
너무도 짧은 순간이었다  
살아야 할 앞날을 생각하기엔  
더더욱 짧은 순간이었다

이제 몇초  
판단할 여유조차 없어서  
터지는 수류탄을 향해  
그는 비호같이 몸을 날렸던가

오, 그 순간이 너무도 짧아  
피끓는 젊음의 한창나리와  
구만리같은 인생의 귀함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가

그 순간에  
먼저 본것은 동지들  
그토록 애정다해 돌보던  
한없이 귀중한 장군님병사들

거기엔 있었다  
눈덮인 험한 령 강행군길에서  
힘을 주며 이끌던 나어린 그 전사가  
잊을번 한 잘못도 엄격히 일깨워  
군인의 량심 소중히 간직한 그 분대장도...

아, 별많은 숙영지의 밤  
잠든 대원들의 머리맡에서  
새벽을 맞던 그 모습  
정녕 자신위해 고동친적 있었던가  
군복입은 가슴속에 뿔뿔이

하기에  
고향의 어머니 준 심장  
사랑하는 처녀와의 꿈이 있는 그 심장은  
생사를 가름하는 그 최후의 순간조차  
동지를 위하여 자기를 잊었더라

## 생활적이며 친근감있는 가사적 형상

—가요 《우리 며느리》의 가사형상을 두고—

허영범

최근 우리 시단에서는 특색있는 가사들이 많이 창작되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가요 《우리 며느리》(윤두근 작사)의 가사이다.

이미 가사 《우리 집사람》을 창작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한 시인은 이번에 또다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가사 《우리 며느리》를 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는 시문학의 한 분야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예술적품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사가 곡의 사상예술적기초로서 독자적인 품격을 갖추자면 정교한 시로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시인의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인 얼굴이 있어야 한다.

개성적인 얼굴을 살리는데서 가사를 생활적으로 친근감있게 쓰는것이 중요하다.

가사 《우리 며느리》는 생활적으로 친근감있게 씌여진것으로 하여 특색이 있고 인민들에게 통속적으로 잘 안겨온다.

가사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까운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취급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가정이 화목해야 만 가지 일이 잘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가정의 화목은 곧 온 나라 화목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다.

가정생활에서 며느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사에서는 시부모의 립장에서 자기 집 며느리를 자랑하는 형식으로 서정세계를 펼쳐나갔다.

가사를 생활적으로 친근감있게 쓰는데서 시적계기나 소재를 잘 잡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가사 《우리 며느리》는 우리모두가 체험하고 느끼는 가장 가까운 생활에서 시를 찾은것으로 하여 의의가 있다.

아들가진 부모치고 인물 잘나고 마음씨 또한 고운 며느리를 맞아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없다. 바로 이 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실지 체험하고있는 가까운 생활에서 시적소재를 잡

은것으로 하여 생활적인 가사가 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가사는 개성이 뚜렷한 생활적이며 친근감있는 가사적형상을 창조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사를 구체적이고 풍만한 생활화폭으로 그려내는것이다.

가사 《우리 며느리》에서는 생활화폭이 눈앞에 보이듯이 생동하게 그려지고있다.

사진보고 인물고와 내 집문을 열었던가  
만나보고 마음끌려 내 식구로 맛았던가  
오만공수 품을 들여 정히 키워 보낸 자식  
혈육의 정 이어주니 제가 낳은 딸이 됐네  
...

보는바와 같이 가사 1절 전반부에서는 며느리를 자기 집사람으로 맞이한 경위를 생활적으로 흥취나게 잘 그려주고있다.

《인물고와》, 《사진보고》, 《내 식구》, 《오만공수》, 《품을 들여》, 《제가 낳은 딸》 등의 표현으로 며느리를 맞게 된 사연을 재미있고 생활적으로 그려주고있다.

그런가하면 가사 2절 전반부에서는 며느리의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주고있다.

...

살림에는 빛갈고운 행복의 꽃 피워놓고  
생활에는 향기질은 화목의 꽃 가꿔가네  
시부모를 대할 때는 이리 봐도 친딸이요  
시동생들 돌볼 때는 저리 봐도 친누이야  
...

얼마나 생동한 생활화폭인가!

살림에는 빛갈고운 행복의 꽃 피워놓고 생활에는 향기질은 화목의 꽃 가꿔가는 사랑스런 모습이 눈앞에 방불히 안겨온다. 시부모에게는 친딸로, 시동생들에게는 친누이로 안겨오는 우리 며느리들!



가사에서는 따뜻한 애정의 서정으로 말하자는 사상을 진실한 생활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가사의 3절의 전반부에서는 가정의 화목한 원인을 철학적으로 확인하면서 마음씨고운 며느리를 맞이하여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서정적 주인공의 심정을 노래하고있다.

...

온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 일 잘된다는  
아버이의 친필글발 거울처럼 보며 사네  
동네방네 집집마다 부러워서 칭찬할 땐  
늘었어도 이제라도 아들 열은 더 낳고파  
...

실로 의미깊고 재미있는 생활화폭이다. 우리 수령님의 친필글발을 생활의 거울로 삼고 사는 온 나라 매 가정의 며느리들에 대한 사상감정을 생활적으로 잘 일반화하고있다.

가사는 구체적이며 풍만한 생활화폭을 잘 그려 주었을뿐아니라 가사구조를 특색있게 짚것으로 이채롭다.

가사는 매절이 7행으로 되어있다. 매절에서 4행들은 구체적인 생활을 주고 나머지 3행은 조흥구를 배합하고있다. 5행과 7행은 절마다 반복하면서 6행에서 시인의 서정적느낌으로 가사를 더 밝게, 친근감있게 하고있다. 이것은 생활소재에 맞는 흥미있는 절구성이다.

또한 가사가 생활적이고 친근감있게 형상되게 된것은 그 류창한 음악성때문이다.

음악성은 서정성과 함께 운문의 고유한 속성의 하나이다. 음악성은 그 양양된 정서와 그를 운물화한 내용과 형식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시문학의 고유한 속성이다. 더구나 가사는 곡의 사상예술적 기초로 되기때문에 운물이 류창한 가창성을 띠어야 한다.

가사에서는 매절 4행은 8, 8조로서 매 시행이 대구적반복으로 류창한 운물을 조성하고 5행은 조흥구를 도입하고 5행과 7행을 반복시켜 흐름새를 조성하고있다. 가사만 보아도 선율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었다.

가사 《우리 며느리》가 생활적이며 친근감있는 가사적형상으로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구수한 입말체의 표현으로 시적언어표현의 통속성을 보장한데 있다.

명가사는 알기 쉽고 명백한 표현속에 뜻이 깊은

철학을 심어주어야 한다.

가사 《우리 며느리》에서는 먼저 시어를 고유한 우리 말로 잘 고르고 그것이 제자리에 들어있게 하였다.

가사 《우리 며느리》의 시어는 모두 우리가 잘 알고있는 고유한 우리 말들이다.

가사 《우리 며느리》 시어들은 다 리해하기 쉽고 우리가 늘 쓰는 말들이다.

《사진보고》, 《인물고와》, 《이어주니》, 《제가 낳은》, 《딸이 났네》 등 1절에 나오는 모든 시적언어들만 보아도 우리가 늘 쓰는 말이다. 따라서 가사표현이 구수하고 친근하게 안겨온다. 여기에서 《오만공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선속담에도 있으면서 우리가 늘 쓰던 말로서 고유한 우리 말로 저절로 안겨온다.

가사 2절에서 나오는 《시부모를》, 《시동생》, 《친누이》, 《동네방네》 등의 어휘들은 모두 늘 쓰는 말로서 모두 제자리에 놓여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운물조성에도 적극 이바지한다.

가사의 언어표현에서 특색있는것은 비유적표현이다.

비유는 서로 내적으로 련관이 있는 대상을 직접 또는 숨은 방법으로 비교대조함으로써 어느 한 대상을 더 아름답게 표현한다.

가사의 3절에 나오는 《거울》은 매우 의미깊은 비유이다.

아버이수령님의 친필글발을 거울로 삼고 산다는 여기에는 우리 수령님의 명언을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심정이 담겨져있다.

가사에서 비유적표현이 잘된것은 매절 6행에 나오는 시행들이다. 1절의 《봄종다리 노래하며 날아온듯》은 새로 맞은 며느리에 대한 세부적인 생동한 형상이다. 봄종다리처럼 노래하며 날아온듯 하다는 이 표현은 참으로 새며느리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다. 2절의 《동지선달 눈속에 핀 꽃》은 더욱 이채로운 비유이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곱고 일 잘하면 동지선달 눈속에 꽃을 본듯 하다고 하였겠는가. 그리고 매절에 반복적으로 쓰인 《정다워라 우리 며느리》, 《나는 좋아 우리 며느리》라는 표현은 매우 정답고 친근하게 안겨온다.

우리 시인들은 당의 작가로서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며느리》와 같은 생활적이며 친근감있는 명가사들을 창작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것이다.

# 처녀는 그날의 모습으로 산다

염 득 복

어쩌면 그리도 꼭 닮았느냐  
웃을 때면 보조개가 똑똑 패이는  
직포공 순희야  
너를 보니 영웅인 너의 어머니를  
기대앞에서 다시 만난듯싶구나

단발머리처녀시절  
나는 너의 어머니와  
순희길도 함께 걸으며 천을 짜던  
직포공이었던단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구나  
우리 공장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  
다기대다추운동의 선구자였던  
단발머리직포공 너의 어머니를 보시고

저 동무야말로 영웅이라고  
혼자서 수십대의 직기를 맡아본다니 대단하다고  
가까이 불러 치하해주실 때  
더 많은 기대를 맡아보겠다고  
수령님께 맹세다지던 너의 어머니 모습

어제날 어머니가 일하던 공장에서  
어머니처럼 직포공이 되어  
오늘 너는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뵈온  
행복한 방직공이 되었구나

직기사이를 걷는 그 모습도 어머니모습  
실을 잇는 솜씨도 어머니의 그 솜씨  
어찌 그렇지 않으랴  
너의 가정은 대를 이어 복받은  
직포공가정!

수령님 안겨주신 그 사랑 너무 고마워  
끝없는 순희길을 걷던 어머니처럼  
오늘은 장군님사랑속에 현대화된 일터에서  
인민의 옷감을 책임진 딸의 마음 되어  
어머니의 순희길을 이어가는 순희야

나는 믿는다  
대를 이어가며 안겨지는 그 사랑을  
천필로 이어가며 보답할  
맹세로 불타는 너의 가슴에  
금별메달이 빛나기를!

# 나는 이런 저 녀 이 좋다

전 복 향

좋구나 이 저녁은  
첫 군공메달 받았다고  
부대장의 감사도 받았다고  
초소에서 날아온 제자의 편지를 받은  
이런 날 이런 저녁은

읽어가는 글줄마다 어려오는 모습에  
마음마저 흐뭇한 이 저녁  
갈마드는 추억의 애모쁜 파도에  
마음의 기슭을 잇대이는 이 저녁

영똥한 질문 가끔 곧잘해  
내 손에 땀을 쥐게도 하던 너  
총알같은 대답 하도 기특해  
머리를 쓰다듬던 그날은 어제런듯

설레이는 교재림의 나무들에도  
땀흘려 가꿔가던 네 모습 어려온다  
떨기떨기 피어웃는 화단의 꽃송이에도  
두볼을 부비던 네 숨결 어려온다

좋구나 이 저녁은  
별 하나 제자 하나  
별 하나 위훈 하나...  
달빛안고 종종걸음 다우치던 밤  
별무리와 속삭이며 고운 꿈 키워보던  
모든것이 그 모든것이...

좋구나 이런 저녁은  
군공메달 빛내이며 돌아온 아들을  
가슴에 얼싸안은 내 제자의 집  
그 집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웃음은

간절히 바라던 내 소원 이루어진 저녁

조국에 바친 참다운 생의 첫 군공이어서  
금별의 위훈처럼 크게 안겨와  
소중히 안아보는 제자의 편지여  
가슴뿌듯이 읽어가는 행복한 저녁이어

기다리리라 어느때든지  
초소에 어버이장군님 모시였다고  
거창한 새 언제 일떠세웠다고  
최첨단대문을 열어제꼈다고

앞다투어 보내올 제자들소식

아, 그런 저녁 그런 즐거운 밤이면  
내 단발머리 그 시절에 정들은 교단은  
내 삶의 전부처럼 어려오더라  
애가 타 흘리던 눈물조차도  
진주처럼 애뜻이 안겨오더라

하많은 추억 안고 깨끗한 량심에 미소짓는  
이 저녁이 나는 좋다  
기다림에 내 한생 젊음을 찾을  
이런 저녁이 좋다 나는 좋다!

## 웃자 꽃이여 거리여!

허 수 산

거리의 창문마다에  
꽃화분들이 활짝 폈구나  
피어서 곱게 웃고있구나  
출근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정히 꽃잎손 흔들어주누나

지난해 겨울은  
몹시도 추웠지  
그 겨울 이겨내니  
봄이 오고  
봄이 오니 꽃이 폈구나

창문마다 봄을 맞아  
웃는 꽃이여  
너를 보니 마음도 즐겁구나  
생각도 깊구나

지난날 때로는 불꺼졌던 이 거리  
고난의 행군 강행군  
우리는 불타는 신념과 의지로  
기어이 이겨내고 오늘에로 왔지

위대한 장군님의 자옥따라  
우리 손으로 발전소도 세우고  
주체철 주체비료도 만들어냈다  
새롭게 방직공장도 현대화하고  
온 나라에 비약의 날개를 달았다

오늘은 웃는 꽃이 말해주는구나  
장군님따라 고난을 이겨내면  
기어이 행복이 온다는것을  
우리 리상으로 바라보던 날이  
이 땅에 기어이 펼쳐진다는것을!

보아라 온 거리가 꽃단장 꽃밭이다  
사람마다 명절옷 입고 얼굴도 곱고  
승리자의 긍지로 가슴도 부풀었구나

오오, 왔다 승리는 왔다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생활의 꽃을 피웠다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운 땀 흘렸다

웃자 꽃이여 거리여 인민이여!  
강성국가 그날이 눈앞에 왔다  
창문가 화분에 물을 주는 너인이여  
더 소담히 부어라  
내 그 모습 바라보며  
활력에 넘쳐 더 빨리 일터로 간다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마음도 얼굴도 더 고와지고  
거리도 마을도 더 화려해진  
이 강산은 락원의 꽃바다구나

# 고 마 운 처 녀 의 1편

## 조 광 원

아침마다 창문을 열 때면  
밝은 해살속에 비쳐드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는 보네  
단발머리 상수도관리공처녀의 모습

아침이슬에 발목 적시며  
수원지의 잔디를 가꾸는 처녀  
마치 잔디위에 내려앉은 나비런가  
팔랑팔랑 옮겨앉는 그 모습 고와

땅밑엔 수원지의 맑은 물  
그우엔 부드러운 금잔디  
처녀는 이 아침도 다듬네 금잔디  
처녀는 다듬네 비단결마음

그 마음이 아닌가  
기대의 고르로운 동음을 위해  
한밤을 새우고도

밝아오는 새날을 웃으며 맞은것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 때면  
정다운 그 모습 언제나 보이네  
날마다 이 마음 밝게 해주는  
아, 그의 모습은  
인민에 대한 말없는 보살핌  
사회주의화원속에 핀 한떨기의 꽃

내 그를 알지 못해도  
나는 다 알아  
그의 마음속에 찰랑이는 웅달샘  
집집에 흘러드는 맑은 물은 그의 마음  
나는 듣노라 그의 정겨운 속삭임

—안녕하세요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아 들 에 게 하 는 말

이제는 제법 꽃을 키운다고  
날마다 화분에 물을 주던 아들에  
오늘은 선뜻 가위를 들고  
시드는 줄기를 자르는것 아닌가

언제는 덤비다 즐기 하나 상해도  
부러진 줄기와 함께 아픈 마음 싸매던  
착한 그 손에 쥐어진 가위  
오늘은 조금도 사정을 모르누나

—그건 왜 자르느냐  
나의 물음에  
—필요없는 가지는 잘라야 해요  
제법 원예사가 된듯 리치를 알고 하는 말  
나의 가슴을 울리누나

자르거라 아들이  
원줄기를 위하여  
그렇게 자래우라 충실한 가지를

그렇게 피워내라 붉은 꽃을  
그렇게 가꾸라 너의 한생을

때로는 있으리라  
너의 앞길에는  
버리기 힘든 성격과 습관  
리기와 허영과 유혹의 결가지가

잘라버리라 서슴없이  
오직 옳은것을 위하여  
그래야 조국에 필요한 참된 인간이 되려니  
그렇게 가꾸라 너의 인생을

뿌리에는 영양소를  
줄기에는 세심한 손길을  
아들아 대견한 너의 모습에서  
나는 본다  
조국의 대지위에 억세게 자라날  
또 한그루의 푸르른 거목을!

# 다 시 찾 은 광 명

비전향장기수 손 성 모

생명중의 귀중한것 눈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 천양이라면  
눈은 팔백양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귀중한것  
눈동자처럼 여기라 하였습니다

어제날엔 눈은 있어도  
나날이 어둠속에  
사라져가는 시력이어서  
연분홍살구꽃 벌나비 날아에는  
만물이 칠보단장하여 뿜내는 봄은 와도  
광명은 내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어제날 남녘땅 철창속에 있을 땐  
보는것마다 역겨운것이었고  
느끼는것마다 고통이어서  
차라리 못 보는것이 애달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의 눈은 더욱 밝아  
그리운 동틀 날만은 환히 비쳐오고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그 어둠에 빛을 주시여  
우리를 온 세상앞에 내세워주시더니  
오늘은 80고령 이 나이에  
눈을 되살려주시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꿈속에서도 보고싶던  
그립고 고마운 장군님영상이  
이제는 환히 보입니다

어린 그날처럼 맑고 밝게  
버들 푸른 대동강유보도도 다 보입니다  
온갖 새 지저귀고 온갖 꽃 다투어 피어나는  
절승의 모란봉도 다 보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남녘땅은  
돈 없으면 있는 눈도 팔아야 하는 세상  
병나면 목숨도 잃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병나면 의사가 먼저 찾아오고  
돈 한푼 안 들이고 수술하고 치료해주는 우리  
세상  
세상에 오직 하나인 우리 제도  
이 제도 지켜주시고 빛내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장군님께 고마움의 인사 드립니다

장군님은덕으로 인생도 되찾고 광명도 되찾았습  
니다  
장군님 주신 이 눈으로  
밝고밝은 우리 세상 우리 절경  
보고 또 보며  
쓰고 또 쓰겠습니다  
조국땅 그 어디나 넘치는 장군님사랑을  
온 세계에 자랑하며  
쓰고 또 쓰겠습니다  
노래하고 또 노래하겠습니다

소 개

## 독특한 형상속에 반침략애국주의사상을 보여준 고전소설 《몽유달천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인멸되었거나 파묻혀있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하며 작가와 작품을 우리 나라 문  
학사와 예술사발전의 견지에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윤계선(1577—1605)에 의하여 17세기초에  
창작된것으로 보는 고전중편소설 《몽유달천록》

은 우리 인민의 반침략애국투쟁을 반영한 대표적  
인 작품의 하나이다. 작품은 중편소설집인 《화  
몽집》에 실려있다.

작품의 첫 부분에서는 파담자가 꿈에 달천강가  
에서 진행된 임진조국전쟁희생자들의 《달밤의  
모임》에 참가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있다.

파담자(윤계선의 호)는 어느날 나라일로 충청도  
의 여러 고을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전쟁때 달  
천싸움으로 유명한 충주땅에 이르러 임진조국

전쟁시기에 있었던 전투의 자취를 더듬어본다. 여기서 파담자는 봄빛 짙은 강기슭으로 천천히 말을 몰아가면서 전쟁초기 판군지휘관들의 무능과 비겁성으로 하여 수많은 군사들의 희생을 내던 가슴아픈 추억에 잠겨 세편의 시를 지어 읊는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산고을일을 말아보게 된 파담자는 어느날 밤깊도록 이미 써놓은 글들을 추고하기에 골몰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꿈에서는 하늘높이 둥근달이 떠오르고 이른봄의 싸늘한 밤바람속에 어데신가 호랑나비 한마리가 날아와 파담자를 이끌어간다. 비몽사몽간에 그 나비를 따라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여울물소리가 들리는 강가에 이르니 그곳이 바로 달천강의 옛 싸움터였다.

거기서 파담자는 임진조국전쟁에서 희생된 병사들과 애국명장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면서 전쟁의 옛일을 추억하는 《달밤의 모임》에 참가한다.

오른편 첫자리에 리순신, 왼편 첫자리에 고정명 각기 차례를 정하고 앉는데 임진년 금산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조현, 진주성방어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남강에 몸을 던져 최후를 마친 김천일을 비롯하여 최경희, 고종후 등 의병장들과 립진강방어전투에서 목숨바쳐 적들의 진격을 지연시킨 신길, 류극량, 칠천도바다싸움에서 최후를 마친 전라우수사 리억기, 이밖에 황진, 김시민, 신립, 리영남, 정운, 리복남, 김제갑, 송상현, 김련광, 리경희, 고정자, 승려출신의 의병장 령규 등 여러 계층의 애국적인 희생자들이 참가한다.

모임에 참가한 27명 애국명장들의 사연많은 회고담과 시, 노래를 들은 파담자는 큰 충격을 받고 그들의 장한 뜻과 애국정신을 칭송하여 고시 한편을 읊는다.

...

천만년 지나간들 이런 모임 또 있으라  
만고의 좋은 이름 영원토록 빛나라라  
파담자여 파담자여 얼마나 다행하나  
그 옛날 영웅들과 한자리에 술마심이

모임이 끝날무렵에 원균이 이 모임에 끼여들려다가 거절당하고 피해 달아난다.

원균의 몰골을 보고 모임참가자들은 한바탕 크게 웃는데 이때 파담자는 그만 잠에서 깨어난다.

잠에서 깨났으나 꿈에서 본것들이 생생히 떠오르고 받은 감동과 충격이 참으로 커서 파담자는 곧 제물을 차려가지고 화산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남쪽으로 떠가는 구름을 향하여 한바탕 곡을 한 다음 서해의 물결을 굽어보며 렬사들의 넋을

불러 제사를 지낸다.

《아! 죽은 사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지난 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거니 땅에 있으면 높은 산, 큰 바다가 될것이고 하늘에 오르면 북두성과 남극성이 될것이며 우러르면 그 고상함이 끝이 없으리라.

넋을 불러보나니, 아! 돌아가시라 나의 제문에 감동되어서라도!》

작품에서는 파담자의 꿈에 펼쳐진 임진조국전쟁 참가자들의 《달밤의 모임》장면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되었던 열렬한 애국심과 투쟁정신을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바친 사람들의 생은 죽어서도 영원히 후대들에게 빛난다는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또한 작품에서는 원균의 형상을 통해 나라를 배반한 반역자, 매국노들의 추악한 말로는 죽어서도 조국과 인민의 버림을 면치 못한다는 력사의 교훈을 보여주면서 그 추악한 형상에 저주와 규탄을 퍼붓고있다. 이런자들의 생은 육체적인 죽음 그 자체로 끝나며 사람들의 추억속에도 력사에도 남지 않는 법이다. 오히려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세세년년 전해질뿐이다.

작품에서 파담자가 주요인물로 등장하지만 그는 주체해명의 기본몹을 담당한 주인공이 아니며 력사에 대한 증견자에 불과하다.

주인공들은 《달밤의 모임》에 참가한 27명의 애국자들이다.

애국자들의 형상에서 중요한것은 무비의 희생성과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다.

파담자의 꿈에 등장하는 27명의 애국자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며 이들은 자기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긍지로 여긴다. 여기에는 삶에 대한 작가자신의 철학이 반영되어있다. 그 철학은 하는 일없이 오래 사는 삶보다 짧으나 조국을 위해 바친 삶이 더 가치가 있다는것이다.

고전소설 《몽유달천록》은 꿈이야기와 같은 조건적인 형식과 시가의 적극적인 도입, 환상과 대조의 수법 등을 통해 형상을 풍부하면서도 다채롭게 하고있으며 사상적내용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작품은 인민적인 사상감정이 뚜렷이 반영되지 못하고 어려운 한문으로 씌여져 인민들속에 널리 읽혀지지 못한 제한성이 있으나 형상전반에 차넘치는 강렬한 애국주의사상감정과 인물형상의 생동성, 구성의 독창성으로 하여 이 시기 소설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신 정 수

## 민족시가유산 《표해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은 곧 민족적자존심과 민족제일주의의 중요한 표현이다.》

《표해가》는 우리 나라 중세기에 발전한 대표적인 국문시가형식의 하나인 가사형식으로 씌여진 작품이다.

가사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노래의 가사와는 달리 분절이 없이 시행을 무제한 연장하여 쓸 수 있는 장시형식이었다. 이 가사형식은 그 소재와 창작한 계층 등에 따라 기행가사, 부녀가사, 잡가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표해가》는 리방익이 1796년에 항해도중 태풍을 만나 평후도(팽후도)에 표류하였다가 중국본토를 거쳐 조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읊은 기행가사이다. 이 가사의 작가 리방익은 제주도사람으로서 대대로 무관벼슬을 하는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796년 9월에 무과에 급제하여 충장위라는 무관벼슬에 임명되었는데 그때 잠깐 말미를 얻어 서울에 살고있는 부모를 만나보기 위해 7명의 선원과 함께 제주도를 떠났다가 도중에 폭풍을 만나 간난신고끝에 10월 6일에 중국의 평후도에 표착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타이완(대만), 푸지엔(복건)성 등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하여 룡로로 조국에 귀국하였다. 당시 리조봉건정부에서는 뜻밖의 기이한 여행을 하고 돌아온 리방익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유를 자세히 적어올릴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일행중에 글을 아는 사람은 리방익뿐인데 그도 한문으로 여행기간의 복잡한 이야기를 자유로이 표현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하여 유명한 실학파학자이며 작가인 연암 박지원에게 의뢰하여 그 사유를 한문으로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곧 《서리방익사적(리방익의 사실을 적은 글)》이었다. 한편 리방익은 우리 글로 된 가사형식으로 그간의 사연을 적은 작품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전해지는 기행가사 《표해가》이다.

가사 《표해가》는 배를 띄워 제주도를 떠나게 된 경위로부터 시작하여 폭풍우를 만나 죽는가 사는가 하는 갈림길에서 헤매이다가 우연히 평후도

에 표착한 후 그곳 주민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베이징을 거쳐 귀국하는 전 행정의 과정과 체험, 해당지역의 산천풍경, 풍속, 세태, 조선사람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친근한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가사는 다른 기행가사들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부터 조국으로 돌아오는 10개월간 1만 2 000여리에 달하는 긴 로정에서 보고 들은것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자부심을 노래하고있다.

시의 주인공은 평후도에 표착한 그날부터 《고국에 돌아감을 눈물로 간청하》며 가는 곳마다 처음보는 이국의 새로 보는 풍경에 《내 비록 구구하나 레의지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하여 폐절을 잊지 않는다. 주인공은 베이징에 들렀을 때 《조선관에 머물라》는 분부를 무엇보다 반가와하며 본국으로 가라고 하는 말에 《웃음이 절로나》도록 즐거워한다.

이 작품은 외부세계의 객관적인 묘사나 있었던 사실의 팽담한 전달에 그치지 않고 그 사물현상들에 대한 주인공—나의 심리적체험과 구체적인 감정세계를 진실하게 전달하고있다. 시인은 작품에서 부모를 만난다는 기쁨을 지니고 배에 오른 항로의 출발장면을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풍범을 높이 달고 바람만 쫓아가니  
원산에 비긴 달이 물가운데 비치였다  
청홍금단 천만필을 필필이 헤쳐린듯  
하늘인가 물인가 수색이 일천이라

...

※풍범: 배의 돛이라는 뜻  
원산: 먼산이라는 뜻  
수색: 물색갈이라는 뜻  
일천: 많다는 뜻

이렇게 생동한 시적묘사는 평후도를 떠나 룡로와 수로를 통하여 베이징에 이르는 로정의 묘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시인은 장난(강남)지방의 《호사함과 산천의 수려함》을 노래하

면서 반면에 산동(산둥)성인민들의 가난한 생활을 동정어린 정서로 그리었다. 시인은 또한 《청명시절 못되어서 보리가 누르렀고 하사월이 래일인데 조이삭이 드리》 위있는 남방의 이상한 풍경과 옛글에서 읽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깃든 고장을 직접 목격하는 감회를 생동한 정서로 노래하였다.

《표해가》는 다른 기행가사들보다 문장구성이 짧고 묘사가 간결할뿐아니라 묘사대상의 변화에 따라 알맞춤한 시어를 골라 썼으며 그 감정세계

의 깊은데까지 개방하는 비교적 높은 형상수준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가사 《표해가》는 그 시를 창작하게 된 특이한 계기와 시전반에 흐르는 애국주의적 감정 그리고 시형상의 일정한 수준으로 하여 우리 나라 중세가사문학의 다양한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로 용 선

소 개

## 짜리키족관료제도의 부패성을 폭로한 희곡 《검찰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관료주의는 낡은 사회의 관리들이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통치방법입니다.》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인 고폴리(1809—1852)에 의하여 창작된 풍자희곡 《검찰관》(5막, 1836)은 짜리로씨야의 관료통치기구와 관료배들의 부패성을 폭로한 작품이다.

검찰관이 내려온다는 통보를 받은 어느 한 지방도시의 시장을 비롯한 관료배들은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저들의 행위로 뒤가 켜기여 불안을 금치 못한다. 이러한 때에 두 지주가 러관에 묵고 있던 뻬쉴르부르크의 건달군인 몰락한 귀족 홀레스파코프를 검찰관으로 잘못 알고 즉시 시장에게 알린다. 이 통보를 곧이들은 시장은 그를 집에 초대하여 특별대접을 한다. 그러자 재판소장, 시학관, 자선병원 원장, 우편국장을 비롯한 관리들은 제놈들의 부정부패를 가리우기 위하여 저마다 홀레스파코프에게 아첨하고 퇴물을 먹이며 남의 죄행을 고자질하는 등 온갖 추태를 부린다. 한편 홀레스파코프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그들을 골려주고 동시에 자기 리속을 채울 궁리를 한다. 그는 허영심에 가득찬 시장의 처를 희롱하는 한편 시장의 외딸과 약혼까지 하며 신소하러 온 상인들과 시장을 비롯한 관료배들에게서 술한 돈을 빼내고는 마차로 뺑소니친다. 얼마후 우편국장이 달려와 홀레스파코프의 편지를 몰래 뜯어보았더니 그가 검찰관이 아니였다고 알린다. 관리들이 속았음을 알고 아연실색할 때 진짜검찰관의 도착소식이 전해진다.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작가는 낡고 썩어빠진 짜

리로씨야관료제도와 그를 이루는 관리들의 부정적 특질을 적나라하게 풍자비판하였다.

작품의 인물관계에서 시장을 비롯한 관료배들이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시장 스킨즈니크—드무하놉스키는 상부에는 아부굴종하고 하부에는 호령하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자기 리속만 채우는 사기꾼이다. 자선병원 원장 제물랴니까는 병원자금을 횡령하고 환자들이 죽어가는것을 보고는 좋아하는자이다. 한편 학교감독관 루까는 학교안에 《나쁜 사상》이 퍼질가봐 벌벌 떨면서 학교문을 거의 닫아쇠이하며 유일한 《지식인》인 재판소장 라쁘깁—자쁘깁은 퇴물이나 받아먹고 사냥하러만 다닌다. 우편국장 슈뻬깁은 취급되는 편지들을 모조리 뜯어보고 남의 비밀을 아는것을 기쁜 일로 여기며 시장의 지시대로 상부에 보내는 신소장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린다.

이와 함께 작품의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가짜검찰관 홀레스파코프 역시 교활하고 파렴치한 협잡군이며 사회의 기생충이다.

시장을 비롯하여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모두가 우선 가장 부패하고 반인민적인 무리들이다.

이 무리들은 폐외없이 자기 리속을 채우고 돈벌이를 하기 위하여 직무를 차지하고있다. 그들중 어느 하나도 자기 직무를 치부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자란 없다. 무지막지하고 협애한 이들의 생각은 오직 돈과 재산을 모으는데 집중되어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상부에 잘 보여 돈벌이가 좋은 직위에 앉을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퇴물을 많이 받고 국가돈을 횡



령하겠는가 하는것이 이들의 사업의 목적이다.

때문에 그들의 머리속에는 그 어떤 정신문화적 요구나 지향도 없으며 오직 무위도식, 정신적공허만이 지배한다. 그들중 그래도 식자가 있다고 제편에서 뽑내는자가 라쁘깁-자쁘깁인데 그도 겨우 5~6권의 책을 읽었을뿐이다. 이들에게서 그밖의 흥미를 가지는 일이란 까르파놀이, 술추렴, 사냥 같은것들이다.

그들은 인민들을 억압하고 약탈하며 못살게 구는 반인민적판료집단을 이룬다. 부당한 지시를 인민들에게 마구 내리먹이는 이자들은 인민들이 당하는 억울한 사정은 모두 덮어놓고 무시하며 부당한 처사와 판결로 인민들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들썩운다. 그들은 인민들의 재산을 제 물건처럼 빼앗아가지며 제멋대로 세금을 물리는 일을 꺼리낌없이 감행한다.

시장을 비롯하여 작품에 등장하는 판료집단은 또한 권력에 운명이 얹매인 가련하고 비겁한 존재들이다.

온갖 진보적인 사상과 과학문명의 원썬들인 이들에게서 제 리속을 채우기 위한 항시적인 범죄행위는 필수적인 생존방식으로 되어있으며 그에 따라 자기 직무를 지키기 위한 권력앞에서의 항시적인 공포와 아첨도 역시 그들모두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되고있다.

이렇게 작품에서는 부패한 전제주의적판료제도의 산물인 사기꾼이 자기를 낳은 그 체제를 흔들어놓는 풍자적형상을 통하여 짜리판리기구는 썩을대로 썩은 시궁창이며 판료배들은 그의 가장 더러운 오물들이라는것, 하여 짜리로씨야의 운명은

매우 위태롭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작품은 구성과 성격창조, 풍자적전형화의 측면에서도 선행한 문학에 비하여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작품에서는 시장과 홀레스파프브를 비롯한 중심인물들은 물론 류언비어를 유일한 흥미거리로 여기는 두 지주 보브친스끼와 도브친스끼, 협잡군인 상인 아브둘린, 자기 상전보다 오히려 더 령리한 홀레스파프브의 하인 오씨쁘 등 모든 인물들을 하나같은 부정적성격들이면서도 서로마다 자기의 성격론리에 따라 개성적으로 보이도록 형상하였다.

실제로 시장과 그의 하수인들을 부패한 반인민적봉건반동판료제급의 전형으로 그렸다면 홀레스파프브는 봉건제도가 붕괴기에 들어서고 정치체제가 무질서와 혼잡, 동란의 시궁창속에 빠진 틈을 리용하여 하루하루를 사기와 협잡, 라태와 패륜으로 살아가는 시정배, 패덕한의 모습으로 형상하고있다.

이상과 같이 풍자희곡 《검찰관》은 특색있는 풍자희곡형식을 통하여 붕괴기에 처한 당대 짜리로씨야사회의 부패성을 까밝혔으며 극작술을 새롭게 혁신함으로써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작품이다.

그러나 풍자희곡 《검찰관》은 다른 한편으로 짜리판료제도의 부패한 모습을 신랄한 풍자적형상으로 밝혀놓으면서도 그로부터의 출로를 혁명적인 사회변혁에서 찾지 못하고 비판 그자체에 그친것과 같은 심각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김 은 속

## 조선문학 주체100(2011)년 제9호 (루계 제767호)

###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0(2011)년 9월 1일

발 행 주체100(2011)년 9월 5일

7-06388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1

D P R Korea

ISSN 1727-9437